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周 姬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法頂禪師의 禪茶文化에 관한 研究

201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生活文化消費者學科

金 玉 秀

法頂禪師의 禪茶文化에 관한 研究

金 周 姬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0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生活文化消費者學科

金 玉 秀


認 准 書

金 玉 秀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5年 10月

審査委員長 朱 英 愛 

審査委員 高 鉉 

審査委員 李 貞 秀 

審査委員 車 景 旭 

審査委員 金 周 姬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현대를 살다가 가신 법정선사의 선수행의 선문화와 차생활인 선차문화(禪茶文化)를 고찰한 것이다.

법정선사는 청정하며 올곧은 수행승으로 이 시대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무소유의 청빈생활을 생활철학으로 ‘무소유의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보이신 선(禪)의 진수를 깨달은 선승이며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차인(茶人)이었다.

우리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은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그는 민족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차보급의 확산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초석이 되며 민족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법정의 정신세계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선차정신은 한 사람의 마음수행을 통한 정화가 사회의 정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맑고 향기롭게’ 시민운동을 통하여 자신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데 앞장섰으며, 회원들의 선 수련회와 차담(茶談)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였다. 또한 법정은 그의 삶 후반기에 창건한 길상사를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모임의 일환으로 길상사의 선 수련회와 다도(茶道)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현실참여를 통한 현대사회에 끼친 그의 공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선차문화의 개념과 성립배경 및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 현대에 와서 선차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크게 각광받고 대중화되고 있는 배경을 고찰해 보았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기타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선차문화의 개념 및 성립배경에는 선종의 깃다가풍(喫茶家風)과 다선일미(茶禪一味)가 그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에서 선종(禪宗)의 유입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근·현대의 선차문화의 시대적변천이 있었다. 선불교법맥과 우리나라 선차의 계보는 신라인으로

중국 4대 선사(禪師)중의 하나인 무상선사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의 석옥(石屋)청공에게 법맥을 인정받은 고려 중기 태고보우로부터 본격적인 선차문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선차문화가 웰빙(Well-Being)문화의 중심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크게 각광받고 대중화되고 있는 배경은 현대인들이 물질만능 기계문명의 공해에서 벗어나 평온과 휴식, 일상의 감성적 행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기인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는 제 1차인 중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서울에서 7차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법정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선차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법정의 재가 구도기 시절(在家 求道期 時節)과 출가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었으며 법정의 출가 후의 삶에 대해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암자에서 생활했던 봉은사 다래헌 시절에는 함께 하였던 함석헌선생과 같이 민주화 인사들과의 모임을 통한 현실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2010년 법정의 입적(入寂)과 입적 후 그를 기리며 나온 저서 사진출판물, 영상물들이 있었으며 그의 학문적 업적에서는 법문집, 산문집, 잠언집, 여행서, 역사/ 편저, 어린이용 편저, 법정의 관련출판물, 오디오북, 법정의 영문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저서 등이 출판되었다.

셋째, 법정의 생애를 바탕으로 법정의 선수행의 선문화와 차생활인 선차문화에 대해서 먼저 선문화(禪 文化)에서 법정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현재를 완전하게 사는 것을 선의 정신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의 임제선사, 성철선사를 통해본 선의 정신이 있었다. 법정의 선사상을 요약하면 선사상 핵심과 선사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사상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이다. 선사상의 특징은 무소유의 청빈사상 불교와 타종교의 화합사상 자연과 생태주의사상 ‘맑고 향기롭게’ 사상 등이 있었다. 그리고 법정의 출가정신에서 출가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엿볼 수 있다.

차문화(茶文化)에서는 법정의 차사상인 다선일미(茶禪一味)와 맑고 고요함과 담박함과 검소함, 우리민족 정신을 지키는 호국사상이라 할 수 있다.

차생활은 법정이 처음으로 차를 알게 된 시기, 차를 제대로 마셨던 시기, 마셨던 차의 종류, 계절에 따라 마셨던 차가 있었으며 차를 선물한 지인들이 있었다.

법정은 120년 만에 복원된 일지암(一枝庵)을 가서 보고 느낀 점과 한잔의 차가 가지는 숨은 공덕을 알 수 있었으며 차를 따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안복(安福)을 누린다고 하였다.

다사(茶事)는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법정은 차 따기와 제다를 직접 하였으며, 불전에 차를 공양하였다. 차를 마시는 방법과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와 차를 마실 때의 마음가짐이 있었다. 차를 달일 때에 사용하였던 물과 도구(茶具), 다실(茶室), 애송하였던 다시(茶詩)와 즐겨보았던 다화(茶畫)와 법정의 선·다시와 선·다화의 사진작품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넷째, 또한 법정의 선차사상은 한사람의 마음수행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와 대중에게 연결시키고자 사회운동을 펼쳤다는 점이 주목되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창하였다.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내 마음을 먼저 맑히고 세상을 위해 향기로우심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삶 후반기에 창건한 길상사를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모임의 일환으로 길상사의 선수련회와 다도(茶道)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사람들이 맑아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등의 사회공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마지막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법정의 선차문화가 전무한 상태지만 이 연구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법정의 선차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대중화와 세계화로 구분하여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조화되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적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법정의 선차문화연구는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일면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선차문화에 대한 연구로 계속 이어지는데 일조(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
| 3. 용어정의' | 6 |
| II. 선차문화의 개념과 성립배경 및 변천 | 8 |
| 1. 선차문화의 개념 | 8 |
| 2. 선차문화의 성립배경 | 21 |
| 3.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 | 26 |
| 4. 새로운 문화로 평가되는 선차문화 | 41 |
| III. 법정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 | 46 |
| 1. 생애 | 46 |
| 2. 입적(入寂) | 73 |
| 3. 학문적 업적 | 80 |
| IV. 법정의 선차문화 | 89 |
| 1. 선문화(禪文化) | 89 |
| 2. 차문화(茶文化) | 131 |

| | |
|-------------------------------|-----|
| V. 범정의 선차사상(禪茶思想)과 사회공헌 | 183 |
| 1.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 184 |
| 2. 근본도량 길상사(吉祥寺) | 200 |
| VI. 결 론 | 215 |
| 1. 요약 및 시사점 | 215 |
| 2. 연구의 한계 | 219 |
| 3. 향후 과제 | 220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 |
|-------------------------------------|-----|
| <표 1> 선의 방법 | 12 |
| <표 2> 선과 차의 공통적인 특성 | 17 |
| <표 3> 차인들의 행적과 저서 및 다시 | 39 |
| <표 4>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 45 |
| <표 5> 불일암(佛日庵) 수칙 | 65 |
| <표 6> 서진(西殿)수칙 | 66 |
| <표 7> 법정의 입적 후 출판된 저서 | 78 |
| <표 8> 법정의 입적 후 사진출판물 및 영상물 | 79 |
| <표 9> 법정의 법문집과 산문집 | 82 |
| <표 10> 법정의 잠엄집과 여행서 | 83 |
| <표 11> 법정의 역서/ 편저와 어린이용편저 | 84 |
| <표 12> 법정의 관련 출판물과 오디오 북 | 86 |
| <표 13> 법정의 영문판 저서 | 87 |
| <표 14> 법정의 중국어판과 일본어판 저서 | 88 |
| <표 15> 지혜(맑은 마음·본래마음)의 3가지 특징 | 99 |
| <표 16> 법정이 마셨던 국가별 차의 종류 | 144 |
| <표 17> 법정이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샘플 | 162 |
| <표 18> ‘맑고 향기롭게 운동’ 취지문 | 186 |
| <표 19> ‘맑고 향기롭게 운동’ CI | 196 |
| <표 20> 선(禪)수련회 일정표 | 207 |
| <표 21> 앞차 마실 때 필요한 차도구 | 224 |

사 진 목 차

| | |
|---|-----|
| <사진 1> 미래사 대응전과 진신사리 3과가 봉양된 삼층석탑 | 59 |
| <사진 2> 쌍계사 탑전 | 60 |
| <사진 3> 해인사 대불광전 | 60 |
| <사진 4>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각 | 60 |
| <사진 5> 통도사 금강계단 | 61 |
| <사진 6> 봉은사 다래헌 | 71 |
| <사진 7> 봉은사 판전(板殿) | 71 |
| <사진 8> 송광사 불일암 | 72 |
| <사진 9> 강원도 수류산방 | 72 |
| <사진 10> 강원도 일월암 | 72 |
| <사진 11> 송광사에서 법정의 장례모습 | 76 |
| <사진 12> 송광사 대응보전 앞 추모객들 | 76 |
| <사진 13> 다비장으로 향하는 스님들과 추모객들 | 76 |
| <사진 14> 고현교수에게 그려준 부채 선시와 선화 | 179 |
| <사진 15> 손병철 박사에게 그려준 다시와 다화 | 179 |
| <사진 16> 지묵스님에게 그려 준 부채다시와 다화 | 179 |
| <사진 17> 덕현스님에게 보낸 선시와 선화 | 180 |
| <사진 18> 대자화보살에게 보낸 편지와 선화 | 180 |
| <사진 19> 월정다인에게 보내 준 칠완 다시와 다화 | 180 |
| <사진 20> 현장스님에게 보낸 선시와 선화 | 181 |
| <사진 21> 현장스님에게 그려 준 부채다시와 다화 | 181 |
| <사진 22> 손민영 관장의 도자기 소장품 ‘茶 禪 一 味’ | 181 |
| <사진 23> 길상사 일주문 | 212 |
| <사진 24> 길상사 숲길 | 212 |
| <사진 25> 길상사 관세음보살 | 213 |

| | |
|------------------------|-----|
| <사진 26> 길상사 극락전 | 213 |
| <사진 27> 길상사 지장전 | 213 |
| <사진 28> 길상사 진영각 | 214 |
| <사진 29> 길상선원 | 214 |
| <사진 30> 길상화보살공덕비 | 214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심볼(Symbol) | 198 |
| <그림 2> 연꽃 캐릭터(Character) | 198 |
| <그림 3> 로고(Logo) | 199 |
| <그림 4> 일러스트캐릭터 연풍(蓮風) | 199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걸맞게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정신문화인 선차문화가 한국적 문화 아이콘으로 부각되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로 각광받고 있으며, 오늘날 일고 있는 웰빙(Well-Being)문화의 중심축에 큰 몫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동양적이고 한국적 전통문화인 선차문화의 정적인 효용을 통하여 현대 정보화 사회가 주고 있는 물질만능, 기계문명의 공해로 찌든 현대인들의 심리에 스며드는 불안감, 스트레스 등 갖가지 악영향으로 부터 벗어나 평온과 휴식 그리고 일상의 감성적 행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차문화(禪茶文化)란 불교의 선과 차가 같다는 선차일여(禪茶一如),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최석환, 2011 : 107)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심오한 전통적인 정신문화로서 선문화와 차문화로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선차(禪茶)라는 용어는 당나라로 구법을 떠난 신라의 무상선사(無相禪師)에 의해 보혜(普慧)선인이 시작한 몽정차가 선차로 바뀌게 되었으며, 선차지법(禪茶之法)이라는 불가에서 차 마시는 법을 창안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최석환, 2012 : 202). 차문화는 선종사원(禪宗寺院)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에 불교의 선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선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차(茶)는 커피, 코코아와 더불어 세계의 3대 기호음료 중 하나로서 차나무의 순(荀)이나 잎으로 되어 있으며 고대 중국의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가 처음 마셨다(尹庚燮, 2006 : 93)고 한다.

선과 차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는 유래가 있는데 선수행(禪修行)을 하다가 수마(睡魔)를 못이긴 달마대사(達磨大師)가 본인의 눈꺼풀을 잘라 땅에 버렸던 곳에서 차나무가 자랐다는 내용이다. 이는 선과 차의 밀접

한 단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차가 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차는 잠을 쫓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약리적 효능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불교에서 선승(禪僧)들은 선 수행할 때는 반드시 수행의 도구로 차를 즐겨 음용하였다. 선과 차로 여여(如如)한 삶을 사는 선승들은, 차와 선이 하나라는 차 화두(話頭)를 등장시켜 수행과정 속에서 차생활을 통해 선의 경지를 체득해내는 법을 깨닫고 선차일여, 다선일여의 정신적인 경지인 선차사상을 이루었다. 선으로 차를 마시고, 차를 통해 선을 이루려는 고도의 심오한 정신적인 선차사상의 구현이 아름다운 선차문화라는 삶의 꽃으로 피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멋과 민족정체성을 회복시켜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를 살다 간 법정선사(이하 ‘법정’으로 약칭함)를 통해 선수행인 선문화와 차생활인 선차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법정의 선차사상이 피어난 현실참여를 통한 사회에 끼친 공헌과 더불어 선차문화의 개념과 성립배경 및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 선차문화가 오늘날 새로운 문화로 크게 각광받고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

법정선사(1932~2010)는 청정하며 올곧은 수행승으로, 이 시대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무소유(無所有)의 청빈생활을 생활철학으로 ‘무소유의 정신’을 맑고 향기로운 삶 속에서 몸소 보인 선의 진수를 깨달은 선승이며 차인이다. 그리고 문필가이고 학인으로서, 불교경전번역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으며 온 생애를 통해 참다운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시대에 책임감과 정직함을 보여준 지성인과 사상가로 우리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은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그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섰으며 저서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내 삶을 이루는 소박한 행복 세 가지는 “스승이자 벗인 책 몇 권, 나의 일손을 기다리는 채소밭, 그리고 오두막 옆 개울에서 길어다 마시는 차 한 잔이다”(법정, 2008 : 1)라고 말할 만큼 차를 사랑하였다.

암자에서 수행정진을 하였을 때에는 봉은사(奉恩寺) 다래헌(茶萊軒), 송광사(松

廣寺) 불일암(佛日庵)에 있는 소박하고 작은 차실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과 강원도, 오두막의 수류산방(水流山房)등, 수행하였던 거처를 차와 연관되는 명칭으로 정할만큼 다선일미, 선차일여(禪茶一如)의 경지를 보였고, 선차일체적인 삶 속에 맑고 한가로운 차의 넉넉함을 즐겼던 진정한 차인으로서 자연 속에서 살다간 자연인(自然人)이며, 바른 견해를 지닌 진정한 한도인(閑道人)이었다.

법정은 민족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손병철, 2011 : 30-33)이라고 강조했으며 차 보급의 확산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초석이 되며 민족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임을 주장하였다.

우리시대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법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저서에 관한 논문들로 「무소유」에 관한 두 편의 석사논문(정희, 2008 : 이명숙, 2009)과 소수의 소논문(김병익, 1976 : 윤재천, 1996 : 김향선, 1996 : 류시화, 1998 : 탁광일, 1999)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법정의 선차문화에 대한 연구가 전무(全無)한 상태이므로 우리시대의 올곧은 수행자이고 한도인(閑道人)이던 법정의 선차문화 연구는 우리나라 선차문화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의 선문화와 차문화인 선차문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차문화의 개념과 성립배경 및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비롯하여 선차문화가 현대 웰빙(Well-Being)문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한국적 문화아이콘으로 부각되어 대중화되고 있는 배경의 관계성도 논하였다. 아울러 법정의 선차사상이 현대사회에 끼친 공헌 등을 통하여 오늘날 차 마시기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몇과 미를 겸비한 전통적인 고유의 선차문화를 확산 발전시킬 방안도 강구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후속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 등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민족정신을 전통적인 선차문화를 통하여 바로 세우고 동시에 선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확산시켜 그 위상의 고취(高趣)가 이어지길 기대하여 본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자료를 연구 검토한다. 법정은 법문집과 산문집 등을 비롯하여 3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법정의 저서 중에서 차와 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저서를 일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또한 법정이 신문에 기고한 글, 강연내용, 오디오 북등도 연구의 검토 자료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주제마다 법정이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을 검토하여 법정의 생애, 선차문화, 선차사상이 끼친 사회공헌과 선차사상이 어떠한 사상을 근거로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법정의 입적 후 저술된 법정에 관한 서적, 방송, 인터넷 기사자료, 연구에 필요한 홈페이지, 영상물, 사진집, 선묵집(禪墨集) 등의 연구 성과들도 법정의 선차문화연구의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선차문화의 선과 차에 관한 자료는 『제7회 세계 선차문화교류대회논문집』을 비롯하여, 『차와 선』, 『신세계의 차인』, 『한국차문화사 1, 2』, 『정석 차의 세계』, 『한국 근·현대 차 인물 1, 2』 외에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될만한 기존의 문헌적 후대 사서류와, 현대서적,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을 검토·종합·적용하여 선차문화의 개념 및 역사적 성립배경과 변천에 관해 선과 차,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 새로운 문화로 평가되는 선차문화에 대한 연구에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제시하고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다.

II 장에서는 선차문화의 개념과 성립배경 및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선차문화 이해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선차문화가 현대에 새로운 문화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배경과 이를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선차문

화교류대회에 대해 고찰하였다.

III장에서는 법정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선차사상의 형성과 과정을 고찰하였다. 법정의 재가구도기 시절, 출가와 시대적 배경과 출가 후의 법정의 삶을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2010년 법정의 입적(入寂)과 입적 후 그를 기리며 나온 저서 사진출판물, 영상물들과 법정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적 업적들을 논하였다.

IV장에서는 법정의 생애를 바탕으로 법정의 선문화와 차문화인 선차문화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선문화(禪文化)에서는 법정을 통한 선의 정의와 정신, 법정의 선사상을 선사상 핵심과 선사상 특징으로 구분하였으며, 출가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살펴보고 그의 선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차문화(茶文化)에서는 법정의 차사상과 차생활, 다사(茶事), 다구(茶具), 다실(茶室), 애송하였던 다시(茶詩)와 즐겨보았던 다화(茶畵), 법정의 선·다시(禪·茶詩)와 선·다화(禪·茶畵)작품을 사진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법정의 선차사상이 끼친 사회공헌을 조명하였다.

법정이 실천했던 사회공헌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과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정의 선차사상이 사회에 끼친 공헌을 재조명하였다.

VI장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였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향후과제로는 법정의 선차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차문화와 법정의 선차문화에 대한 학문적 영역과 범주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 선(禪)

선은 원어 jhana [산스크리트어], dhyana [팔리어]의 음역인 선나(禪那) 선사(禪思)를 줄인 말이며, 인도에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수행방법의 하나로서, 불교실천의 기본형태의 하나가 되었다. 선은 마음을 전일정허(專一靜虛)하게 하여 진리를 직관하여 삼매(三昧)에 이르는 일이다.

(2) 명상(冥想)

명상이란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이다. ‘선과 명상은 서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차분한 마음’으로는 선정의 의미와 연결되고, ‘깊이 생각함’은 지혜의 작용이나 화두의 참구(參究)로 해석할 수 있다. 팔리어 ‘jhana’(범어, dhyana)를 중국에서는 선(禪)이지만 영어권에서는 ‘ditation’이나 ‘contemplation’이란 용어로 번역한다(인경스님, 2015 : 32). 즉 명상은 안으로 마음을 살피는 일이며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훈련이고 안팎으로 지켜봄이 말한다.

(3) 선종(禪宗)

선을 실현하는 방법을 자각적으로 제시하는 학파이며 불심종(佛心宗)이라고도 한다. 선이 독립된 종파로 성립한 것은 육조 혜능(六祖 慧能 638-713)이후로서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의 제자 백장(百丈·720-814)때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초조인 보리달마(-536)에서 시작 된다(김승동, 2015 : 590). 선종은 설법과 경문이 아닌 참선에 의해서 마음으로 진리를 직관하려는 불교의 종파이다.

(4) 다사(茶事)

다사란 차에 관련 된 차나무를 심고 가꾸며, 차를 따고 제다하고 물을 끓여서 차를 우려마시는 등 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모든 차의 일을 말한다(신미경, 2008 : 8). 즉 다사란 차와 연관되어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한다.

(5) 선차(禪茶)

선과 차가 형성된 용어로 다선(茶禪)이라고도 표현하며 차를 마시면 차가 주는 고요함과 깨어나는 정신이 선(명상)적인 상태로 각성이 된다는 뜻으로 선과 차, 선적인 차, 선의 차의 표현, 차의 선의 표현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6) 선차문화(禪茶文化)

선차문화(禪文化)란 불교의 선과 차가 같다는 선차일여(禪茶一如), 다선일미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심오한 전통적인 정신문화로서, 선문화와 차문화로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7) 무소유(無所有)

법정의 무소유정신을 나타내는 말로서 저서 『無所有』에 잘 나타나 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청빈’을 뜻하며,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법정, 1998 : 80)라고 하였다. 즉 무소유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며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小欲知足)을 말한다.

II. 선차문화의 개념과 성립배경 및 변천

1. 선차문화의 개념

선과 차로 형성된 선차문화에서 먼저 선과 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禪)과 차(茶)

(1) 선(禪)

① 선(禪)의 정의

선나(禪那, jhyāna)의 준말로써 선은 마음을 전일정허(專一靜虛)하게 하여 진리를 직관하여 삼매(三昧)에 이르는 일이다(東亞漢韓大辭典, 1997 : 1274).

『선어사전(禪語事典)』(혜원, 2011 : 181-182)에는 선(禪)은 원어 jhyāna [산스크리트어], dhyana [팔리어]의 음역인 선나(禪那) 선사(禪思)를 줄인 말이다. 원어의 마지막 a가 탈락하여 잔, 디안이라고 발음되어 선으로 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은 선의 한자(漢字)자체에 원어와 상응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의 원어는 동사어근의 ‘숙고하다’, ‘심사(沈思)하다’에서 파생된 명사이고 현대어로 명상(冥想) 주의(注意)라고 번역할 수 있다. 좌선을 할 때 눈을 감는다거나 뜬다든가 하는 것은 특별히 문헌상에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간다라 또는 마투라 등에서 출토한 불상을 보면, 눈을 반쯤 뜬 불상뿐이다. 불교에서는 눈을 뜨고 좌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의 역어는 명상(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注意; 마음, 의식을 집중하는 것)가 적당할 것이다. 석존의 선은 지(止) samatha와 관(觀) vipasyana에 의해 행하는 것이며, 지(止)는 ‘고요·평정’, 관은 ‘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의 의미’이다. 선은 안으로는 마음을 평정히 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세간의 진실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지는 내면적인 행

이며 관은 그것이 외계로 향해진 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여선사(無如禪師, 2009 : 36)¹⁾는 선에 대하여 사유한다, 생각한다는 뜻으로 사유수(思惟修)라고 한다. 사유수란 생각해서 닦는다는 것이며, 그 말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 되었으며 즉 “마음을 바로가리켜 성품을 단박 깨쳐 부처가 된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전(敎典)』의 좌선법(坐禪法)에서는 선(禪)의 정의에 대해 “선(禪)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妄念)을 쉬고 진성(眞性)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火氣)를 내리고 수기(水氣)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무시선법(無時禪法)에서는 “각자의 성리를 오득(悟得)해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이다”(兪大元, 2003 : 11)라고 하고 있다.

② 선(禪)의 유래

선(禪)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禪)은 대승불교의 한 종파로서 6세기경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베트남,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의 선은 원래 범어 *Dhyāna*에서 선나(禪那)로 음역되었고 정려(靜慮·고요한 명상)라고 번역되었다. 따라서 선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대승불교의 한 종파로서의 선사상은 중국에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Dhyāna*는 불교뿐 만 아니라 고대 인도의 여러 사상인 종교 및 철학 등 모든 사유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것이 중국에 전래되어 독자적인 불교사상으로 형성되었다. 사선정(四禪定)등 선정(*Dhyāna*)위주의 인도선 습선 과정을 거친 후, 중국 선의 초조 보리달마(5-6세기무렵)에 이르러 대승불교로서의 중국 선종이 출범했다. 보리달마의 대승불교 선 사상은 교(敎)를 근간으로 한 이치와 네 가지의 대승적 실천 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 잘 나타나 있다(장은화, 2013 : 71).

1) 경북 김천에서 출생, 오대산 상원사에서 회심스님을 은사로 출가 하였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운영위원장 역임, 1987년부터 경북 축서사 선원(禪院)을 개원하여 원장으로 있으며 한국선의 가풍에 새로운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선(禪)의 정신과 목적

먼저 선(禪)의 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禪)의 정신은 석가가 영산에서 말한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 교의별전(敎外別傳)에서 출발했다. 석가여래의 가르침을 말로 논술한 것을 ‘교’라고 부른다. 이것 이외에 말이라든지 문자를 떠나서(敎外別傳 不立文字), 곧 바로 마음을 통해 자성(自性)을 보고 즉시 부처가 되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법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법(禪法)이다. 이는 선(禪)의 중심사상으로 이 진리를 선의 특징적 수행방법인 좌선(坐禪)과 공안(公案)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선(禪)의 목적을 살펴보면 선의 목적은 깨달음이며 순수의식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은 『능가경(楞迦經)』에 따르면 고귀한 지혜가 자체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의식의 상태이다. 이것은 분석과 논리에 의한 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조(觀照)를 통해 사물의 본성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순투성이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해 가려져 있던 전혀 새롭고 변화된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깨달음은 선의 핵심이며 시작이자 목표이다. 마음의 본래적인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모든 선(善)한 행위가 생기고 조화로운 삶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兪大元, 2003 : 11).

④ 선의 효능

선의 효능에 대해 살펴보면 경북 축서사 선원(禪院)에 원장인 무여선사(2009 : 272-287)는 선(禪)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이 생긴다고 하고 있다.

첫째, 마음이 편해진다.

둘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진다.

셋째, 머리가 좋아진다.

넷째, 사람의 향기가 난다.

다섯째, 일에 능률이 오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중력을 길러준다.

여섯째,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다. 선정에 들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서 항상 젊

음을 유지하게 된다.
일곱째, 궁극적 깨달음을 얻는다.
여덟째, 생사까지도 자재할 수 있다.

⑤ 선(禪)의 방법

선(禪)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의 수행법은 소승불교의 수행과 대승불교의 수행으로 구분되는데 소승불교의 수행은 수식관, 사념처관이 있으며, 대승불교의 수행은 참선(參禪)이 대표적이다. 참선에서 선의 방법은 공안선, 묵조선, 염불선 등으로 분류한다.

첫째, 공안선(公案禪)

화두선(話頭禪), 간화선(看話禪)이라고도 하며 화두에 대한 의단(疑團)을 참구(參究)하는 선(禪)이다.

둘째, 묵조선(默照禪)

화두없이 자성불심(自性佛心)을 묵조하며 닦는 선(禪)이다.

셋째, 염불선(念佛禪)

자심(自心)을 비롯한 일체존재(一切存在)가 본래로 부처요 우주의 실상(實相)이 바로 정토(淨土)임을 관념(觀念)하며 닦는 선(禪)이다.²⁾

공안선, 화두선, 간화선은 참구적(參究的)이며, 지적으로 참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지적으로 수승한 선(禪)이다.

묵조선은 의지적(意志的)이며, 묵조선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단전주(丹田住)라 아랫배에 힘을 두고서 공부한다. 의지(意志)가 강하지 않으면 못한다. 의지가, 강한 쪽으로 수승한 선(禪)이다.

염불선은 지·정·의(知·情·意)의 조화적(調和的)이며 어떤 때나 할 수 있고 하기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한다.(淸華禪師, 1989 : 149-156).

2) <http://muju5.blog.me/>

선(禪)의 방법을 <표 1>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禪) 의 방법

| | | | |
|-----|-------------------------------------|------------------|------------------------|
| 방 법 | 공안선(公案 禪) 화두선(話頭 禪) 간화선(看話 禪) | 묵 조 선 (默 照 禪) | 염 불 선 (念 佛 禪) |
| 구 분 | 참 구 적 (參 究 的) | 의 지 적 (意 志 的) | 지·정·의(知 情 意) 조화적이다. |

(2) 차(茶)

① 차의 정의

차란 동백나무 과에 속하는 차나무에서 싹이나 잎을 따서 가공하여 만든 찻잎이나 가루차, 혹은 차 덩어리를 말하며, 이를 탕수에 타거나 침출시킨 차음료 전반을 말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용음료들도 모두 차 종류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다산(茶山)정약용은 그의 저서 ‘아언각비(芽言覺非)’³⁾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茶)에 대한 인식을 탕약 · 환약 · 고약 등, 마시는 약과 같이 달여서 마시는 모든 것을 차라고 부른다. 생강차, 굴피차, 모과차, 상지차, 송절차, 오과차라고 하여 관습적으로 항상 쓰는 말이 되었는데 이는 잘못이다.⁴⁾(丁海廉, 2005 : 58)

원래 차는 식물학상으로 산차아목(山茶亞木), 산차과(山茶科), 차속(茶屬), 차종

3) 조선 정조(正祖)때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우리나라 속어를 어원적으로 고증한 책. 3권 1책 이다(東亞漢韓大辭典 : 1997 : 1995)

4)“東人認茶字如湯丸音飲之類，九藥物之單煮者，總謂之茶，薑茶橘皮茶木瓜茶桑枝茶，松節茶五果茶，習爲恒言，非矣”(丁海廉, 2005 : 263).

(茶種)의 종자식물이며, 학명은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이다.⁵⁾ 차의 원산지는 중국의 동남부와 인도의 아쌈 지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차나무를 연구해온 영국의 식물학자 와트(Watt,1907)는 4변종(중국 대엽종, 중국 소엽종, 인도종, 산종)으로 분류했고 네델란드의 식물학자 스투어트(Cohen Stuard, 1919)역시 4개의 종으로 변종으로 분류하였다.

중국 종은 중국 대엽종과 중국 소엽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 대엽 종(中國大葉種)은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쓰촨성(四川省), 위남성(雲南省)일대에서 재배된다. 중국 소엽 종(中國小葉種)은 잎과 나무가 작은 관목으로 이라 하고 추위에 강하며 녹차용으로 적합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나무는 모두 중국 소엽종이며 다자란 경우도 2m가 넘지 않는다.

인도종(印度種)은 아쌈, 매니푸, 카차르, 루차이 지방에서 주로 생육한다. 잎은 넓어서 길이가 22-30cm에 달하고 엽질은 얇고 부드러우며, 잎의 색은 약간 짙은 농녹색(濃錄色)이다.

산 종은 산 지방이라고 불리는 라오스, 태국 북부, 미얀마북부 지방에 속하는 수종이다. 잎은 15cm 내외가 되고 엽색은 짙은 녹색이다(이진수, 2015, : 50-51).

② 차의 기원

차를 언제부터 인류가 음용하였는지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차의 기원설이 있다.

첫째, 신농씨(神農氏)에 의한 기원

신농씨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팔사략(十八史略)⁶⁾에 나오는 중국 고대 삼황 태호 복희, 염제 신농, 황제 현언(太昊伏羲, 炎帝神農, 黃帝軒轅)중의 한사람인 신농씨가 초목의 식용과 약용의 여부를 알기위해 여러 가지 약초를 먹어보다가 독초에 중독이 되었다. 그때 홀연히 날아온 차나무 잎을 씹어보니 그 맛이 쓰고 향기가 있었으며 먹은 뒤에는

5) cafe.sayclub.com/cb, 2003.07.02.

6) 중국 남송(南宋)말에서 원(元)나라 초에 걸쳐 활약하던 증선지가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

정신이 맑아져 그때부터 차를 음용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신농씨가 위생을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모두 끓여서 마시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러다 변경 지방을 순시하던 중 차나무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우연히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끓이는 물속에 빠져버렸다. 그러자 물의 색이 변하면서 좋은 향기가 풍기고 신농씨가 마셔보니 맛이 쓰고 떫었으나 뒷맛이 달고, 해갈작용과 정신을 맑게 하는 성능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뒤부터 음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신농씨는 그 나무를 차나무라 이름하고 해독을 제일의 효능으로 전하였다. 풀초(艸)와 나무 목(木)사이에 사람 인(人)이 있는 차(茶)라는 글자는 신농씨를 죽음에서 살려낸 데 기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지금 중국에 있는 그의 능을 차능(茶陵)이라 부르고, 중국인들은 지금도 햇차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다신인 신농씨에게 차례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⁷⁾

둘째, 달마대사(達磨大師)에 의한 기원

중국에서 차를 마신 기원을 달마대사에서 보는 견해이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이후, 9년 간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약속하고 수행하였다. 달마는 소림굴에서 9년 면벽 후에 선조(禪祖)가 되었는데 달마가 정진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수마였다. 처음 3년간은 수행이 잘 전진되다가 졸음이 자꾸 오자 화가 난 달마가 자기의 눈꺼풀을 잘라 땅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 후 눈꺼풀을 버린 곳에서 차나무가 자라고, 이것이 차나무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다분히 전설적이다. 그러나 찻잎이 선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잠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구영본·신미경, 2006 : 11-13).

셋째, 명의 편작(扁鵲)의 아버지 무덤에 난 차나무의 기원

명의 편작 아버지 무덤에 난 차의 기원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전국시대 명의 편작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지낸 무덤에서 처음으로 돌아났다는 전설이 있다. 편작의 아버지는 8만 4천의 약방문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만 2천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편작에게 전수하고 2만 2천은 차나

7) <http://blog.naver.com/kjschina/>

무로 남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나무는 비방덩어리인 썸이다. 그래서 나무인지 풀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풀(艸)과 나무(木)를 합쳐서 차(茶)라고 적었다는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넷째, 명의 기파(耆婆)의 딸의 무덤에 난 차나무 기원

기파의 딸의 무덤에 난 차나무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제자인 의원 기파가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스무 살 된 딸이 죽어있어, 속죄의 뜻으로 딸의 무덤에 좋은 약을 뿌렸더니 차나무가 돋았다는 설이다. 기파는 고대인도 왕사성의 명의였다. 빔비사라왕의 아들로써 석가에 귀의하였다. 그는 의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부처님의 풍병, 아나율(阿那律)의 실명. 아난의 부스럼을 고쳤다고 한다. 기파가 딸이 앓을 때 좋은 약을 못해준 것이 후회되어 죽은 딸의 무덤에 좋은 약을 뿌렸더니 차나무가 돋아났다고 한다. 그래서 차나무를 스무 살짜리 사람의 나무라고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였다(이진수, 2015 : 28).

③ 우리나라의 차(茶)의 기원

우리나라 차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사기』에 단군은 선인(仙人)이라고 했고, 최치원은 차를 선인들의 기호물이라 했으며, 선인이 「단차(丹茶)」를 약으로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기록이 고조선 때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신라사선(四仙)중 영랑은 단군의 도를 전해 받았고 그들의 독특한 음차풍속을 볼 때, 삼국시대 이전이거나 고조선 때에도, 차를 마셨을 것이다(당시 고조선의 영토는 한반도와 서쪽으로 중국 북경 근처의 난하(灤河)에서 흑룡강 길림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鄭英善, 2007 : 36-37).

둘째, 불교가 전래되어 고구려와 백제에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무엇보다 4세기 말에는 고구려에 향과 다기(茶器)가 있었으니 우리의 음다(飲茶)생활은 늦어도 3, 4세기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류건집, 2009 : 30).

8) 보이차 동경당 cafe.daum.net/dktea/nrcv/135, 차의 유래1(차의 기원설).

셋째, 차나무가 생겨난 이래로 새나 배, 바다의 조류, 지형의 변화 등으로 씨가 옮겨져, 계속 번식했으므로 중국과 가까운 백제와 가야 지방에는 역사 이전부터 차나무가 자생하여 약용으로 쓰이다가 음료로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들이 있으나 문화는 사회와 개인에 의해 전파되므로 엄격한 의미의 고유문화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적 사대주의나 국수주의를 고집하기보다는, 민족이나 개체의 특성과 환경을 존중하며 한국문화로서 끊임없이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鄭英善, 2007 : 37).

④ 차의 효능

차는 건강에 좋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차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구영본·신미경, 2006 : 44-47)고 말하고 있으며 차의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 발생 억제효과이다.

둘째, 콜레스테롤 제거효과, 동맥경화, 혈압상승 억제효과이다.

셋째, 식중독 예방, 구취 및 냄새 제거, 충치예방효과이다.

넷째, 노화억제 작용 및 피부미용효과이다.

다섯째, 중금속 제거효과이다.

여섯째, 체지방축적 억제 작용 및 다이어트효과이다.

일곱째, 숙취해독 작용이다.

여덟째, 변비개선 효과이다.

(3) 선(禪)과 차(茶)의 공통된 특성

선과 차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육로산거영(六老山居詠)⁹⁾에서 나타나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1818년, 원나라 승려 석옥(石玉)청공(淸琇, 1272-1352)의 「산거(山居)」시 24수를 다산과 수룡(袖龍)색성(穢性 1772-?), 철경(鐵鯨)응언(應彦, ?-?), 침교(枕蛟)법훈(法訓, ?-1813), 철선(鐵船), 혜즙(蕙楫, 1791-1858)등 다섯사람이 차운하여 함께 묶은 시집 이름이다(정민, 2011 : 189).

첫째, 선과 차는 정신을 맑게 하여 불성을 체득하는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과 차는 정신적 경지의 정화와 승화를 추구한다. 선과 차는 일상에서 맑음을 추구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수승한 공부의 방편이라는 데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과 차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바탕으로 있다는 것이다. 선차는 무작 바라밀로서 삿됨이 없고 어떠한 욕심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기 전과 마시는 도중 그리고 마신 후에도 항상 그 마음은 청정하고 고요해져 사물을 관조하는 청공(淸空)의 경계에서 자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선과 차는 엄정한 수행과 규구를 통한 생활 속의 평범한 실참(實參)이라는 점이다. 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구현하는 것이고 차는 찻잎의 채취와 제다 그리고, 음차(飲茶)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이를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차(禪茶)의 과정은 최상의 정신적인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하는 선열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선정에 들어 중정의 도로서 다사를 이루면 선차의 맛은 감로나 제호보다 낫다고 하였다(崔惠慶, 2013 : 34-35).

위의 선과 차의 공통적 특징을 <표 2>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선과 차의 공통적인 특성

| 명 칭 | 선 (禪) | 차 (茶) | 공 통 적 특 성 |
|--------|--------------------|---|----------------------------------|
| 선 차 | 정신적 경지의 정화와 승화를 추구 | | 정신을 맑게하여 불성을 체득하는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구현 |
| |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바탕을 둬 | | 삿됨이 없고 청정한 본성 |
| |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 구현 | 찻잎의 채취와 제다 음다(飲茶) 과정에서 일련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수행 실천. | 엄정한 수행과 규구를 통한 생활 속의 평범한 실참(實參) |

2)) 선차(禪茶)의 개념

선차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차라는 용어는 당나라로 구법을 떠난 신라의 무상선사(無相禪師 · 684-762)가 8세기경에 ‘선차지법(禪茶之法)’(최석환, 2012 : 14)을 창안한데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몽정산이 선차(仙茶)의 고향으로서 선차란 신선의 경지, 도의 경지를 이르는 말이었는데, 보혜(普慧)선인이 시작한 몽정차는 무상선사에 의해서 선차(禪家)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최석환, 2010 : 202).

선가(禪家)에서는 차를 마실 때 차 한 잔을 놓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즉, 선이 차이며 차가 선이라는 선차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선차일여 다선일미라는 우리의 전통적 정신문화인 선차문화를 형성하였다.

선차지법을 창안한 무상선사는 신라의 왕자출신으로 쓰촨성(四川)에 들어가 천거산(청성산)바위굴에 은거하면서 차나무 잎을 말려 차를 마시며 선 수행을 했다. 그 당시에 우려 마셨던 차는 천곡산 바위암벽에서 자라는 암차(고정차)인데 그러다 심안이 열려 중국 선종의 맹주가 되고 뒤에 정중종을 세운다. 마조가 그 밑에서 수행했으며 장시성(江西省)으로 들어가 평상심의 도(道)로 다도체문을 세우고 중국 선종을 남종선으로 천하통일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정중파가 형성되고 그 문하에서 마조가 나왔으며, 그 선맥이 구산선문으로 이어진다.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 무주(無住)가 동선(董璿)을 시켜 무상선사에게 차(茶芽)를 올리니 너무나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다. ‘안사의 난’ 이후 차나무가 쓰촨지방의 민간으로 널리 전파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음과 같은 동선과 무주의 일화에서 무상이 차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최석환, 2010 : 206-207).

무주가 동선에게 먼저 말했다

거사, 달마조사의 한 줄기 불법이 이제 검남(劍南)에 퍼져 있소. 김화상이 바로 그렇소. 수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보물을 놓고 맨손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소,” 동선은 그 말을 듣고 합장하며 일어났다. 무주는 동선에게 말하였다.

“여기 차가 반 근 준비되었으니 그대가 김화상에게 간다면 이 차를 드리시오.

그리고 내 말을 전해주소요,”

동선은 무주와 작별하고 김화상에게 줄차를 가지고 떠났다. 동선은 그 때 무상선사가 정중사(淨衆寺)에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찾아갔다. 동선은 머리를 조아리며, 합장 배례를 하고 차를 올리니 무상선사가 매우 기뻐했다. 기쁨의 표시로 시를 한 수 짓는다. 그때 무상선사가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시냇물이 너무나 맑아 그에 비치는 중의 그림자가 야윈듯하고
시냇물의 빛이 너무나 사무쳐서 나그네 마음까지 맑소.
절의 범종소리는 구름 저 멀리까지 메아리치고
범종소리에 어울려 시냇물은 돌에 부딪쳐 소리 나지요.
시냇물이 맑기에 새 명차를 끓여 마시고
시냇물에 떨어지는 꽃잎이 사뿐하게 떠 흐르네.

澄分僧影瘦
光徹客心清
帶梵侵雲響
和鐘擊泛石鳴
澹烹新茗爽

暖泛落花輕(《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대정장》 권 51).

위의 시는 무상과 무주를 차로 잇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무주의 다선일여의 경지는 쓰환성 관리들이 무주를 찾아왔을 때 《역대법보기》에 있는 차에 대한 문답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주화상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날 막부의 관료와 시랑(侍郎) 30여명이 예배하고 좌정한 뒤 말했다.

“화상께선 차를 좋아하십니까, 그러.” 화상은 “그렇소.” 라고 대답하고 곧 차의 계송을 지어 설했다.

| | |
|--------------------|-------|
| 유곡에 영초가 자라서 | 幽谷生靈草 |
| 홀륭하게 입도를 도와주고 있네. | 堪爲入道媒 |
| 나무꾼 그 잎을 따서 담그면 | 樵人採其葉 |
| 아름다운 맛이 잔에 가득 넘친다. | 美味入流盞 |
| 정좌하여 망념(妄念)을 쉬게 하면 | 靜虛澄虛識 |
| 본성의 마음이 거울에 비치니 | 明心照會臺 |
| 육체의 힘 쓸 필요도 없이 | 不勞人氣力 |
| 곧바로 진리의 법문이 열린다. | 直聳法門開 |

위의 계송은 무상과 무주, 동선으로 이어지는 다선삼매경은 바로 초기 선종을 다선일미 정신으로 잇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최석환, 2010 : 208-210).

3) 선차문화(禪茶文化)의 개념

선차문화란 불교의 선과 차가 같다는 선차일여(禪茶一如), 다선일미(茶禪一味)의 바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심오한 전통적인 정신문화로서 선문화와 차문화로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시작은 불교의 수행자인 선승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교 수행자는 물론, 불교를 공부하는 재가수행자들, 차를 마시는 현대인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오늘날은 전통문화인 선차문화가 대중적 웰빙(Well-Being)문화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선차(禪茶) 행다법(行茶法)는 종합적 예술적 문화로서의 성격도 담아내고 있다.

근래에 편찬(編纂)한 대한불교 조계종(曹溪宗)의 《선원청규(禪院淸規)》(전국 선원수좌회, 2010)의 선차일미(禪茶一味)편에서 예로부터 선가에서는 선수행(禪修行)과 다도(茶道)를 일치시켜 선차일미의 선풍을 진작했다. 수선납자에게 있어 차(茶)를 마시면 망상(妄想)을 막기 어렵고 졸음을 막기 어렵고 안좌(安坐)하기 어렵다는 좌선삼난(坐禪三難)을 극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지혜의 종자를 키워주므로 차를 귀하게 여겨왔다. 즉 좌선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일은 수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를 마시는 것과 선의 경지를 일치시켜 자연스레 선다일여로 나타난 것이다. 조계종이 청규를 복원하고 선차문화를 일으키려는 운동은 한국선

차문화의 희망을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최석환, 2012 : 37).

무이산 국제선차문화 연구회회장 석택도(釋澤道, 2012 : 332)는 선차문화에 대해서 선차는 선리(禪理)불법에 의해 연역하는 일종의 다도(茶道)라고 하였다. 차는 참선과 깨달음의 기, 현도표법(顯道表法)의 도구이며 선은 차로써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理), 정청화아(正淸和雅)의 도(道)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표리(表里)이며 인연(因緣), 체용(體用), 능소(能所)라고 볼 수 있다. 차로 선을 알고, 차로 선을 행하고 차로 선을 깨닫고, 차로 참선을 할 수 있다. 또한 선으로 차를 설명하고, 선으로 차를 행하고, 선으로 차를 평하고, 선으로 차를 익힌다 하였다.

2. 선차문화의 성립배경

선차문화의 성립배경을 살펴보면 불교의 선종(禪宗)과 차문화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불교의 선종(禪宗)과 차문화가 만나는 성립배경의 시작에는 달마대사가 잠을 쫓기 위해 던진 눈꺼풀에서 차나무가 생겼다는 전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달마대사에게서 시작 된 선종의 선과 차는 이렇게 만났다는 설이 있다(최석환, 2012 : 14)고 한다. 이후에 선가에서는 차를 수행의의 방편으로 선과 접목시켰다.

선차의 기원에 대하여 선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신라의 무상선사(禪茶之法 창안)와 당나라 조주선사(喫茶去), 송나라 원오 극근선사(茶禪一味의 제창)를 들 수 있는데 무상선사의 선차지법과 선가의 깍다가풍, 다선일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선사(無相禪師)의 선차지법(禪茶之法)

무상의 선차지법에 대해 《신선소각사지(新選昭覺寺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최석환, 2012 : 24).

청두(成都) 대자사(大慈寺)의 당대(唐代) 조사는 신라(新羅) 왕자로서

출가한 무상선사이다. 참선, 품차(品茶)를 하는 기나긴 과정에서 ‘무상선차지법(無相禪茶之法)’을 개창하였으며 선차문화(禪茶文化)에 큰 공헌을 하였다. 대자사에서 참학(參學)과 강경(講經)을 한 송대(宋代)의 불과 극근(1063-1135)선사는 선차문화를 간접적으로 일본에 전했다.

대자사의 타이은 스님이 이야기하는 무상선사의 선차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大恩, 2012).

첫째, 1,200년이 지나면서 당나라 때의 청두 대자사가 직접 전승한 현대의 ‘대자선차(大慈禪茶)’이다.

둘째, 무상선사가 옛 신라국(新羅國)의 숭고한 지위와 영향을 통해 그 신도와 차인이 전파한 ‘무상선차(無相禪茶) 차예(茶藝)’이다.

셋째, 그 전승 제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파한 일본(日本)의 ‘무상다도(無相茶道)’이다. 대자사에서 참학과 경을 배운 송나라 때 불과(佛果)원오 극근선사는 간접적으로 선차문화를 일본에 전했다.

타이은 스님은 무상의 선차가 일본에 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무상선사가 선차지법의 비조로 드러나면서 근래에 와서 선차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최석환, 2012 : 25).

2) 선가(禪家)의 깍다가풍(喫茶家風)

불교의 선가에서 차를 마시는 깍다가풍(喫茶家風)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교와 차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오랜 역사적 전통을 형성해 왔다. 자연스럽게 차사(茶事)와 차예(茶禮)에 전통한 차승(茶僧)은 주로 선승들이었음이 당연하게 되었다. 특히 선불교문화속에 공존하는 차 문화에 대한 내용은 선어록을 통해서 많이 발견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주의 ‘깍다거(喫茶去)’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오(禪悟)의 수단으로 특별히 차를 채용하여 참선공부를 유도한 대표적인 선문답이다.

당대(唐代) 조주는 조주고불(趙州古佛)로 불리며 항상 조주 관음원에서 차를

즐기면서 ‘깍다법(喫茶去)’를 통해서 제자들의 선수행을 점검하였다.

송대 본숭(本嵩)이 저술한 『주화엄경제법계관문송(註華嚴經題法界觀門頌)』에는 다음과 같이 조주선사의 ‘喫茶去’와 관련한 공안이 전해진다고 하였다(金修忍, 2008 : 47-48).

조주선사는 차 마시기를 좋아했다.

어느 때인가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가 계신 곳을 방문했다.

조주선사가 이르기를 “일찍이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스님이 답하였다. “일찍이 왔었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차나 마시게나.”

다음에 어떤 스님이 방문했다.

조주선사가 또 이르기를 “일찍이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스님이 답하였다. “일찍이 온 적이 없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차나 마시게나.”

원주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제서 일찍이 온 적이 있다고 해도 喫茶去’라고 하고, 일찍이 온 적이 없다고 해도 喫茶去’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선사의 높은 뜻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원주를 부름에 원주가 대답하자, 선사가 이르기를 “차나 마시게.”¹⁰⁾

조주선사가 차를 마시게 한 사람들에게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주선사는 세 사람에게 차를 마시게 했다. 자신이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자신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늘 함께 있는 사람에게 ‘깍다거’라는 동일한 방편을 선사하였다. 조주의 ‘깍다거’는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순간에 같은 가르침을 선사한다.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도 똑같은 성품의 소식을 나투어 낸 것이다. ‘깍다법’은 매개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두가 성품이었다.

10) 本嵩 述, 琮湛 註, 『註華嚴經題法界 觀門頌』, 『華嚴七字經題法界觀三十頌』 卷下(『大正藏』 45, 707, c), “好喫趙州茶 何則昔有僧到趙州 州云 曾到此間麼 僧云 曾到 州云喫茶去 後又有僧, 亦云 曾到此間麼 僧云 不曾到 州云 喫茶去 院主問州云 曾到底也教喫茶去 不曾到也喫茶去 尊意何如 州喚院主應喏 州云 喫茶去.”

“차나 한잔 마시게”는 “자네의 성품을 들여다보게” 라는 간절하고 적절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뜻을 잘 알고 있는 조주 이후의 선 수행자들은 당대 조주의 화두 “차나 마시게”를 “선의 맛을 보게”라는 뜻으로 궁구하여 하나의 공안으로 취급하고 법 거량의 표준으로 준용하였다.

깍다거란 말을 처음 쓴 선승은 귀종지상(歸宗智常)선사이며 선종법계상 조주의 사숙이 된다. 귀종지상선사의 ‘깍다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상대사가 풀을 깎는데, 강사스님이 와서 뵈었다. 때마침 뱀이 스처 감에 낮으로 끊었다. 그 스님이 “귀종(지상)이 원래 거친 행동을 하는 사문이라는 것은 익히 들었소.” 하니, 대사가 말했다. “좌주여! 다실에 가서 차나 마셔라”¹¹⁾

귀종지상선사는 마조(709-788)의 제자로 그의 법을 이은 뛰어난 선장이었다. 귀종선사가 강사(講師)승(僧)이 만나려고 온 자리에서 뱀을 벤 것은 불교 교학에 매달려 분별심(分別心)에 빠져있는 교학승(敎學僧)을 경책하고 아울러 그의 망상을 깨뜨리는 가르침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사승은 귀종의 과격한 행동만을 지적하자 ‘다실에 가서 차나 마셔라’ 한 것이다. 귀종의 ‘깍다거’는 조주의 깍다거와 같은 맥락이라 하였다(林仁香, 2011 : 48-49).

‘깍다법’의 참뜻을 천착(穿鑿)하려고 했던 하나의 계승이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에 전해진다.

서로 만나면 질문하여 지나간 내력을 알려고 하는데
친소를 가리지 않고 문득 차만 주었네.
생각을 뒤집어 분주하게 왕래하는 자
바쁘는데 누가 병에 가득히 핀 꽃을 분별할까?¹²⁾

조주선사의 ‘喫茶去’라는 화두가 세상에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많은 승려들이

11) 道原 撰, 『景德傳燈錄』 권7 (大正藏 51. 262,b). “座主歸茶堂內喫茶去”

12) 惟白集, 『建中靖國續燈錄』 卷 28(『卍續藏經』 136, 379,b), “相逢相問知來歷, 不揀親疎便, 與茶翻憶懂懂往來者, 忙忙誰辨滿瓊華.”

선원에서 차를 마시는 일이 성행하여 다반사(茶飯事)라는 말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처럼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조주라는 뛰어난 선사에 의해 깨달음의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선원의 깍다문화(喫茶文化)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전통은 현재까지도 전해져 선종의 승려들의 깍다가풍을 형성하는데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金修忍, 2008 : 48-49).

3)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미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가의 차문화는 조주선사의 ‘喫茶去’ 속에서 한 차원 승화된 선차문화로 발전했으며, 이후 차와 선이 완전히 융합된 심오한 경계를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정련된 선어(禪語)속에 담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차성(茶性)이 진정으로 불성(佛性)과 계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선일미사상이 출현한 것이다.

다선일미에 대해서 《중국차업대사전》(최석환, 2011 : 53)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선일미(茶禪一味)란 선미(禪味)와 차미(茶味)가 동일한 종류의 흥취임을 가리키는 말로서 본래 송대(宋代)의 원오극근선사가 선수행을 하던 일본인제자에게 써준 것이다. 이것은 네 글자로 이루어진 진결(眞訣)로 일본 내량(奈良)의 대덕사(大德寺)에 보관되었으며, 나중에 불교계와 민간에 널리 유행하는 말이 되었다.

다선일미는 원오극근(圓悟克勤 · 1063-1135)선사가 호남성 험산 영천선원에서 『벽암록』을 집필할 당시, 차 맛에 따라 불법의 이해와 지해도 그 만큼 향상한다는 뜻으로 다선일미라는 말로 집약한데서 출발하였다(林仁香, 2011 : 54).

다선일미를 형성하게 된 차와 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와 선의 관계는 『선차록(禪茶錄)』에서 말하듯이 차의(茶意)는 선의(禪意)요, 선미(禪味)를 알지 못하면 차미(茶味)도 없게 되었다 즉, 다의나 다미를 깨닫는 과정과 선의나 선미를 깨닫는 과정이 동일시될 수 있다. 따라서 차를 마실 때 오로지 일심(一心)으로 깊은 맛에 몰입하는 과정은, 마치 선에 있어서 선정을 통

해 그 묘미를 체오(體悟)하는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에 차와 선은 삼매의 경지에 이르러 다선일미의 사상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다선일미의 사상은 그 전통이 천년을 이어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중국에서 발달한 다선일미사상은 송 대 이후 널리 유전되어 전파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다선일미가 조선후기에 초의선사와 추사 김정희(1786-1856)에 의해 ‘명선정신(茗禪精神)’으로 거듭 났으며, 일본에서는 촌전주광(村田珠光·1422 -1502)에 의하여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정신’으로 발전되었으며 후대에 이르도록 다선일미사상은 불교 차문화의 일대 중심을 이루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선차문화발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金修忍, 2008 : 52-53).

3.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변천

한국의 선차문화는 선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차는 우리나라의 자생설, 인도나 중국의 유입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불교를 바탕으로 차문화가 발달하였다.

1)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시대적 변천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시대적 변천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선종도입 이전인 가야와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야의 선차문화

가야의 선차문화는 선차문화가 성립되지 않는 선종도입 이전이라 선차문화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차 문화에 관한 기록만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야의 차문화에 관한 내용은 일제강점기 불교학자인 이능화(1818 : 751)의 1918년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김해의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

에서 전하기를 수로왕비 허 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 씨앗이라고 한다”¹³⁾는 기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허황옥이 인도에서 시집오면서 차 씨를 가져와 퍼뜨리게 되면서 한반도에 차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貞畢, 2010 : 5).

(2) 삼국의 선차문화

삼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구려시대

고구려시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부터 중국 북조의 전진(前秦)에서 들어온 순도(順道)와 아도(阿道)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는 왕명으로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불교를 전파하는데 열성을 보였다. 불교와 함께 차를 비롯한 선진문물도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특히 고구려 후반기에 연개소문이 불교세력을 누르기 위해 도교를 장려하면서, 차 문화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크게 발달하였다고 한다(金貞畢, 2010 : 7).

차문화가 실재(實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이 여럿 출토되었는데 안악 3호분의 전실 서 측실 남벽에 그린 주인공의 부인상 앞에 시녀는 손에 뚜껍이 있는 잔을 탁(托, 받침)에 받쳐 들고 있다. 그것이 꼭 찻잔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으나 뚜껍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음료보다 차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용총 현실 북벽에 있는 <주인접객도>는 다담상(茶談床)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류건집, 2009 : 59).

② 백제시대

백제시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침류왕 원년(384) 인도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중국 남도 동진(東晉)을 거쳐 영광 불갑사(佛甲寺)에 정착하면서부터이다. 최근에는,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하면서 나주시 화도면 덕룡산에 불회사(佛

13) “金海白月山有竹露茶 世專首露王妃許氏 自印度持來之茶種云”,

會寺)를 건립하고 그 일대에 녹차를 심었다는 기록을 예로 들기도 한다.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 일대 차의 역사는 1600여년을 거슬러 오르는 가장 오래된 차재배지가 된다. 그리고 질이 좋아 왕에게 바치기도 하여 다소(茶所)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전한다고 주장하나 아직 더 검증해 볼 일이다(류건집, 2009 : 66).

백제는 불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여 수많은 호국사찰을 짓게 된다. 무왕 때에 완성된 왕흥사(王興寺)와 미근사(彌勤寺)는 호국 사찰로 유명하다. 위도상 차산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던 백제는 당연히 차를 마셨으리라 짐작되지만, 관련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최근 여러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모습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제 잔(銅製 盞)과 청동제 완(靑銅製 碗)은 찻그릇으로 쓰인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최근 미륵사지 발굴사업을 하면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 승방지(僧房址)에서 다완이 출토되어 백제가 차문화의 발전과 불교승려가 관련이 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金貞畢, 2010 : 8).

③ 신라시대

신라시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세기경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묵호자(墨胡子)가 전해준 불교를 받아들여 한창 성행하였으나 공인을 받은 것은 법흥왕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로 말미암아서였다고 하고 있다. 호국의 도량으로서 황룡사(黃龍寺)같은 큰 사찰이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백좌강회(百座講會)나 팔관회(八關會)등 호국적인 행사가 베풀어졌다. 당시 유명한 승려들 중에는 중국유학에서 돌아온 원광(圓光·554-640)이나 자장(慈藏·610-654)등이 있었다. 이들이 중국의 발달된 차문화를 그대로 옮겨 왔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신라는 불교전파가 늦었으나 가야를 병합하고 난 5-6세기경에 차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다. 신라시대 이미 양산 통도사 근처에 조일(朝日)스님이 관장하던 다소촌(茶所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선덕여왕 이전부터 차를 마셔온 것으로 보인다. 가람의 규모가 크고 많은 승려들이 상주하다가 보니 사원에서 쓰는 차를 공급하는 다촌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통도사는 사방 경계에 장생 표를 세워 사찰경계 지를 표시했는데 북쪽의 동을 산에

는 통도사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평교다 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차를 만들던 차 부뚜막(茶竈)과 다천(茶泉)이 오래도록 전해졌다. 이시기에 시작된 화랑들의 차문화는 당시 신라의 교유신앙과 불교, 도교, 유교 등이 복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불교와 관련된 문화라 할 수 있다 하였다(김정필, 2010 : 9).

화랑도는 민간청년조직으로서 원광법사가 내려준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전국의 명산들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차를 마시고 서로 권면하며 덕목을 쌓았다. 묘련사(妙蓮寺)의 석지조(石池竈)나 한송정의 다천(茶泉) 석구(石臼)등의 차 유적이 남아있음을 미루어 볼때 차도 간혹 마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마셨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류건집, 2009 : 74).

(3)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는 불교가 융성하여 전에 없던 교세를 보였는데 정치이념의 사상 체계로 널리 확산되어 사회의 지배이념이 되었다. 그리고 원효의 민중불교는 왕실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토신앙을 전파해서 내세신앙, 이른바 미륵 신앙이 크게 성행했다. 이처럼 불교가 왕실은 물론 일반 민중까지 크게 전파된 것은 차문화도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구려, 백제, 가야의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발전시켰다고 한다(류건집, 2009 : 88).

이규보(1168-1235)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 “사포(蛇包)성인이 원효방의 원효스님(579-631)에게 차를 공양한 일화”는 차와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충담선사가 삼월 삼진날과 종구 일에 삼화령(三花嶺)부처님께 차를 공양한 역사적 사실과 경덕왕(742-765)의 요청으로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한 차를 왕에게 올린 일이 있다(최석환, 2012 : 16-17)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승려들과 왕실에서는 차를 마시며 승려들이 부처님께 차를 공양을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음다풍속을 살펴보면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다고는 하나 일반화는 시기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며 선종의 유입과 함께 사원의 음다풍속이 증가되어 사대부와 귀족층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박동준, 2006

: 5). 또한 해인사 등의 사찰이 창건되었고 왕족귀족과 스님들이 당나라와 일본에 왕래하게 되었다. 이전부터의 차생활이 이들로 인해 한층 다양화되고 대중들에게까지 깊이 퍼졌다. 유학 간 혜철(惠哲), 도의(道義), 혜소(慧昭), 체징(體澄), 무염(無染)등이 돌아와 선종체계가 크게 번창하고 차도 사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무상(無相)스님과 중국 지장신앙의 근간이 된 지장김교각(金喬覺)스님 두 분은 모두 왕실의 고귀한 신분으로 입당하여 불교사는 물론 다사(茶事)에도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활약한 기록을 본다면 우리 차의 품종이나 다법도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유건집, 2009 :93-94).

(4)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차문화의 꽃을 피운 고려시대는 국민들도 차를 즐겨 마시는 음다왕국(飲茶王國)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태조 왕건(太祖 王建)은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남기며 팔관회와 연등회를 증시하라 했는데, 왕실에서 주관하는 의례에는 으레 차를 공양했다. 이러한 풍습이 민간에도 흘러가 제사에 차를 올리게 되었다. 차례(茶禮)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하였다(韓昇希, 2015 : 7-9). 사원근처에는 다촌(茶村)이라는 곳이 번성하였고, 이곳은 차농사를 전문으로 하여 사원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곳을 일컫는다. 아마 이곳 사원에서 차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 본다고 하고 있다(金貞畢, 2010 : 30).

차는 불가의 중요한 공양물(供養物)의 하나이며 예불시간에 ‘다게(茶偈)’라고 하여 부처께 헌다(獻茶)하는 예가 따로 나온다.

의천대각국사는 송나라에 유행하던 차종을 고려로 들여와 고려에 차문화를 일으켰으며, 대각국사를 통하여 송나라와 고려의 차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송은 용봉단차(龍鳳團茶)를 수입했고 고려는 뇌원차(腦原茶)를 송나라에 수출한다고 하였다(최석환, 2012 : 19).

고려시대 후기에는 임금이나 관원(官員)및 귀족이 쉬었다 가면서 차를 마셨던 여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다원(茶院)이 있었다. 18대 의종(毅宗 · 1146-1170)이 현화사(玄化寺)에 이르러 말을 달려 달령(獺嶺)의 다원(茶原)까지 갔다는 고려사

기록¹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다원은 때로 승려들의 거처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승려들은 불심이 깊은 사람이 적선(積善)으로 마련한 원관(院館)에서 거거하기도 했다. 이 원관에는 다점(茶店)과 다정(茶亭)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승려들이 언제 어디서고 차를 마실 수 있었던 생활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권혁란, 2011 :35-36).

(5)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고려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사상적 이행을 단행하였다. 불교를 국시로 삼았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불교를 억누르는 대신 유교를 정치 지도이념으로 내세웠다. 이런 정치적 변화는 선차문화계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선에 들면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불교사원은 산속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조선시대 이후의 불교사원은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는 자세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차도 자가생산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불교가 배척받으면서 다촌에서 차를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사원은 자급자족하면서 사원마다 특유의 차를 만드는 법을 개발하여 전승하게 되었다. 불가에서 차는 여전히 중요한 공양물의 하나로 꼽혔고, 승려의 수행활동에도 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들면서 사가에서 차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고 오히려 승려가 차를 만들어 사대부에게 선물로 보내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유학을 신봉하면서도 불교나 도교의 사상에도 폭넓게 수용하는 학풍이었기에 승려와 사대부의 교류(交遊)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金貞畢, 2010 : 40-42).

이 시기에 차 생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조 때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여 승려의 수를 제한했으며, 사원의 정비작업을 통해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세종 때 전국의 사찰수를 36사로 정하고 승려수를 3700명으로 줄였다. 거기에 칠종의 유과를 선교양종으로 통합시키니 교세는 줄고 차의 생산이나 보급도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었다. 성종은 도첩제마저 폐하고 일체 출가를 불허했고, 중

14) 『高麗史節要』卷之一一, 毅宗丁亥二十年 七月 幸歸法寺 遂御玄化寺 馳馬至巖嶺茶院---

좋은 승과(僧科)도 폐지했다. 그리고 부녀자들의 사원 출입을 막고 서울에 승려들의 거주를 불허하는 등 전반적인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문화재급 사원이 황폐하게 되고 선가의 차문화는 된서리를 맞게 되어 일부 승려들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승려들이 탁발을 다니고 신분이 격하되어 백성들도 숭배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 같은 현상은 요업(窯業)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아름답던 청자문화가 쇠퇴되고 말았다고 했다(류건집, 2009 :310).

이 시대 선차문화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18세기의 중흥기(中興期)의 주역들은 아암 혜장(兒庵 惠藏·1772-1811) 초의선사(草衣禪師)를 비롯한 승려들과 그들의 차를 즐겨 마셨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등이 있다. 한국의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초의선사는 다산의 아들인 정학연(鄭學淵)의 소개로 추사를 만나고 두 해를 한양에 머물면서 많은 선비들과 교분을 맺었다. 이 시대에 조선의 차 문화는 소수의 문화였다. 대홍사, 쌍계사, 화엄사, 칠불사, 통도사, 선운사 등 차가 생산되었던 소수의 사원에서 차를 제다해 수행의 도구와 예불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18세기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잠깐 중흥의 시기를 맞았던 조선시대의 선차문화는 18세기를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할 수 있다(韓昇希, 2015 : 11-12).

초의이후 모처럼 중흥을 맞이했던 우리 차 문화는 초의가 세상을 뜨자 다시 잊혀진 문화가 되었다고 하였다(정민, 2011 : 651).

6) 근 현대

근 현대의 선차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나라 차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불교의 승려 때문이었다. 박한영과 한용운은 당시 한국불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은 차와 관련된 문헌을 섭렵하였고 다과회를 열어 대중에게 차를 마시게 하였다(金貞畢, 2010 : 83)

초의의 의발을 접한 응송 박영희와 한국의 다도를 정리한 효당 최범술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대홍사의 전통 차문화를 계승한 이절의 승려 응송 박영희는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라는 저서를 남겼다. 효당 최범술은 1977년 1월 다술

사(多率寺)에서 한국다도회를 결성했고, 1978년 5월에 서울에서 다선회(茶禪會)를 창립하고 차를 가르쳤다. 효당의 문하에서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이들은 한국 차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효당은 선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였다(김상현, 타니아키라, 2013 :35). 그들과 제자들이 시작한 일지암 복원사업은 한국차 구심점을 세우게 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세계의 다양한 선차문화의 교류 속에서 한국의 선차문화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선불교 법맥과 선차의 계보

우리나라 선차의 계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으로 승려들이 유학을 갔다. 이미 보리달마부터 시작된 선불교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파의 불교들이 있었지만 선차는 선불교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자장율사, 김지장 교각스님도 있지만 선차의 비조는 무상선사를 기점으로 한다. 그 뒤로 진감국사, 의천, 지눌로 이어지기도 하고 석옥청공에게 법맥을 인가받은 태고보우로부터 본격적인 선차문화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태고보우-설잠 김시습-휴정-편양 언기-풍담-월담-환성-호암-연담유일-완호운 우-초의, 아암, 정약용, 김정희, 홍현주-경봉, 응송, 효당, 금당-현대의 차인들, 이들이 모두 이러한 선차문화가 포함된 차문화를 이어가고 있다.¹⁵⁾

위의 차인(茶人)중에서 지장, 무상, 진감, 의천, 지눌, 석옥 청공, 태고 보우, 설잠 김시습, 휴정, 초의, 혜장,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경봉, 효당, 금당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장스님(696-794)은 신라왕실의 왕자로 아름을 교각(喬覺)이라 했고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큰 도를 이루었다. 그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 중국 현지에 남은 것이 많다. 다시는 『청양현지(靑陽縣志)』와 『예문지(藝文志)』에는 스님을 모시고 있던 도명(道明)이라는 동자가 산을 내려갈 때 읊은 시가 실려 있다(류건집, 2009 : 101-102). 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갈 때 차종차(金

15)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s/246772>

地茶)와 황립도(黃粒稻-볍씨), 오차송(五叉松)그리고 선청(善聽)이란 개를 데리고 갔다. 794년 7월 30일 좌탈 열반에 드시면서 “3년 후 내 시신이 썩지 않았다면 내 육신을 보전하도록 하라”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후에 썩지 않은 육신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도 육신보전으로 구화산의 지장성자의 표상이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¹⁶⁾

무상선사(無相禪師 · 684-762)는 신라 성덕왕의 셋째 왕자로 중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스님이다. 정중무상은 덕순사(德純寺) 처적(處寂)에게 2년간 법을 받고 무상이라 법호를 했다. 나중에 대자사(大慈寺)에 주석하면서 선다지법(禪茶之法)을 행했다. 그의 차에 관한 기록은 무주가 차를 전한 『무상여무주전(無相與無住傳)』에 전한다, 그리고 『전당시(全唐詩)』에 정중사(淨衆寺)에 대한 다시가 전하고, 무상과 관계가 있는 『서촉정중사송계(西蜀淨衆寺松溪)』에는 “맑은 물에 새차 끓이니 산뜻하기도 하여라(澹烹新茗爽)”는 시구가 있다(류건집, 2009 : 99-100). 선차지법에 대해 대자사 방장 다이은 스님은 2004년 ‘무상선사 학술 연토회’에서 선차지법의 비조가 무상선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혜능에 의해 조사선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무상은 선과 차의 결합으로서 선차를 열었다고 하였다.¹⁷⁾

진감국사(眞鑑國師)혜소(慧昭 · 774-850)는 속성이 최(崔)이고 전주 금마(金馬) 사람이다. 중국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도의(道義)와 함께 구도했으며, 귀국하여 옥천사를 세웠다 뒤에 현강왕이 진감국사라는 호를 내리고 최치원이 대공탑비(大空靈塔)비문을 썼다. 경상남도 쌍계사에 비문이 있으며 이 비에 한명(漢茗)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류건집, 2009 : 115).

대각 의천(大覺 義天 · 1055-1101)은 문종(文宗)9년에 궁중에서 왕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후(煦), 자는 의천, 시호는 대각이다. 원효의 화엄사상에 바탕을 두었고 개경의 흥완사(興王寺)주지로 많은 경서를 간행했다. 그는 교장(敎藏)을 간행하여 큰 업적을 쌓았고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송에 가서 불인료원(佛印了元)과 정원혜인(淨源慧因)에게서 배우고 혜인교원(慧因敎院)에 머물다가 귀국하였다. 그 인연으로 고려의 승려들이 많이 머물게 되어 혜인교원은 교려사로

16)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17)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이름을 바꾸었다. 그가 송의 철종에게 올린 편지 글에 차를 하사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원 스님과도 차와 편지가 오갔다(류건집, 2009 :180-181)고 한다. 고려 선종 9년에 선암사를 중창하여 남방중심의 천태종 사찰로 부흥시키고, 뇌원차로 고려 차문화를 부흥시켰다.¹⁸⁾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 1158-1210)는 원효와 함께 가장 우뚝한 봉우리일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사상가이다. 선과 교가 대립 갈등하는 고려불교를 바로잡아 선교가 들이 아닌 화통불교의 전통을 확립한다. 보조선의 전통을 목우가풍(牧牛家風)이라 부르며 이 목우가풍은 조선조까지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에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송광사 다풍은 보조, 원감 등 16국사 이래 조선시대 다송자로 알려진 보정선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승이 배출되어 다선도량으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¹⁹⁾ 저서는 『권수정혜결사문』, 『진심직설(直心直說)』, 『원돈성불론』,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화엄론절요』, 『염불요원』, 『상당록(上堂錄)』이 있다.

석옥 청공(石屋 淸珙 · 1272-1352)은 중국 남송말기와 원(元)나라 때 선승으로. 속성은 온(溫)씨. 23세때 구족계를 받고 고봉원묘(高峰原妙)에게 참구하고 급암종신(及庵宗信)에게 도를 깨쳤다고 한다. 고려 말에 태고보우가 그의 법을 받아 왔다. 시호는 불자혜조(佛慈慧照)선사, 저서는 『석옥청공선사어록』 2권이 있다.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는 700년 전 서곡청공을 인연으로 고려 말의 고승 태고보우와 백운경한(白雲景閑)선사가 구법한 땅이다.²⁰⁾

태고보우(太古普愚 · 1301-1382)는 충렬왕 27년 문하시중판사병부사(門下侍中 判史兵部事) 홍연(洪延)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법명은 보우, 법호는 태고, 속명은 보허(普虛)였다. 13세에 화엄사에 출가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정진했다. 46세에 중국에 가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았다. 임제선종의 간화선(看話禪)을 시범 했다. 후일에 왕사(王師)가 되어 선문구산(禪門九山)을 통합하여 일종(一宗)을 만들었다고 하였다(류건집, 2009 : 194-195).

김시습(金時習 · 1435-1493)은 학자이고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호는 매월당(梅

18)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19)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20)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月堂)이다. 수양대군이 세종의 장손인 단종을 내몰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 하여 책을 태워버리고 승려가 되어 이름을 설잠(雪岑)이라 했다. 47세에 환속하였으나 2년 후 다시 방랑하다가 무량사에서 생애를 마쳤다. 한국최초의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었고 『매월당집』이 있으며 80여 수나 되는 많은 다시가 전해진다. 그는 손수 차를 끓여 부처님께 올리고 예배했으며 때로는 들술에 말차를 끓여 마셨다(정영선, 2007 : 236). 김시습은 초암차(草庵茶)를 행하였다. 초암이란 말은 작고 소박한 공간을 말한다. 매월당은 작은 공간을 차실공간으로 활용 하였고 그 공간을 초암이라고 했다. 매월당의 초암차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비차를 이끌어 냈다고 하고 있다²¹⁾

청허휴정(淸虛休靜 · 1520-1604)는 서산대사라 부르며 속성은 최씨, 이름은 여신(汝信)법호는 천호, 법명은 휴정이고, 별호로 백화도인(白華道人), 묘향산인(妙香山人)등 많았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안주목사의 도움으로 성균관에서 공부했으나, 낙방하고 지리산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부용영관의 제자가 되어 법을 이었다. 33세에 승과에 급제하고 후에 양종판사(兩宗判事)를 지녀 봉은사의 주지가 되었다. 임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우고 서울을 탈환할 때 공을 세웠으며 묘향산에서 입적했다(류건집, 2009 : 322-323). 휴정의 저서는 『선가귀감(禪家龜鑑)』 『설선의(說禪儀)』, 『청허당집(淸虛堂集)』 등이 있다

초의의순(草衣意恂 · 1786-1866)은 속성은 장씨, 자는 중부(中孚). 법호는 초의이다. 15세 때 남평 운흥사로 출가하였으며 24세 때 다산을 만나 경서와 시문을 공부하고 이때부터 차를 가까이 했으리라 짐작된다. 『다신전』과 『동다송』을 저술했으며, 차에 관한 초의의 사상은 선도에 차를 접맥시켜 다선일미의 경지를 추구했다(류건집, 2009 : 58-59). 그는 차를 직접 만들어 선사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사례의 글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생긴 다시들이 많다. 초의에게 자하신위(1769-1845)와 금령 박영보(1808-1872)는 ‘전다박사’의 칭호를 부쳐주었다. 전다박사란 차품(茶品)을 겨루는 박사를 말한다. 초의 차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자 사대부들은 초의에게 차를 선물 받는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²²⁾

21)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22)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아암 혜장(兒庵惠藏·1772-1811)은 법호는 다산이 지어준 아암이고 속성은 김씨로 대흥사로 출가했다. 후일 연담유일에게 배우고 대흥사의 유명한 강사로 이름을 얻었다. 1805년 유배 온 다산을 만났고 차를 좋아하는 다산에게 차를 공급하고, 역경을 배웠다. 이들의 만남은 초의와 추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 조선 후기 차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류건집, 2009 : 55-56).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실학자이자 차인으로 자는 미용(美鏞), 송보(頌甫) 호는 다산(茶山)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차를 마셨고 16세 화순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성주암에서 차를 마셨고 19세 때는 부친이 예천군수로 부임하여 반학정(伴鶴亭)에 올라 차를 즐기기도 했다. 저서로는 여유당전서에 실린 『목민심서(木心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아언각비(雅言覺非)』, 『아방강역고(我邦疆域攷)』, 및 제반경서에 관한 저술 수십 권과 그 외 수백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 안에 차에 관한 글도 70여 군데나 된다. 제다에도 조예가 깊어 차를 보낸 이에게 차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류건집, 2009 : 278-280).

김정희(金正喜·1786-1856)는 자가 원춘(元春), 호는 완당(完堂), 추사(秋史), 예당(禮堂), 담재(覃齋), 승설도인(勝雪道人) 등이 있다. 실학을 주장하고 경학, 문학, 사학, 금석학(金石學)에 심취해서 추사체(秋史體)를 창안했다. 불학에 대해 남달리 관심을 갖고 선승들과 교류를 했으며 초의와는 동갑으로 차로 인해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다경(茶經)』을 위시하여 『문헌통고(文獻通考)』, 『태평광기(太平廣記)』, 『사문류취(事文類聚)』 등의 서적과 차인들의 문집을 읽어 도곡과 당희의 옛일이며 소식(蘇軾) 육구몽(陸龜蒙) 구양수(歐陽修) 문징명(文徵明) 등의 다시를 섭렵했다. 차를 좋아하여 자신의 글씨와 차를 바꾸기도 하였다. 초의에게 보낸 열편의 차에 관한 편지가 있다(류건집, 2009 :306-307). 초의에게 써 보낸 명선(茗禪)이란 글자는 너무나 유명하다.

경봉정석(鏡峰靖錫·1892-1982)는 법호는 경봉, 속명은 김용국(김용국). 어려서 한문을 공부하고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6세에 통도사로 출가를 했다.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전국을 두루 돌아다녔다. 후에 통도사에서 참선을 계속하다가 통도사 주지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류건집, 2009 : 86). 경봉은 1927년 통도사 극

락암에서 실시한 화엄산림법회(華嚴山林法會)에서 법주(法主)겸 설주(說主)를 맡았다. 한암(漢巖), 용성(龍城), 동산(東山), 효봉(曉峰), 전강(田剛)선사 등 당대의 선지식과 교류하면서 선풍진작과 교화에 힘썼고 1953년 통도사 극락호국선원(極樂護國禪院)조실로 추대되었다. 저서로서는 법어집인 『법해(法海)』, 『속법회(續法會)』, 시문집인 『원광한화(圓光閑話)』, 유묵집인 『선문묵일점(禪門墨一點)』, 서간집인 『화중연화소식(火中蓮花消息)』, 그리고 선사가 주고받은 서간문을 모은 『삼소굴소식(三笑屈日誌)』 등이 있다(최석환, 2012 : 46). 선사는 늘 “시자야 엄다래(拈茶來, 차 달여 오너라)” 라고 하였으며 그를 찾아오는 이에게 “자네 차 몇 잔 마셨나” 로 경책을 늦추지 않았다. 선사는 승속을 가릴 것 없이 극락암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다일미를 실천해온 선승이었다.²³⁾

효당 최범술(曉堂 崔凡述·1904-1979)은 본명은 영환이며 13세인 1916년 1월 12일 다술사로 출가하여 불교에 입문한다. 저서로는 다도개론서인 『한국의 다도(韓國의 茶道)』가 있다(이진수, 2012 : 88). 효당은 1977년 1월 15일 국내 최초로 차인들의 모임 한국 다도회를 발족시켜 우리차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어떤 규범이나 격식, 계층에 얽매임 없이 누구나 차를 즐길 수 있다는 차도무문(茶道無門)과 다기를 다루는 행위와 그마음 자세를 일컫는 차도용심(茶道用心)을 바탕으로 선차수행을 확립하였다.²⁴⁾

금당 최규용(錦堂 崔圭用·1903-2002)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으며, 1920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일본에서의 첫날 여관에서 차를 처음 마셨다. 1929년 부산의 명물인 영도다리를 설계했으며 일본인 이에이리 가즈오의 저서 『朝鮮의 茶와 禪』이란 책을 읽고 차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저서로는 『금당다화(錦堂茶話)』, 『현대인과 차』, 『중국문화기행』, 번역서는 『허차서의 다소(許次紆의 茶疏)』가 있다(이진수, 2012 : 104-108).

금당은 1978년 금당차회(錦堂茶會)를 조직하여 차문화 교육을 시작으로 1983년 한국차인연합회(韓國茶人聯合會)고문을 맡으면서 전국적인 전통문화운동에 관여했다. 1987년 중국 항주 절강대학과 한중 문화교류에 앞장섰으며 1988년 한

23)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s/246772>.

24)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s/246772>.

국육우다경연구회를 창립하여 육우가 지은 다경을 연구하며 동양차문화의 근본을 정리하기도 했다. 금당의 차정신은 깍다래 화두를 들 수 있는데 1988년 혜인사 일타스님, 석정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 조주선사의 화두 깍다거와 대거되는 깍다래란 신조어를 만들어 평생을 차 마시기 운동의 지침으로 삼았다.²⁵⁾

위의 차인들의 행적들을 < 표 3 > 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차인들의 행적과 저서 및 다시

| 명 칭 | 국적 및 생몰년도 | 행 적 | 저서 및 다시(茶詩) | 비고 |
|------------|-------------------------|---|------------------------------|----------------------------|
| 지장 김교각 | 신라 696-794 | 중국에 갈 때 차종차(金地茶), 황립도(법씨), 오차송(五叉松)을 가져가다. | 차시 한 편 | 선청(善聽)삼 삼개도 가다. |
| 무상선사 | 신라 684-762 | 중국 대자사에 주석하면서 선차지법을 행하다. | 전당시의 다시 | 무상여주무전 |
| 진감국사 | 신라 774-850 | 중국소림사에서구족계받다 육천사 창건하다 .중국에서 법패를 배워 우리나라에 법패를 전하다. | | 최치원이 쓴 비문이 쌍계사 에 있다. |
| 대각 의천 | 고려 1055-1101 | 천태종 개창과 뇌원차로 고려의 차문화를 부흥시켰다. | 다시 3편 | 선암사 중창하여 천태종사찰 부흥하다 |
| 보조국사 지눌 | 고려 1158-1210 |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사상가이다. | 진심직설(直心直說)의 다수의 저서가 있다. | 화통불교의 전통을 확립하다 송광사 다택 |
| 석옥청공 | 중국원 (元) 1272-1352 | 태고보우에게 법을 전하다 | 저서는 『석옥청공선사어록』 2 다시 30여 수 | 육로산거영 (六老山居詠) 에 다시수록 |

25) 구조론 연구소 <http://gujoron.com/xe/246772>.

| | | | | |
|------------|-------------------|--|---|--------------------------------|
| 태고보우 | 고려 1301-1382 | 왕사가 되어 선문구산을 통합하여 일종을 만들다 | 다시 3편 | 간화선 시법 |
| 매월당 김시습 | 조선 1435-1493 | 생육신의 한사람 초암차 행하다 | 금오신화 외 다수의 저서 다시 80 여수. | 일본다도에 영향 끼치다. |
| 청허 휴정 | 조선 1520-1604 |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아 서 큰공을 세우다. | 선가귀감 외 2권 의저서 다수의 다시 | 묘향산에서 입적하다. |
| 초의 | 조선 1786-1866 | 선도에 차를 접맥시켜 다 선일미의 경지를 추구했 다. 차를 직접 만들다. | 다신전 동다송 다시 4수 | 차선물로 많은 이들에게 사례 의 글을 받다. |
| 아암 혜장 | 조선 1772-1811 | 다산에게 차를 공급하다 다산에게 역경배우다. | 다시 4 수 | 대홍사 유명한 강사 |
| 다산 정약용 | 조선 1762-1836 | 실학자이며 차인이다. 차를 보낸 이에게 차 만드 는 방법을 설명하다. | 목심심서 외 수백권의 저서와 저서 속에 차에 관한 글이 70여 군데 있다. | 초의와 추사의 절친한 친우이 다. |
| 추사 김정희 | 조선 1786-1856 | 중국에 다녀오면서 본격적 인 차생활 시작하다. 추사 체 창안하다. 차를 자신의 글씨와 바꾸기도 하였다 | 완당집, 금석과 안록 초희에게 보낸 차 편지 10 여편 | 초의에게 명선(茗禪)글 보내다 |
| 경봉선사 | 근·현대 1892-1982 | 엽다래(엽茶來)와 오는 이 에게 자네 차 몇잔 마셨나 로 경책을 늦추지 않았다. | 범어집 2권 외 시문집, 유묵집 서간집, 다시. | 시와 글씨에 능하다 엽다래 가풍 |
| 효당 최범술 | 근·현대 1904-1979 | 우리차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다. 차도무문(茶道無 門) 차도용심(茶道用心)을 바탕으로 선차수행 확립 | 한국의 다도 | 최초 국내 한국다도회 발 족하다 |
| 금당 최규용 | 근·현대 1903-2002 | 1978년 금당차회 조직하다 1988년 한국육우다경연구회 창립, 깍다래 라는 용어를 만들어 차마시기 운동의 지침을삼다. | 금당다화 외 다수 번역서 한권 | 깍다래 가풍 100세까지 살다. |

4. 새로운 문화로 평가되는 선차문화

1) 각광받고 있는 선차문화의 대중화 성립배경

오늘날은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 건강이 최대의 화두로서 부각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웰빙문화와 선(Seon)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지구촌 전체에서 웰빙 문화와 선(禪)문화가 대중적 문화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차(茶)의 붐이 확산되고 있는 중심축에서 사원에서 출발한 선차문화가 정신문화의 꽃으로서 큰 꽃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동양적 한국적 전통문화인 선차문화의 정적인 효용(效用)을 통하여 현대 정보화 사회가 주고 있는 물질만능과 기계문명의 공해로 찌든 현대인들의 심리에 스며드는 불안감, 스트레스 등 갖가지의 악 영양으로부터 벗어나, 평온과 휴식, 그리고 일상의 감성적 행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구나 오늘날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과 반성을 동시에 일으켰으며,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하였다. 최근에 일기 시작한 친환경적이며 자연적인 삶의 방식 즉 웰빙이나 선(禪)스타일은 특히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차(茶)는 웰빙 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 음료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류의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에 차가 선정된 예가 그렇듯이 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실생활에서의 이용도 다양해졌다. 우리나라에서 해방이후 선진국의 대표적인 음료라는 이미지가 주는 매력 때문에 대중음료의 선두자리에 있던 커피의 위상에 과감히 도전한 것도 최근의 차이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의 차 문화를 회복하고 범고창신(法古創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동춘, 2006 : 1).

이제는 변화가 요청되는 시대가 왔다. 개인의 자각을 위한 수행이 아니고 실

제적이고 실천적인 수행이 요청되며 더불어 갈 수 있는 능동적인 패러다임에 요구된다고 하겠다.(이진수, 2012 : 211)

사원에서 출발한 우리의 선조가 남긴 훌륭한 선차문화가 오늘날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종교를 초월하여 범국민적으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마음의 자정능력을 키우고 평화를 경험하며 세상과의 상호소통도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차문화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

2) 세계 선차문화 교류대회(世界 禪茶文化 交流大會)

세계선차문화교류가 그 나라의 차 문화의 중심에 화두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차계의 핵심은 선차라 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선차정신을 나타내 보이는 치행법도 활발해져 선차의 행법이 선차문화의 꽃임을 알게 한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선차의 정신을 표현한 세계 선차문화의 교류대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석환, 2012 : 30-31).

1차대회는 2005년 10월 21-23일에 중국 백림선사(柏林禪)에서 ‘천하조주(天下 趙州)’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개최가 되자 중국(中國) 언론(言論)들의 시선(視線)이 집중(集中)되었다. 이유인즉 선차대회(禪 茶大會)는 문화의 전승의 전승이기 때문이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중화권(中華圈)지지가 쏟아졌다.

차학(茶學)의 권위자인 위웨(余悅)교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세계 선차문화교류대회는 진정으로 국제적 성격을 지닌 대회로서 중국, 한국, 일본의 차문화 계(茶文化 界)와 선불교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각국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성격을 지닌 행사사이기에, 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어려움이나 기획자와 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수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사가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섯 차례나 열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곳곳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한·중 양국의 2 천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 동아시아 문화권이 지닌 상호소통의 문화적 요인,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의 차문화

교류와 왕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2차대회는 2007년 4월 20 -23일 ‘대만차(臺灣 茶)가 세계로 향하다’ 라는 주제로 대만 불광산사(佛光山寺)에서 개최되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광산사 여래전 대회당에서 개막식을 가졌으며, 개막식전에 올리는 육법공양 의식에는 한·중·일·대만등 각국에서 나누어 헌차공양을 올렸다. 세계각국 선차단체들과의 문화교류행사와 함께 차 문화 학술연토회, 서법대회, 무아차회와, 차 문화의 꽃인 다예표현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열두 단체가 참가하고 한국 측은 이번 대회를 위해 100여명의 차인들이 참석했다. 숙우회, 구미보친다회, 무어차회 등이 참가하고 국악공연과 범주스님의 달마퍼포먼스 등도 펼쳐졌다(최석환, 2007).²⁶⁾

3차대회는 2007년 11월 1-3일 장시(江西)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서 정토(淨土)와 차가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선차교류가 학술과 다예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회는 한국의 선종과 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무상선사(無相禪師)의 인성염불(引聲念佛)과 차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중국측은 정토차를 선보였고, 한국측은 염불선을 이용하여 차와 선이 어떤 결합을 이루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하였다(최석환, 2007).

4차대회는 2009년 11월 14 -16일 ‘연결복정(緣結福鼎) 차화세계(茶和世界)라는 주제로 푸젠성(福建省) 푸톈시 자국사(資國寺)에서 개최되었다.

공차의식을 시작으로 선차대회가 개막되자 하늘에서 오색 꽃비가 대지로 뿌려지며 절정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 한국 측에서는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계 각국 대표단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측은 송광사 현봉스님, 일귀스님, (주)경덕 박영순회장, 산다여 현호임 이사장, 현호남, (주)장원 김영걸대표, 전 보성녹차단장 송봉석, 천태다업공사 조기원 사장, 동양다예 하일남 사장, (주)동천 김종균대표, 티월드 김정순위원장, 마음수련원장 천선혜, 농암 박봉규, 언론인 공종원, 인류학자 박정진, 조직위원장을 맡은 국제선차문화연구회 최석환, 차인을 대표하여 숙우회 강수길회장, 성균

26) <http://cafe.daum.net/hekong/9QHx>.

관 여성유도회 이해자회장, 보천다회 지만스님 등이다.

중국측은 대만의 불법사 성견법사, 일본 쿠라사와 교수, 대만 범중평, 중국저명 차연구가 구단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참여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²⁷⁾

5차대회는 2010년 4월 23 -26일 ‘선차동전(禪茶東傳)이룬 닝보(寧波)’라는 주제로 저장성(浙江省) 닝보시 칠탑선사(七塔禪寺)에서 개최되었다.

학술연토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명주선명 만인동음(萬人同飲)공연을 통해 갖가지 닝보의 차를 시음하고 공연을 보면서 닝보의 차를 음다 하는 장을 마련하여 차와 사람의 어울림을 끈끈하게 이어지게 했다. 닝보시 부시장은 개막 치사에서 ‘닝보의 옛 이름 명주는 해상차로의 출발지로 닝보의 차가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²⁸⁾

6차대회는 2011년 11월 16-19일 ‘불교(佛敎)의 선차문화의 전승’이라는 주제로 항저우(杭州) 영은사(靈隱寺)에서 개최하였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조 강연은 장시성(江西省) 사회과학원 위웨(余悅)교수가 하였는데 위웨교수는 선차문화의 발전과 선차대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말하였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한중일 불꽃 튀는 다예교류가 이어졌다. 다예공연은 영은사 3층 특설무대로 옮겨져 시작되었다고 하였다.²⁹⁾

7차대회는 2012년 10월 17-19일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가 한국의 서울에서 열려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속의 한국의 선차문화’를 주제로 세계선차 학술대회와 선차공연행사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조계사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립국악원 예약당, 창경궁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계선차공연은 1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악의 중심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렸다. 한국의 고선다회(古禪茶會)의 ‘무상선다도(無相禪茶道)’, 숙우회(熟盃會)의 ‘우담바라(優曇鉢華)’, 보천다회(寶泉茶會)의 ‘보천선차’, 화용선차회(和容禪茶會)의 ‘화중유화(畫中乳華)’,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의 ‘시은선차(四恩禪茶)’, 성보다회(聖寶茶會)의 ‘향하(香河)’, 성균관 유학대학원의 ‘공자

27) <http://cafe.daum.net/socheon-cha/>

28) <http://blog.daum.net/samhang61/>

29) <http://cafe.daum.net/rmadhckdls/>

헌다례(孔子獻茶禮), 부산차인회 ‘주심다법(珠心茶法)’이 공연되었고, 중국에서는 대자사의 ‘대자선차’, 남창(南昌)국제다예표연단의 ‘좌식다도’, 중국 허베이 차문화학회 조주좌오의 ‘맛이 없는 맛으로 맛을 겨우 안다’라는 조주선사의 차정신을 공연했다. 일본에서는 심차회(心茶會)의 가계쓰행다(花月行茶)를 선보였다(박정진, 2012).

1차에서 7차까지 열린 세계선차대회를 <표 4> 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 회 차 | 년 도 | 일 시 | 개 최 장 소 | 주 제 | 비 고 |
|-----|------|---------------|--------------------------------|--------------------------|---------------------|
| 1 차 | 2005 | 10월 21-23일 | 중국 백림선사(栢林禪寺) | 천하조주(天下趙州) | |
| 2 차 | 2007 | 4월 20-23 일 | 대만 불광선사(佛光禪寺) | 대만차(臺灣茶)가 세계로 향하다 | 한국 측 100여명 참석 |
| 3 차 | 2007 | 11월 1-3일 | 중국 장시 여산 동림사(東林寺) | 정토(淨土)와 차가 만나다 | |
| 4 차 | 2009 | 11월 14-16일 | 중국 푸톈시 자국사(資國寺) | 연결복정(緣結福鼎) 차화세계(茶和世界) | 한국 측 80여명 참석 |
| 5 차 | 2010 | 4월 23-26일 | 중국 Ningbo시 칠탑선사(七塔禪寺) | 선차동전(禪茶東傳) 이룬 닝보 | |
| 6 차 | 2011 | 11월 16-19일 | 중국 항저우 영은사(靈隱寺) | 불교(佛敎)의 선차문화의 전승 | |
| 7 차 | 2012 | 10월 17-19일 | 한국 서울 조계사(曹溪寺) 한국불교역사기념관 | 세계(世界)속의 한국의 선차문화 | |

Ⅲ. 법정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

1. 생애

법정(1932-2010)은 무소유정신(無所有精神)의 청빈생활을 생활철학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무소유 삶 자체로서 살다간 우리 시대의 올곧은 청정한 수행자였으며 안과 밖을 통달한 선승으로 맑고 한가로운 차의 넉넉함을 즐기는 차인으로 자연주의자였다. 일깨움을 주기 위해 문필가로서 경전번역가로 활동하였으며, 타 종교들과의 화합을 위해 종교교류활동의 모범을 보였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선 이 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정신적인 스승이었고 사상가이었으며 진정한 위안(偉人)이었다.

법정의 생애를 출가전인 재가구도기 시절(在家求道期 時節)의 삶, 출가 후의 삶 입적(入寂)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가구도기 시절의 삶

재가구도기 시절의 삶은 법정이 태어난 1932년부터 스승이신 효봉선사를 만나 계(戒)를 받고 승려가 되기 전인 1954년 이전을 말한다.

속명은 박재철(朴在喆) 법명은 법정(法頂), 호는 청산(靑山)이다. 법정은 1932년 10월 8일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아버지 박근배(朴根培)와 어머니 김인엽(金仁葉)사이에서 외동아들로 출생하였다. 법정의 아버지는 폐질환으로 네 살 때 돌아가셨다. 법정은 작은아버지의 도움과 친할머니³⁰⁾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다. 법정의 생일날이면 할머니는 방 윗목에 정갈한 짚을 깔아 그 위에 정화수와 음식을 담은 상을 차려놓고 손을 짹짹 비비면서 다음과 같이 축원을 하였다(법정, 1989 : 88-89).

‘몇 살 난 어디 성씨 우리 아무개 남의 눈에 잎이 되고 꽃이 되어 무병

30) 성은 김해 김씨, 이름은 금옥, 고향은 부산 초량이다.

장수하고... '일당백으로 총명하고 영특해서'... 라고 축원하였다

청소년기에는 학교 다닐 때 할머니와 성직이라는 사촌동생과 같이 한방을 사용하였으며 그때 법정은 새벽이면 일어나 촛불을 켜고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였다. 책을 손에 달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고 어쩌다 용돈이라도 생기면 꼭 책을 사서 보았다고 하였다(박성직, 2011 : 106).

법정이 성장한 뒤에 출가할 수 있는 인연으로 이끄는 계기가 된 사건들이 생기는데 10대 때에 수학여행으로 가게 된 절과 친구와 함께 간 암자 그리고 20대 때에 흑산도에서 만났던 두 분의 스님과 친구 집에서 스님을 보고 놀란 점쟁이 등의 네 가지사건을 들 수 있다. 이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가서 본 쌍계사

법정은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쌍계사로 갔었는데, 처음 간 곳인데도 올 때는 서운한 마음에서 흐느껴 울면서 나온다.

쌍계사는 8·15직후 우리 반 선생님의 인솔로 여 남은이서 수학여행 갔다가 하룻밤 묵어온 인연 있는 절이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었다. 자욱한 아침 안개 속에 묻힌 절을 뒤로 두고 떠나올 때, 나는 너무나 서운해서 뒤 돌아보며 뒤돌아보며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절이다. <중략> 어쩌면 전생에 내가 그 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법정, 2001 : 118)

(2)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가본 대흥사 암자

법정이 고등학교시절에 여름방학 때 대흥사 비구니스님이 사는 암자를 찾아갔을 때다. 비구니스님만 사는 대흥사 산내암자를 찾아가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때마침 보름이 가까운 날이었다. 그날 밤 평생 잊히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다.

노스님이 달을 보고서 합장한 채 '월광보살, 월광보살'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어쩌나 아름답던지 눈에 선해요.

함께 간 친구는 산중의 달이 도회지 달보다 더 밝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법정에게는 노비구니스님이 나직하게 염불하듯 외던 ‘월광보살’이란 울림이 가슴깊이 각인되었던 것이다 ‘월광보살’이란 말이 웬지 수없이 들었던 낱말처럼 친근하였고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감흥이 일었다고 하였다(정찬주, 2011 : 113).

(3) 대학시절 흑산도에서 스님들과의 만남

법정이 대학생시절에 백양사 목포포교당인 정혜사에서 불교학생회 총무를 보던 때였다. 대학생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흑산도도민들의 생활상을 조사하러 가서 두 분 스님을 만난다. 걸망하나 메고 세상을 자유롭게 만행하는 멋들어진 스님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두 분 스님은 흑산도와 다물도에서 탁발하고 다녔지만 위외(威儀)가 당당했다. 범어사에서 온 도광스님과 도천스님이었다. 스님들은 먹는 것도 담백했다. 대학생이던 법정은 두 스님이 존경스럽고 호기심이나 산중의 절 생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 보았다. 두 스님이 함께 다니는 이유도 들었다.

우리는 전생 전에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처음 만나 약속했어요.
성불할 때까지 서로 탁마하는 수행도반이 되기로 했어요.

법정은 집으로 돌아온 뒤 두 분 스님들을 떠올리면서 스님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생기면서 ‘나도 스님이 되고 싶다’ 꿈꾸었다(정찬주, 2011 : 114-116).

(4) 친구 집에서 만났던 점쟁이

법정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었는데 친구 집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그를 본 후 도망치듯 달아나는 사건이 생긴다.

하루는 친구의 집을 놀러 갔었는데 친구네 집에 와서 점을 치던 신들린 점쟁이가 나를 보자 그만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올 치듯 달아나는 것을 본 일이 있다(법정, 2001 : 149).

법정은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상과대에 입학한다. 정혜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이어오던 대학을 3학년이 되면서 휴학하기로 결심한다. 법정의 친구들이 이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어 3학년 1학기는 무사히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학기에는 친구들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고 휴학을 한다(박성직, 2011 : 17).

2) 법정의 출가와 시대적 배경

법정이 출가하기 전 살았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재철의 20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련의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이다. 한국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 김일성의 오판³¹⁾으로 남침을 감행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때까지 3년 1개월 2일간 동족상잔의 끔찍한 전쟁을 말한다(6. 25전쟁, daum T!P). 그 때의 사회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질 때로 황폐해져서 어수선할 뿐 아니라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벽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겪어서 사람들의 마음들도 피폐해져서 모든 희망들은 사라져버린 절망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법정은 그 당시 친구들에 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무렵 어떤 친구들은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신천지가 전개될 줄 알고 그저 밀항(密航)에만 들떠있었다. 우리는 몇 차례나 가난한 학생의 처지에서 주머니를 털어가며 송별연을 베풀었는지, 또 어떤 친구는 나머지 생애를 스스로 반납해버리기도 했었다. 남들은 말짱한데 어찌서 우리들은, 우리친구들은 그런 고뇌를 겪어야 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크느라고 그런 흥역들을 호되게 치렀던 모양이다(법정, 1993 : 61).

1954년 5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절에서 왜색불교를 몰아내야한다”는 담화가 발표되면서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난다.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전국에서 불교정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1) 인민해방군이 남한에 가면 남한인민들이 자기들의 통일전쟁에 군과 공무원을 제외한 전인민이 환영할 것이다.

법정(박성직, 2011 : 242)은 이때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여 정혜원에서 생활하던 중 정화운동에 가담한다. 이러한 불교정화운동과 맞물려 그는 청년시절 평소 인간의 역사와 삶의 고뇌에 해답을 찾기 위해 마침내 우주고(宇宙苦)의 고뇌와 오랜 방황 끝에 입산출가를 결심한다. 스물네 살의 겨울에 출가를 하기 위해 싸락눈 내리는 어느 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온다. 출가 후 그 당시의 심경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휴전이 되어 포로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삼국을 선택한 한 반도를 떠나간 사람들의 바로 그런 심경이었다(법정, 1994 : 261-262).

법정이 처음 출가 할 곳으로 정한 곳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였다. 오대산은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그리고 홍천군에 있는 고도 1,563m 산이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봉익동 대각사에서 만난 월정사의 한 스님의 말이 며칠 전에 내린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어 한동안은 갈 수 없을 거라고 하였다. 한암 대선사는 3년 전에 돌아가셨으니 효봉 대선사를 찾아가보라는 월정사스님의 말에 그의 마음이 밝아진다. 예전에 정혜원에서 일초스님에게 동쪽에는 ‘동산’ 남쪽에는 ‘효봉’이라는 이야기를 짧게 들었지만 섬광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정찬주, 2013 : 52).

법정은 선학원으로 가서 효봉선사(曉峰禪師)³²⁾를 친견하고 출가를 말씀드린다. 효봉선사(1888-1966)는 스님의 얼굴을 살펴보고 생년월일을 묻더니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하였다. 그날로 선학원 조실 방에서 법정은 삭발하고 먹물 옷을 갈아입고 선사께 인사드리자 선뜻 알아보지 못했다. 곁에서 누군가 방금 옷을 갈아입은 행자라고 말씀드리니 “허허 구 참(舊 參)같구나” 라고 하였다.

32) 평양에서 출생하였으며, 일본 와 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가 되었으나, 1923년 한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후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법관직을 버리고 3년 동안 진국을 방랑 한 뒤 금강산 절에서 출가했다. 당대의 고승 한 암(漢巖)과 만공으로부터 도를 인가받았으며, 송광사 삼일암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정혜쌍수의 구도 관을 확립했다. 평소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제자들을 엄하게 가르쳐 문하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법정, 2009 : 389).

효봉선사는 법정(法頂)이라는 법명을 그에게 내렸다.
법정은 식발하고 먹물 옷을 갈아입고 나니 훨훨 날 듯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 길로 밖으로 나가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고 말하고 있다(법정, 1994 : 262).

3) 법정의 출가(出家)후 삶

법정의 출가 후 삶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행자시절 은사인 효봉선사를 모시고 생활하였던 통영 미래사시절의 삶.
둘째, 계를 받고 스님이 되고 난 후 효봉선사와 생활하였던 쌍계사시절의 삶.
셋째, 가야산 해인사시절의 삶.
넷째, 통도사시절과 선학원시절의 삶.
다섯째, 혼자서 수행하며 생활하였던 암자생활의 삶 등이다.

(1) 미래사(彌來寺)시절

법정은 미래사에 있는 암자에서 은사이신 선사를 모시고 행자생활(行者生活)³³⁾을 시작한다.

미래사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山陽邑) 영운리 미륵산 남쪽기슭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말사이다.

효봉선사의 제자들이 선사와 선사의 은사인 석두선사를 편히 모시기 위해 용화사 반대편에 미래사를 짓고자 마음을 낸 것은 그 무렵이었다. 구산스님은 도솔암 원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성스님과 원명스님이 미래사불사(佛事)에 매달렸다. 6.25전쟁이 끝난 다음 여름에야 조그만 인법당이 회향되자 첫 주지는 구산스님이 맡았고 효봉선사는 절과 가까운 암자(庵子)에서 행자법정의 시봉을 받으며 머물렀다. 암자원편 위 산자락에는 좌선대가 있으며, 오른쪽에 작은 동굴에서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보림(保任)³⁴⁾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정찬주, 2011 : 127-128). 이때 법정의 소임은 하루에 나무를 두 짐씩을 해다가 아궁이마다 군불을 지피는 것으로서 늘 배고픈 행자시절을 보냈다.

33) 아직 승려가 되지 않고 사원에 있으면서 여러 소임 밑에서 일을 돕고 있는 사람 즉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수행자를 뜻한다(NAVER 문화원형백과).

34) 불교의 선종(禪宗)에서 깨달은 뒤에 더욱 갈고 닦는 수행법이다(NAVER 원불교 대사전).

한번은 그가 절 우물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시멘트를 운반하는데 통영시내에서 시멘트두포를 지게에 지고 용화사까지는 무난히 왔는데 재를 넘기 위해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니 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한포씩 저서 날랐다. 법정은 그의 생애에서 등으로 졌던 짐 중에서 이 시기에 등으로 졌던 짐이 가장 무거웠던 짐이라고 말하고 있다(법정, 1994 : 262). 고달픈 행자시절이었다.

법정은 행자생활을 끝내고 1956년 여름 안거가 끝난 7월 보름해제 날에 효봉선사로 부터 계(戒)를 받는다.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이 시기에 법정은 처음으로 차(茶)를 마셔보는 계기가 생긴다. 효봉선사가 법회 때 쓰다면서 남긴 차를 법회 끝난 뒤 찻잔을 치우면서 남은 차를 마셔보게 된다.

(2) 쌍계사 탑전(雙磎寺 塔殿)시절

법정이 계를 받은 그 다음날 효봉선사와 그는 쌍계사탑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쌍계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리산에 있는 사찰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 13교구 본사이다.³⁵⁾

법정과 효봉선사가 생활하였던 쌍계사탑전의 정식명칭은 쌍계사 육조정상탑전(六祖頂相塔殿)이다. 쌍계사내에 있는 전각으로 중국의 불교 선종의 6대 조인 혜능대사의 정상인 두개골을 안치한 건물이다. 전각 안에는 7층 석탑이 있어 탑전으로 불리게 되었다(이시연, 2011 : 114).

법정이 효봉선사를 모시고 안거 정진하던 곳은 탑전 좌우에 있는 동·서 방장선원(東·西 方丈 禪院)의 서 방장이었다(법정, 1993 : 87).

이 시기에 그가 맡았던 소임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찬을 만드는 일이었다. 정진시간이 되면 착실하게 좌선(坐禪)을 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탁발(托鉢)을 헤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50리 밖에 있는 구례(求禮)에서 장을 보았다.

법정은 효봉선사와 안거 정진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일깨우는 깨우침을 얻는데 두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다.

35) 쌍계사 www.ssanggyesa.net

첫째, 스승 효봉선사의 엄명으로 책을 태우게 된 일이다.

하루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소설책 한권을 사왔었다. 호손의 《주홍글씨》라고 기억된다. 아홉시가 넘어 취침시간에 지대방(고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켜놓고 책장을 펼쳤다. 한참을 정신없이 읽는데 방문이 열렸다. 선사는 읽고 있던 책을 보더니 단박 태워버리라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출가’가 안 된다고 했다. 불연세속(不戀世俗)을 출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부엌에 나가 태워버렸다. 그때는 죄스럽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었지만, 며칠 뒤에야 책의 한계 같은걸, 터득할 수 있었다. 사실 책이란 한낱 지식의 매개체에 불과 한 것, 거기에서 얻는 것은 나의 분별이다. 그 분별이 무변별의 지혜로 심화(深化)되려면 자기응시(自己凝視)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전까지 나는 집에 두고 온 책 때문에 번민했었는데 이 분서를 통해 그러한 번뇌도 함께 타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뜻내기 사문에게는 온갖 분별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정진에 방해될 것은 물론이다. 만약 그 때의 분서건(件)이 없었던들 책에 짓눌려 살았을지도 모른다(법정, 1993 : 62-63).

둘째, 점심공양 지을 시간이 십분 쪼뚝 늦은 일이다.

찬거리가 떨어져 아랫마을에 내려갔다가 낮 공양 지을 시간이 예정보다 십분 쪼뚝 늦어버렸다. 선사는 엄숙한 얼굴로 『오늘은 단식이다.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되겠니?』 하는 것이었다. 선사와 나는 그 시절, 아침에는 죽을, 점심때는 밥을 먹고, 오후에는 전혀 먹지 않고 지냈었다. 내 불찰로 인해 노사(老師)를 굶게 한 가책은 그때 뿐 아니라 두고 두고 나를 일깨웠다(법정, 1978 : 123-124).

법정은 은사 효봉선사가 1959년 겨울 네팔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혼자서 쌍계사 탑전에서 첫 겨울안거를 보낸다. 지리산으로 겨울을 나려온 수연스님과 같이 안거를 지내게 되면서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도반인 수연(水然)스님을 통해 자비(慈悲)의 의미와 도반의 정(情)이 무엇인

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과 수연스님은 동안거(冬安居)를 지낼 때 필요한 몇 가지 약속을 한다. 법정은 공양주(供養主)와 법랑과 정랑을 청소하기로 하고 수연스님은 채공(菜供)과 큰방과 부엌청소를 맡았으며 하루 한 끼를 먹고 참선을 하였다. 무사히 장애 없이 순일하게 안거를 마치고 해제일(解制日)에 같이 행각을 떠나기로 하는데 해제일 전날부터 법정이 앓기 시작하여 해제가 되어도 떠날 수가 없을 만큼 몹시 앓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연스님이 탁발하며 가져온 약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데 훗날 수연스님이 그를 위해 약을 구해온 그때의 고마움을 법정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약사발이 들려 있었다. 너 무늬었다고 하면서 약을 마시라는 것이다. 이때의 일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의 헌신적인 정성에 나는 어린애처럼 울어버리고 말았다.

〈중략〉 그는 장장 80리 길을 걸어서 다녀온 것이다. 서로가 돈한푼 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구례까지 걸어가 탁발 하였으리라. 그 돈으로 약을 지어 온 것이다. 떠나면 밤길을 걸어와 약을 달여 던 것이다. 자비(慈悲)가 무엇인지 나는 평생 처음 온 심신으로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도반의 정이 어떤 것인지도 비로소 체험 할 수 있었던 것이다(법정, 1993 : 69-70).

법정에게 쌍계사탑전에서 보냈던 시절은 감사의 마음이 싹트는 계기를 주었다.

쌍계사 탑전에서 1년 남짓 착실하고 빈틈없고 엄격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꽃중시절’을 보냈다. 나는 이 시절을 두고두고 감사한다. 무슨 일 에나 처음 먹은 마음과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겪어 터득할 수 있었다. 그때 여럿 속에 섞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아찔해진다(법정, 1994 : 263).

이 시기에 손병철 관장이 친구와 함께 법정이 수행하고 있는 쌍계사로 그를

방문한다. 법정과 손병철 관장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으며 주된 내용들은 현대인들이 차 마시기 운동을 해야 한다 등의 차에 관한 이야기이었다.

(3) 해인사(海印寺)시절

해인사는 경상남도 함천 가야면에 있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로 대한 불교 조계종 제 12교구 본사인 불보사찰로서 해인사는 무엇보다도 고려대장경판(八萬大藏經)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며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법정은 1959년 4월 15일 해인사전문 강원에서 명봉(明峰)화상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한다. 그리고 해인사 선원(禪院)에서 좌선(坐禪)을 익힌다. 그 시절 해인사 선원은 ‘유이무념위종(唯以無念爲宗)’이라는 편액이 붙어있는 응향각(凝香閣-선열당(禪悅堂)의 전신)이 선원이다(법정, 2000 : 149) 그리고 그는 해인사강원(講院)에서 불교의 경전을 대하면서 그의 생애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이곳에서 보낸다. 아침저녁으로 장경각(藏經閣)에서 따로 예불을 드리면서 자신을 응시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법정, 1994 : 263).

이 시기에 법정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사건이 발생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반 곁에서 조실 금봉선사(金峰禪師)로부터 들은 화두(話頭)문답에서 깨우침을 얻는다. 화두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의 도반이 조실스님께 여쭙었다

“저는 본래면목화두(本來面目話頭)³⁶를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아 공부 잘 안됩니다.”

이 말은 들은 조실 금봉선사는 즉석에서 다그쳤다.

36) 본래면목이란 부모에게서 낳기 이전 본래의 내 모습은 무엇이라는 의문. 화두란 참선할 때 끝없이 추구하는 명제이다

“본래면목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의 그대면목은 어떤 것인가.”

법정(1994: 263-264)은 옆에서 이때의 화두문답을 듣고 섬광처럼 부딪쳐온 전을 같은 감흥을 잇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좌선을 하는 일에 재미가 나서 무료하지 않았으며 잔잔한 기쁨으로 맑은 정신을 지닐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법정은 시골아주머니가 팔만대장경을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해야한다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라 느낀다. 그리고 불교경전을 쉬운 말과 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때의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에서 받은 충격과 그가 느꼈던 주어진 사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선(放禪)시간에 법정은 법당둘레를 거닐고 있는데, 시골에서 온 아주머니 한분이 장경각을 내려오면서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을 받고 법정은 방금보고 내려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 그 빨래판 같은 것이요”라고 되물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꽂인다. <중략>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그는 그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강원으로 내려가 경전을 배우고 익혔다. 국보요 법보라고 해서 귀하게 모시는 대장경판이지만 그 뜻이 일반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한낱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끝없이 부추겼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옮겨 전할 것인가. 이것이 그때 내게 주어진 과제였다(법정,1994 :264).

법정은 해인사에서 함석헌(咸錫憲·1901-1989)³⁷⁾선생을 만나게 된다. 그가 함석헌을 처음 마주치게 된 것은 종로에 있는 사상계에서였다. 법정은 사상계사장인

37)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서 사상가이며, 민권운동가, 문필가이다. 명동사건, YMCA 위장 결혼식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등 많은 탄압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뜻으로 본 한국역사>, <수평선 너머>가 있다(NAVER 두산백과).

장준하(張俊河·1918-1975³⁸)를 만나러 갔다가 때마침 한 걸음 늦게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 함석헌과 처음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그 뒤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에서 정진할 때였고 함석헌은 해인사의 한 암자 금선암(金仙庵)에 들어와 있을 때였다.

이 시기에 법정은 함석헌을 자주 뵈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해인사 큰방인 궁현당(窮玄堂)에서 함석헌을 모시고 한국의 종교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전대중이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법정, 1994 : 75-76).

법정은 불교사전 편찬문제로 서울 선학원에서 머물다가 불교사전이 출판되자 다시 해인사 관음전앞산이 내다보이는 소소산방(笑笑山房)으로 돌아오게 된다(법정, 1996 : 256). 그러나 그는 다시 해인사를 떠나는 사건이 생기는데 불교신문에 기고한 굴신운동(屈伸運動)이란 칼럼 때문이다. 간절한 마음을 담지 않는 삼천배(三千拜)는 굴신운동이라고 신문칼럼을 통해 비판하자 성철스님을 추종하는 일부스님들이 법정의 방으로 몰려와 소동을 피웠던 것이다. 법정스님의 글을 본 성철스님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버렸다. “펜대를 바로 세우고 글을 쓰는 사람은 법정스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성철스님의 단순하고 명쾌한 선승다운 말씀이었다. 훗날 성철스님은 상당 범어집 <본지풍광> 을 엮을 때 법정스님이 참여한 것을 보면, 성철스님이 법정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정찬주, 2013 : 312).

(4) 통도사(通度寺)시절과 선학원 시절

법정이 거주했던 통도사시절과 선학원시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도사 시절

통도사는 경남 양산군 하북면 영취산 기슭에 신라고찰(古刹)로서 불(佛)·법(法)·승(僧)의 삼보사찰(三寶寺刹)중의 하나인 불보사찰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모셔져 있어서 불보사찰이라 하는데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

38)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독립운동가, 언론인, 정치가로서 《사상계》 창간하였다. 1962년 막사이사이 언론상을 받았으며 1975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주요 저서는 <돌베개> 가 있다(NAVE R 두산백과).

에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646년(선덕여왕 말년)에 창건되었다(법정, 1993 : 75)고 한다.

법정은 1959년 3월15일 통도사 금강계단(金剛戒壇)에서 자운선사(慈雲禪師)를 계사(戒師)로 구족계(具足戒-비구계)를 수계하는데 금강계단에서 받았던 구족계 수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여 년 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우리는 자운(慈雲)스님을 계사(戒師)로 구족계(具足戒-비구계)를 받았다. 그 이전은 사미(沙彌-견습생)인데 엄밀히 말해 사미는 승중(僧衆)에 들지 않는다. 그때 30여 명 되는 스님들이 이곳에 모여 한주일 동안 엄격한 습의산림(習儀山林-계행을 익히는 훈련)을 거쳐, 대덕스님들을 증사로 모시고 2백50가지나 되는 출가자의 생활규범을 맹세했던 것이다(법정,1993 :76).

법정은 1960년 2월 초순 운허(耘虛)스님(1892-1980)³⁹⁾이 보내온 한통의 서찰을 받는다. 내용은 자금을 딸 시주가 나타나 숙원이던 《불교사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편찬 일을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편찬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스님은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잠시 자리를 옮겨 초봄부터 1961년 여름까지 사전이 출간될 때까지 편찬 일에 동참한다. 법정의 종교의 역사의식에 대한 생각과 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에 생기게 된다.

양산 통도사 원통방(圓通房)에서 불교사전 편찬 일을 거들면서 비로소 신문을 보고 라디오뉴스를 들었다. 움직이는 세상과 접하게 된 것이다. 절에 들어오기 전에 익혔던 업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통도사에서 지내는 그해 4·19(四·一九)을 맞이했었다. 종교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법정, 1996 : 256).

39) 평북 정주에서 출생, 1922년에 금강산유점사에 입산, 득도한 후 일제 만주에서 흥동학교를 설립, 평생을 독립운동과 민중교육, 역경사업에 바쳐온 고승이다(매일경제,1980년11월18일 NAVER뉴스 라이브러리).

법정이 통도사에서 편찬 일을 하면서 주로 마셨던 차는 운허노스님방의 시자가 끓여준 자스민 차를 마셨다.

② 선학원 시절

법정은 선학원시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울 안국동에 있는 선학원은 내가 처음으로 스승을 친견.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걸치게 된 인연 있는 절인데, 불교사전 일로 이곳에 올라와 있으면서 5·16(五一六)을 겪었다. 그날 아침총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노스님 한 분이 절 마당에서 어정거리다가 팔에 유탄을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고, 아하 혁명이란 무력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구나 싶었다(법정, 1996 : 256).

다음 사진들은 법정이 거처하였던 사원의 전경들이다.

법정선사가 주석했던 사원들



<사진 1> 미래사 대웅전과 진신
사리 3과가 봉안된 삼층석탑
<주석기간 : 1954·1955>



〈사진 2〉 쌍계사 탐전
 <주석기간 : 1956·1957겨울>



〈사진 3〉 해인사 대불광전
 <주석기간 : 1957 여름·1963>



〈사진 4〉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장경각



〈사진 5〉 통도사 금강계단
불교사전 편찬
〈주석기간 : 1960·1961〉

(5) 암자생활(庵子生活)의 시절

법정의 암자시절은 법정이 『불교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봉은사 다래헌에서 법안스님과 생활하던 시절, 송광사 불일암에서 생활하던 시절, 더 깊은 정진을 위하여 강원도 수류산방과 일월암에서 생활하던 시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봉은사 다래헌(奉恩寺 茶萊軒)시절

법정이 수행 정진하였던 다래헌이 있는 봉은사의 원래 주소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법정, 1996 : 256)으로서, 서울 강남구 수도산에 있는 절로서 우리나라 선종(禪宗)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법정은 1967년 운허스님이 원장으로 취임한 동국역경원의 개설로 역경사업을 돕기 위하여 서울 봉은사 다래헌으로 거처를 옮긴다. 법정과 법안스님이 거처한 다래헌은 판전아래 별당(別堂-그전까지 별당으로 불렸었다)인데 법정이 도반 법안(法眼)스님⁴⁰과 같이 들어가 살면서 다래헌이라 새로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법정, 2000 : 109). 이곳 다래헌에서 수행하면서 법정과 법안이 같이 주로 먹었던 과일은 배이다.

40) 1932에 출생, 1956년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그 해 10월 김천 직지사 관응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1976년 뉴욕원각사 주지로 취임하여 뉴욕불교의 토대를 닦았다. 1988년 뉴욕대학교에서 '원효의 화쟁 사상의 연구-'Wonhyo's Theory of Harmonization"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각사를 한국불교의 국제화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던 중 고희암으로 2007년 3월 26일 입적하였다(미주현대불교 [http://cafe daum.net/mobuddhism](http://cafe.daum.net/mobuddhism)).

처음 배 맛을 들이게 된 것은 20년 전 봉은사 다래헌에서 법안스님과 함께 지낼 때였다. 질 곁에 배 밭이 있었는데(지금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섰다) 스님이 배를 좋아해서 한 접씩 사놓고 먹으면서부터 배 맛을 알게 되었다. 배속같이 시원하다는 말이 있지만 법안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원각사라는 절을 만들어 그 곳 교민들을 교화하고 있는 그리운 도반이다(법정, 2000 : 38.).

다래헌에서 법정이 정진 수행할 때에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은사 임야와 대지의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이다.

1969년 말부터 조계종 총무원 일각에서는 봉은사임야와 대지를 매각해 불교회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정스님은 그해 연말 12월 18일 종정스님을 비롯하여 청담장로원장, 월산 총무원장, 법안교무부장을 선두로 한 총무원 간부진 등 조계종단의 원로와 실권자들이 임석한 중진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은사땅 매각은 구체화 되었다(이시현, 2011 : 221). 대한불교신문에 법정은 <침묵은 범죄다 봉은사가 팔린다.>라는 글을 기고하여 봉은사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계종단은 봉은사땅을 2만평 정도 남기고 결국 정부에 매각되었다.

둘째, 법정은 유신체제시대에서 장준하, 함석헌과 같이 ‘민주수호국민협회의’, ‘씨알의 소리’라는 모임을 통한 현실참여이다. 그 당시 어디를 가나 정보기관에서 뒤따라 다녔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의 신경은 자연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정은 어느 날, 참석한 모임에서 봉은사에서 감시하던 담당자의 전화기를 박살내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날의 모임에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담당형사가 전화로 상부에 보고 중인 장면을 목격한 나는 핫김에 그 전화기를 빼앗아 그의 면전에서 들에 박살을 내버렸었다. 그때의 우리들은 피차가 잔뜩 독이 올라있었다(법정, 2000 : 76).

당시 법정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문필가이자 반체제인사로 이름을 떨쳤다. 현실참여 종교인으로 그의 여정이 일순간 문을 닫는 사건이 있었으니 1974년과 1975년에 걸쳐 일어났던 인혁당 혹은 인민혁명당으로 불리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74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전격 구속되었다. 구속된 23명 중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8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범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장혜민, 2010 : 43-44)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자책의 마음에 수행 정진하던 봉은사 다래헌을 떠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75년이던가, 이른바 인혁당(人革黨)사건으로 한 무리의 반정부세력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반체제 쪽에서는 이를 정치적인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이자 군사독재자들은 사형을 언도한 바로 그 다음날 여덟명 전원을 사형 집행을 하고 말았다. 사범사상 일찍이 그 유래가 없었던 이런 만행 앞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나는 자책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에게 조작극이라고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자 보란 듯이 재빨리 사형을 집행하고 만 것이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한 이와 같은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색이 출가수행자로서 마음에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는다는 일 또한 자책이 되었다. 무슨 운동이든지, 개인의 인격형성의 길과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수행자가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그릇의 삶과 몫이 무엇인지도 많이 헤아리게 되었다(법정, 1994 : 265).

법정은 이날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 거둑 털고 일어

서는 출가의 각오로 다시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그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심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법정, 1994 : 265-266).

이웃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관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일단 불이 잡힌 다음에는 각자의 원 위치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봉은사 다래헌에서 법정은 수행 정진할 때에 비로소 차를 제대로 알고 마시게 된다.

② 송광사 불일암(松廣寺 佛日庵)시절

법정은 1975년 10월 송광사 불일암으로 거처를 옮겨 수행정진하기 시작한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松光面) 조계산(曹溪山)서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僧寶寺刹)로서 16국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절이다. 불일암은 송광사뒷산에 위치한 산내암자(庵子)로서 송광사 16대 국사 중 7대 자정국사(慈靜國師·1293-1301)가 자정암(慈靜庵)을 창건하였던 곳으로 폐허가 된 빈터에 1975년 법정이 다시 지어 불일암이라 고쳐 불렀다. 암자 앞 대숲너머로 펼쳐지는 조계산전망은 가슴을 트이게 하며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산의 얼굴과 사계절의 풍광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이어지게 한다(법정, 2009 : 375).

법정은 불일암 주변에 직접 나무를 심었는데 후박나무, 벚꽃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태산목, 모란, 파초, 옥잠화, 치자나무, 매실나무 등과 같은 많은 나무들을 심었다(법정, 1993 : 278-282). 그리고 해우소(解憂所)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건물 밖 밑에 있는 해우소는 배설물을 낙엽이나 톱밥, 생풀 등 친환경적 화장실로서 상좌 덕현스님(2013 : 212)은 불일암해우소를 선진적인 화장실이라고 탄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출가해서 은사였던 법정스님께서 불일암에 감수해서 지어놓으신 정량을 보고 이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하고 선진적

인 화장실이라고 탄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암자나 토굴을 거치면서 가는 곳 마다 이를 본떠, 낙엽이나 톱밥, 생풀로 배설물을 덮는 정량을 지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옛 가람의 자급자족과 자연, 친화, 생태순환의 시스템이자, 보편적인 우리 선조들의 화장실문화였을 뿐이다.

불일암에서 떨어진 서쪽에는 법정의 제자인 상좌들이 지은 두 칸의 조그만 흡집암자인 서전(西殿)이 있는데 법정이 강원도 수류산방(水流山房)으로 떠난 후 지은 암자이다. 서전이 지어진 후 법정은 제자들을 위해서 불일암과 서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정하였다.

수행정진을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한 불일암 수칙을 <표 5>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정, 1996 : 289).

<표 5> 불일암(佛日庵) 수칙

이 도량에 몸담아 사는 수행자는 다음사항을 엄격히 지켜야한다.

- I.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인 계행(戒行)과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는 일로 정진을 삼는다.
- I. 도량이 청정하면 불법승 삼보가 항상 이 암자에 깃든다.
검소하게 살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 I.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잡담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침묵의 미덕을 닦는다.
- I. 방문객은 혼연히 맞아하되 해떨어지기 전에 내려가도록 한다.
특히 젊은 여성과는 저녁공양을 함께 하지 않고 바래다주거나 재우지 않는다.
- I.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여의고 무엇을 위해 출가 수행자가 되었는지 시시로

그 뜻을 살펴야 한다. 세속적인 인정에 끌리면 구도정신이 소홀해진다는 옛 교훈을 되새긴다.

이 규칙을 지키는 수행자에게 도량의 수호신은 환희심을 낼 것이다. 이상.

서전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표 6> 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 2010 : 234-235).

<표 6> 서전(西殿) 수칙

하나, 그 수행자의 집에는 아예 전기를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전기가 들어가면 걸들어 따라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화도 필요 없어야 한다. 편리함만을 따르면 사람이 약아 빠진다.

불편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곧 도 닦는 일임을 알아라.

둘, 수도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수도가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따라가고,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마실 물은 바로 지척에 있는 암자의 샘에서

물병을 길어다 쓰면 될 것이다. 그 집에는 차외에는 마실 것도 두지 말아라.

차잔은 세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으면 그 집에 어울리지 않고 소란스러워 차의 정신인 청적(淸寂)에 어긋난다.

셋, 그 수행자의 거처를 ‘서전(西殿)’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위치가 암자의 서쪽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부처님과 조사들의 청정한 생활규범인 서래가풍(西來家風)

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의 집에는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넷, 그 수행자의 집에 가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 세시에 일어나고 밤 열시 이전에는 눕지 말아라.

새벽예불은 수도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법정은 1984년에서 1987년까지 불일암에서 생활할 때 송광사에서 대중포교를 위하여 일반시민들에게 개설한 선(禪) 수련회원장을 역임한다. 송광사 선 수련회는 1969년 4월 15일 조계총림을 설립한 송광사 초대 방장이었던 구산선사(九山禪師 · 1909-1983)⁴¹⁾가 대중포교의 원력으로 1969년 여름부터, 선 수련회를 시작하였다(석경동, 2009 : 13).

법정은 생전에 구산선사께서 자주하신 법문 중에 ‘기한(饑寒)에 발도심(發道心)’이란 법문에 대해서 ‘배고프고 추운데서 도 닦을 마음이 우러난다는 뜻으로 옳은 말씀이다’(법정, 2010 : 149)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아쉬운 것 없이 너무 풍족하면 거기에 휩쓸려 배부른 돼지처럼 무디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마음 닦는 일은 간절한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불가능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정이 선 수련원장을 맡으면서 선 수련회는 크게 확산되었으며 훗날 대부분 불교계의 전 사찰에서 수련회와 템플스테이(Templestay)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광사 선 수련회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성직자, 신자 일반인, 외국인 등을 위하여 사찰의 일상생활과 수행을 체험하게 하고 불교 문화와 한국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송광사여름 선 수련회는 높은 경쟁(3 : 1정도)을 통하여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석경동, 2009 : 14).

미황사 주지인 금강스님(2013 : 175)은 법정이 송광사 선 수련회에서 선보인 참선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원래 참선프로그램은 법정스님이 송광사에서 처음 만드셨잖아요. 현대인들이, 경쟁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얻어 가는 것이 참선수련이지요. 지금은 법정스님이 수련대회를 시작하셨던 때보다 훨

41) 1935년 27세 때, 우연히 병을 얻어 신음하던 중 진주에 사는 한 거사(居士)를 만나 그에게서 『본래 자성(自性)자리인데 어디에 병이 붙겠는가?』라는 말을 듣고 홀연히 발심하게 되어 그 길로 지리산 영원사를 찾아가 백일동안 천수기도를 하여 성취함으로써 육신의 병도 낫고 불법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어, 29세 때 입산 출가하여 효봉 선사를 은사로 계를 받는다. 1969년(61세) 4월 보름날 송광사에 조계총림이 설립되자 초대방장으로 추대 되고, 그해 9월 5일 총림의 후원단체인 불일회(佛日會)가 창립되었으며 스님은 총재 겸 총회장에 취임한다. 이와 같이 하여 희미해져가는 불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송광사를 보조국사 이래 면면히 계승되어온 승보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확립하기에 이른다(송광사 <http://www.songgwangsa.org/>).

씬 경쟁이 치열해서 더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송광사 수련대회 1976년에 참석한 김조안은 그때 만났던 수련원장인 법정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정스님과의 인연은 1976년 대학교 여름수련회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연세대학교는 기독교라는 이유로 그 당시 불교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교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중략> 그 해 열흘간의 용맹정진 여름수련회를 송광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략> 수련원장으로 처음 뵈 법정스님은 서슬이 시퍼런, 곁에서 봐어도 구도자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청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때가 불일암으로 내려오신지 서너 해째, 불교경전 번역일 때문에 1960년도 후반부터 서울에 계시게 되었고, 그런 일, 즉 글 쓰는 일에 연루가 되기 시작하니 불교신문의 주필과 편집국장을 맡으시게 되고 1974년 민주회복국민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중략>

수련회의 강의 중에 구산방장스님이 건너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깎듯이 맞이하시는 법정스님의 낮은 마음의 자세를 보았고요(김태영, 2013 : 257).

법정은 1987년에서 1990년까지 보조사상연구원(普照思想研究院)원장에 역임한다. 보조사상연구원은 15명의 받기인으로 시작하였으며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계승선양(繼承宣揚)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불일 보조국사(佛日 普照國師)의 사상과 가풍을 연구 계발하여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불국토(佛國土)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⁴²⁾

법정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친견하러 불일암 방문이 많아짐에 따라 번잡함을 느끼고 수행의 깊은 정진을 위하여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17년간 수행하였던 불일암을 떠나 깊은 산골인 강원도로 거처를 옮긴다.

42) 보조사상연구원 <http://www.bojosasng.net>

불일암에서 수행 정진할 때 법정은 차를 따서 직접 제다하여 마시거나 다양한 차를 만들기도 하고 지인들이 선물한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셨다.

방문객이 올 때는 주로 잎차를 마셨지만 말차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선물 받은 차나 다기를 나누어주기도 했다.

③ 강원도 오두막 시절

법정은 1992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산골에서 지내기 시작한다. 강원도에서 법정이 거쳐하였던 곳은 두 곳이다. 예전에 화전민이 살았던 오두막인 수류산방(水流山房)과 직접 지었던 귀틀집 일월암(日月庵)이다. 강원도 오두막 수류산방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면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사이인 진 고개 중간에 있으며, 월정사인근으로 법정이 생전 조용히 찾았던 상원사 적멸보궁과도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이시현, 2011 : 323).

법정이 오두막에 가게 된 배경은 한 친지로부터 어느 깊숙한 두메산골에 화전민이 살다가 비운 오두막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4월 19일 오후 법련사에서 법회를 마치자 말자 결심을 단행하여 오두막으로 출발한다.

서둘러 달려갔기 때문에 봄날의 긴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질 무렵 가까스로 그 오두막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곳적 그대로인 곳이었다. 시냇물소리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뻗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머슴 새가 번갈아 가면서 밤새 울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아주 개운했다. 시냇가에, 나가 흘러가는 물은 양껏 떠마셨다. 문명의 발톱이 할퀴지 않는 곳이라, 흐르는 시냇물인데도 물맛이 아주 좋았다(법정, 2010 : 208).

법정이 수류산방에서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과 하루에 먹는 식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2010 : 242-243)은 강원도 오두막에서 맨 처음 일어나서 하는 일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면 물을 마시는데 냉수를 두 컵을 마신다. 공복에 마시는 냉수

는 목을 축일 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씻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침식사는 대개 빵 한쪽에 차 한 잔과 바나나와 요구르트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한 개씩 곁들이기도 하며, 점심과 저녁을 위해서는 미리 쌀과 잡곡을 물에 불려둔다고 했다. 밖에 나갔다가 오두막에 늦게 들어올 때는 햇반을 사와서 먹기도 하는데 가끔씩 먹는 이유는 햇반의 간단함과 편리함 때문이라고 하였다.

법정이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를 마실 때에 사용하였던 물은 수류산방에서는 개울물로 차를 달였으며 겨울철에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얼음을 녹여 찻물로 사용을 하였다. 일월암에서는 찻물을 급월정(汲月井)이라는 우물에서 길어다 차를 달였다.

집 뒤꼍 산매화나무 아래에 정자도 만들었는데. 그가 정자를 만들면서 사용한 재료와 직접 지은 정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목이 조금 남아 뒤꼍 산매화나무 아래 조그만 정자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말이 정자지 정자의 형태는 뒷마루를 뜯어놓은 마룻장에 네기둥을 세우고 짜릿대로 열기설기 위에놓은 원두막 같은 건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정자의 이름만은 ‘산매정(山梅亭)’ 이라고 그럴듯하게 지어 두었습니다. <중략>

산매화가 피어있는 꽃가지 아래에 있는 정자이기 때문에 선뜻 ‘산매정’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것입니다(법정, 2010 : 189-190).

법정(2008 : 97-98)은 매년 해마다 겨울마다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자 살고 있던 오두막 수류산방에서 내려와 물이 잘 나오는 터로 옮겨 그곳에 조그만 귀틀 집을 지어 추운 겨울철을 지내게 된다. 귀틀집에는 일월암(日月庵)이라는 편액을 만들어 달았다. 편액을 만들어 단 동기는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 지은 오두막을 혼자 살지 않고 해와 달과 함께 살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므로 밝은 집에서 밝게 살고자 하는 염원에서다. 편액의 글자는 집일을 하고 남은 현 판자 쪽에 갑골문자에서 해와 달을 빌리고 ‘집 암’은 찾을 수 없어 간략하게 집의 형상을 그려 놓았다”고 하였다.

다음 사진들은 법정이 머물렀던 암자들의 전경이다.

암자생활(庵子生活)시절의 전경



〈사진 6〉 봉은사 다래헌
〈주석기간:1969·1975〉



〈사진 7〉 봉은사 판전



〈사진 8〉 법정이 직접 중창불사를
했던 송광사 불일암
〈주석기간 : 1975·1991〉



〈사진 9〉 강원도 평창 수류산방
〈주석기간 : 1992·2010〉



〈사진 10〉 강원도 평창 일월암
〈주석기간 : 1992·2010〉

2. 입적(入寂)

법정은 2007년 천식에서 비롯된 폐질환이 2009년 다시 재발되어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년 3월 11일 오후1시 51분 길상사 행지실(行持室)에서 입적하였다. 이때의 나이는 79세, 법랍 56세 이다.

덕조스님(정찬주, 2013 : 7)은 스승의 입적에 대해 ‘봄날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날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피어야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름다운 봄날에 훌쩍 떠나감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모의 글로서 애도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봄날에 훌쩍 떠나시니 그 향기가 그립습니다. 스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스님의 무소유 향기가 가득합니다. 평소 단순함과 간소함으로 홀로 있음을 즐기고 침묵으로 자기 질서에 투철하셨던 스님! 출가 수행자는 고독 위에 우뚝 서야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수행하시며 더불어 사셨던 스님!

법정의 생전 소원은 단순하고 ‘보다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사는 곳이 번거로워지면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당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고 사후 장례식까지 철저하게 당부하였다고 한다(현장스님, 2010 : 3.13).⁴³⁾

법정이 한 마지막 당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일체의 번거로운 장례의식은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라. 화환과 부조금을 받지 말라. 삼일장을 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화장하라.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고 사리를 찾지 말고, 탑도 비도 세우지 말라.”

43) <http://cafe.daum.net/kimjijang>.

법정은 제자들인 상좌들에게도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당부
를 하였는데 남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디든지 내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까지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정찬주, 2013 : 305-306).

법정은 길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십이 넘은 나이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오두막에서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며 간소하게 살았다. 그는 자신
의 길을 가기위해 홀로 살았고 ‘자신의 리듬’을 느끼며 살고자 하였다. 그것은 불
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무소유의 삶이었다. 그 살림살이는 ‘온 삶을 담은 말’(법
문집)과 ‘온몸을 실은 글’(산문집)로 살아나 인구에 회자되며 수백만 권이 판매되
었다. 수십억의 인쇄는 모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리 없이 기부했다. 하
지만 폐암으로 입원했던 그에게는 병원비조차 없었다고 한다(고영섭, 2013 : 3.
25).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어느 독지가가 병원비 일체를 내었다.

법정의 장례, 추모객들의 조문모습과 송광사 다비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의 장례의식

장례는 길상사에서 그의 유언에 따라 행해졌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님의 상좌들은 법정의 유언에 따라 관을 짜지 않고 수의도 입히지
않았다. 침상으로 사용하던 대나무 평상 위에 스승을 눕히고 가사를 덮
었다. 장례기간만은 스승의 유언을 따르지 못했다. 스승의 출가본사인
송광사로 가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삼일장으로 모실 수밖에 없
었다. 상좌들은 다음 날 스승의 법체를 송광사로 운구하여 송광사 문수
전에 모셨다.

2) 송광사에 추모객들의 조문모습과 주차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광사에서는 이미 추모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밤새 추모객들이 몰려들었다. 새벽이 되었을 때는 송광사에서 30 리 밖 국도까지 주차장이 돼 버렸다. 영결식도 없고, 오색만장도 없고, 연꽃 상여도 없고, 가사 한 장에 덮여 떠나는 법체지만 결코 초라하거나 가볍지 않았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장엄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이 만장이 되었고, 꽃상여가 되었다(정찬주, 2013 : 306-307).

3) 다비장의 모습과 추모객들의 열불소리는 다음과 같다.

다비장은 가파른 산길 끝 편백나무 숲속에 있었다. 추모객들은 힘들게 다비장으로 올라갔다. 산길을 오르는 추모객들은 향기로운 흙을 밟았다. 편백나무 숲의 향기를 맡았다. 숲과 흙을 가까이 하라는 법정이 선사하는 선물 이었다. 이윽고 다비장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추모객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연꽃형상으로 치솟았다. 산기슭에 모인 추모객들은 하나같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을 외었다. 창불소리가 편백나무 숲을 흔들었다. 불이 타는 동안 치솟는 장작의 재가 다비장에서 눈송이처럼 떨어졌다. 추모객들은 합장한 채 다비장을 떠날 줄을 몰랐다. 법향(法香)을 남기는 수행자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다비장의 불꽃을 보면서 깨달았다(정찬주, 2013 : 307).

길상사와 송광사에서 행하였던 법정의 장례는 길상사에서는 그의 유언에 따라 수의(壽衣)없이 그가 입었던 옷 위에 가사를 덮었다. 상좌스님들은 스승의 유언대로 장례준비를 하였는데 그의 유언 중 장례기간은 지키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스승의 법체를 송광사로 운구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어쩔 수 없이 기간은 삼일장이 되었고, 법체는 길상사를 떠나 송광사 문수 전에 모셨다. 송광사에는 이미 추모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밤새 추모객들이 몰려들었다. 편백나무 숲속에 있는 가파른 산길 끝에 다비장이 있었으며 계속 올라오는 추모객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연꽃형상으로 치솟았다. 불이 타는 동안 추모객들은 하나같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을 외었고 합장한 채 다비장을 떠날 줄 몰랐다.

법정의 장례모습과 추모객들



〈사진 11〉 송광사에서
법정의 장례모습



〈사진 12〉 송광사 대웅보전
앞 추모객들



〈사진 13〉 다비장으로 가고
있는 스님들과 추모객들

(출처 : 〈사진〉 11, 12, 13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법정은 마지막까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에는 가져가지 않겠다.” 말하였다(고영섭, 2013). 그 결과 출판사들은 절판을 선언했고 무소유등은 품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에 대한 소유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열기는 법정이 강조했던 무소유의 정신을 소유하고픈 독자들의 강력한 열망의 표현일 것이다. 그가 입적하고 난 뒤에 나온 저서들과 사진출판물, 영상물 등은 법정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저 서>

법정의 입적 후 출판된 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찬주, 『소설 무소유』, (2010, 도서출판 열림원)
-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2011, 도서출판 열림원)
- 백금남,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2010, 은행나무)
- 장혜민,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2010, 산호와 진주)
- 곽영미, 『법정스님, 아름다운 무소유』, (2010, 스코프)
- 박성찬 외 2(최애정, 이성준), 『아름다운 산사』, (2010, 가림출판사)
- 박성직, 『마음하는 아우야』, (2011, 도서출판 녹야원)
- 이시현, 『법정기행』, (2011, 마더박스)
- 김세중, 『무소유 잠언집』, (2011, 휘닉스드림),
- 변택주, 『숨결』, (2012, 도서출판 큰나무)
- 『나를 물들이다』, (2012, 불광 출판사)
- 『가슴이 부르는 만남』 (2013, 불광출판사)
- 고 현, 『불일암의 추억』, (2015, 도서출판 수미 등)

법정의 입적 후 출판된 저서들을 <표 7>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법정의 입적 후 출판 된 저서

| 저 자 | 저 서 의 제 목 | 출 판 사 | 출판년도 |
|---------|----------------|-----------|------|
| 정찬주 | 소설 무소유 | 도서출판 열림원 | 2010 |
| |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 " | 2011 |
| 백금남 |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 은행나무 | 2010 |
| 장혜민 |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 산호와 진주 | 2010 |
| 곽영미 | 법정스님, 아름다운 무소유 | 스코프 | 2010 |
| 박성찬 외 2 | 아름다운 산사 | 가람출판사 | 2010 |
| 박성직 | 마음하는 아우야 | 도서출판 녹야원 | 2011 |
| 이시현 | 법정기행 | 마더북스 | 2011 |
| 김세중 | 무소유 잠언집 | 휘닉스드림 | 2011 |
| 변택주 | 숨결 | 도서출판 큰 나무 | 2012 |
| | 가슴이 부르는 만남 | 불광 출판사 | 2012 |
| | 나를 물들이다 | | 2013 |
| 고 현 | 불일암의 추억 | 도서출판 수미등 | 2015 |

(2) <사진집>

법정의 입적 후의 사진출판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장, 『法頂스님 禪墨』, (2010, 도서출판 다래헌.)

근승랑(權承郎), 『비구, 법정法頂』-헌정사진집-(2011, 동아일보.)
 일여, 『날마다 새롭게-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사진 공양집-(2013, 예담.)

(3) <영상물>

법정의 입적 후의 영상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TV, 『비구 법정』

스페셜다큐 MBC, - 『아름다운 마무리』

부처님 오신 날 - 『법정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 하라』

- 희망특강 파랑새- 『법정스님 무소유의 삶』 .

KBS 특집다큐, - 무소유의 삶- 『법정스님의 삶을 돌아본 방송』

EBS, 『마지막여행 법정스님』

다큐멘터리, 『법정스님의 의자』, 한국, 75분, 2011

법정의 입적 후 사진 출판물과 영상물을 <표 8>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법정의 입적 후 사진출판물과 영상물

| 분류 | 저 자 및 프로그램 | 출 판 제목 및 영상물 제목 | 출 판 사 및 제 작 사 | 출판년도 제작년도 |
|-----------------------|--------------|-----------------------------------|---------------|--------------|
| 사 진 출 판 물 | 현 장 | 법정스님 禪 墨 | 도서출판 다래헌 | 2010 |
| | 근승랑 (權承郎) | 비구 법정(法頂) 헌정 사진집 | 동아일보 | 2011 |
| | 일여 | 날마다 새롭게-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사진 공양집 | 예 담 | 2013 |

| | | | | |
|-----|-------------------|-------------------------------|-------|------|
| 영상물 | 다큐 | 비구 법정 | B T N | 2010 |
| | | 아름다운 마무리 | M B C | 2010 |
| | 스페셜 다큐 | 부처님 오신날 법정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M B C | 2010 |
| | | 희망특강 과량새 법정스님 무소유의 삶 | | 2010 |
| | 특집 타큐 | 무소유의 삶 법정스님의 삶을 돌아본 방송 | K B S | 2010 |
| | 지식채널e | 마지막 여행 법정스님 | E B S | 2010 |
| | 휴먼다큐멘터리 임성구 감독 | 법정스님 의자 | 한국 | 2011 |

3. 법정의 학문적 업적

법정의 글은 정갈하며 향기롭고 여운이 남는 문체로 불자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스님의 삶의 자취와 청정한 영혼이 담긴 수상록 등은 출판될 때마다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했는데, 그것은 자연을 지키며 청빈한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호소하는 스님의 글을 통해 독자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맑고 향기롭게 정화됨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저서 『無所有』는 1976년 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선종(善終)하신 김수환(金壽煥·1922-2009)⁴⁴⁾추기경은 『無所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장혜민, 2010).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44) 한국 카톨릭 성직자·추기경, 세례명은 스테파노이다. 1922년 대구 독실한 카톨릭 집안의 막내로 출생, 1951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69년 교황 바오로6세에 의해 한국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다(NAVE R두산백과).

법정의 저서들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출간년도와 출판사는 초판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일부 저서는 초판발행 후 출판사와 제목을 바꿔 출간되기도 하였다.⁴⁵⁾

1) 법정의 <법문집>

저서 법문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期一會』, (2009, 문학의 숲)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2009, 문학의 숲)

2) 법정의 <산문집>

저서 산문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혼의 母音』 (1972, 동서문화원),

『무소유』 (1976, 범우사)

『서있는 사람들』 (1978, 샘터),

『산방한담』 (1983, 샘터)

『물소리 바람소리』 (1986, 샘터),

『텅 빈 층만』 (1989, 샘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숫타니 파타 강론 집 (1990, 샘터),

『버리고 떠나기』 (1993, 샘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1996, 샘터)

『오두막편지』 (1999, 이레),

『홀로 사는 즐거움』 (2004, 샘터)

『맑고 향기롭게』 <대표산문선>(2006,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2008, 문학의 숲)

45)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저서 법문집과 산문집을 <표 9>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법정의 법문집과 산문집

| 저서분류 | 저 서 의 제 목 | 출 판 사 | 출판년도 |
|-------|---------------------------------|--------|------|
| 법 문 집 | 일 기 일 회-一期-會 | 문학의 숲 | 2009 |
| |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 " | " |
| 산 | 영 혼 의 모 음 | 동서 문화원 | 1972 |
| | 無 所 有 | 범 우 사 | 1976 |
| | 서 있는 사람 들 | 샘 터 | 1978 |
| | 산 방 한 담 | " | 1983 |
| | 물 소 리 바 람 소리 | " | 1986 |
| 문 | 텅 빈 층 만 | " | 1989 |
|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숫타니파타 강론 집- | " | 1990 |
| | 버 리 고 떠 나 기 | " | 1993 |
| 집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 | 1996 |
| | 오 두 막 편 지 | 이 레 | 1999 |
| | 홀 로 사 는 즐거움 | 샘 터 | 2004 |
| | 맑고 향기롭게 -대표산문선- | 조화로운 삶 | 2006 |
| | 아 름 다 운 마 무 리 | 문학의 숲 | 2008 |

3) 법정의 <잠언집>과 <여행서>

법정의 저서 잠언집과 여행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에는 꽃이 피네』 (1998, 동쪽나라)
- 『봄여름가을 겨울』 (2001, 이레)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 하라』 (2006, 조화로운 삶)
- 『인도기행』 (1991, 샘터)

잠언집과 여행서를 <표 10>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법정의 잠언집과 여행서

| 저서분류 | 저서제목 | 출판사 | 출판년도 |
|------|----------------|--------|------|
| 잠언집 | 산에는 꽃이 피네 | 동쪽나라 | 1998 |
| | 봄여름가을 겨울 | 이레 | 2001 |
|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조화로운 삶 | 2006 |
| 여행서 | 인도기행 | 샘터 | 1991 |

5) 법정의 <역서 / 편저>

법정의 역서/편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불교성전』 <공저>(1972, 동국역경원)
- 『효봉어록(曉峰語錄)』 <공저>(1975, 조계산 삼일암)
- 『깨달음의 거울』 -선가귀감-(1976, 흥법원)
- 『말과 침묵』 -불교의 명언들-(1982, 샘터)
- 『나누는 기쁨』 -보현행원품-(1984, 불일출판사)

- 『진리의 말씀』 -법구경-(1984, 불일출판사)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효봉선사의 자취-(1984, 불일출판사)
 『신역 화엄경』 (1988, 동국역경원)
 『밖에서 찾지 말라』 -보조선사 법어-(1989, 불일출판사)
 『불타석가모니』 (와타나베쇼코, 1990, 샘터), 『인연이야기』 (1992, 불일출판사)
 『숫타니파타』 (1994, 샘터)

6) 법정의 <어린이용 편저>

법정의 어린이용 편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 좋은 이야기』 (2002, 동쪽나라), 『참 맑은 이야기』 (2002, 동쪽나라)
 『법정스님의 즐거운 동쪽나라』 1·2·3, (2003, 동쪽나라)

역서/ 편저 및 어린이용 편저를 <표 11> 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법정의 역 서/ 편저와 어린이용 편저

| 저서분류 | 저서제목 | 출판사 | 출판년도 |
|-----------------------|----------------------------|---------|------|
| 역 서 / 편 저 | 불교성전 <공저> | 동국역경원 | 1972 |
| | 효봉어록(曉峰語錄)<공저> | 조계산 삼일암 | 1975 |
| | 깨달음의 거울 -선가귀감- | 홍법원 | 1976 |
| | 말과 침묵 -불교의 명언들- | 샘터 | 1982 |
| | 나누는 기쁨-보현행원품) | 불일출판사 | 1984 |
| | 진리의 말씀 -법구경- | " | " |
| |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효봉선사의 자취- | " | " |

| | | | |
|---------|-----------------------------|--------|-------|
| | 신역 화엄경 | 동국 역경원 | 1988 |
| | 밖에서 찾지 말라 -보조선사 범어- | 불일 출판사 | 1989, |
| | 불타 석가모니 | 샘 터 | 1990 |
| | 인 연 이 야 기 | 불일출판사 | 1992 |
| | 숫타니 파 타 | 샘 터 | 1994 |
| 어린이용 편저 | 참 좋은 이야기 | 동쪽나라 | 2002 |
| | 참 맑은 이야기 | " | 2002 |
| | 법정스님의 즐거운 동쪽나라 1 · 2 · 3 | " | 2003 |

7) 법정의 <관련 출판물>

법정에 대한 관련출판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 장준하 그 심지에 다시 불길을』 <공저>(1980, 동광출판사)

『대화』 <공저>(2004, 샘터)

8) <오디오북>

법정의 오디오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에는 꽃이 피네』 <낭독: 법정스님, 이계진>(1999, 동쪽나라)

『연꽃향기를 들으면서』 <낭독: 김세원>(2007, 아울루스)

관련 출판물과 오디오북을 <표 12> 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법정의 관련 출판물과 오디오 북

| 명 칭 | 저 서 와 오디오 제 목 | 출 판 사 | 출판년도 |
|----------|-----------------------------|-------|-------|
| 관련 출 판 물 | 아! 장준하 그 심지에 다시 불길을 <공저> | 동광출판사 | 1980, |
| | 대 화 <공저> | 샘 터 | 2004 |
| 오 디 오 북 | 산에는 꽃이 피네 낭독: 법정스님, 이계진 | 동쪽나라 | 1999 |
| | 연꽃향기를 들으면서 낭독: 김세원 | 아울루스 | 2007 |

9) 법정의 저서 <영문판>

법정의 영문판 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Mirror of Zen-The Classic Guide to Buddhist Practice of Zen Master So Sahn -<선가귀감, 영문판>(2006, Random House)

May All Beings Be Happy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영문판> (2006, 조화로운 삶).

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 And Other Early Works By a Mountain Monk <산문모음집, 영문판>(Brian Barry, Zen Master Bopjong, 2010, Jain Publishing Company)

저서 영문판을 <표 13> 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법정의 저서 (영 문 판)

| 한국 저서명 | 영 문 판 저 서 제 목 | 출 판 사 | 출판 년도 |
|-----------------------|---|----------------------------|----------|
| 선가귀감 | <i>The Mirror of Zen-The Classic Guide to Buddhist Practice of Zen Master So Sahn</i> | Random House | 2006 |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i>May All Beings Be Happy</i> | 조화로운 삶 | 2006 |
| 산문 모음집 | <i>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And Other Early Works By a Mountain Monk Brian Barry, Zen Master Bopjong,</i> | Jain Publishing Company | 2010 |

10) 법정의 저서 (중국어 판)

법정의 중국어판 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無所有』 <무소유>, (2005, 天下文化)

『山中花開』 <산에는 꽃이 피네>, (2008, 明名文化)

『凡活著的盡皆幸福』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2008, 遠流)

11) 법정의 저서 (일본어판)

법정의 일본어판 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無所有』 <무소유>, (2001, 東方出版)

『すべてを捨てて去る』 <버리고 떠나기>, (2003, 麗尺大學出版會)

『生きとし生けるものに幸あれ』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2007, 麗澤 大學 出版會).

『清く香しく』 <맑고 향기롭게>, (2008, めるくまーる) , (법정넷, 법정스님저서 목록)

중국어판과 일본어판 저서를 <표 14>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법정의 저서 (중 국 어 판 과 일 본 어 판)

| 나라 | 한국저서명 | 중국어 판 및 일본어판 저서 제목 | 출판사 | 출판 년도 |
|--------|-------------------|-----------------------|----------|----------|
| 중 국 | 無所有 | 無所有 | 天下文化 | 2005 |
| | 산에는 꽃이 피네 | 山中花開 | 明名文化 | 2008 |
|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凡活著的盡皆幸福 | 遠流 | 2008 |
| 일 본 | 無所有 | 無所有 | 東方出版 | 2001 |
| | 버리고 떠나기 | すべてを捨てて去る | 麗尺大學 出版會 | 2003 |
|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生きとし生けるものに幸あれ | 麗澤大學 出版會 | 2007 |
| | 맑고 향기롭게 | 清く香しく | めるくまーる | 2008 |

법정은 수행자이지만 많은 저서들을 출판하여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여 다양한 층의 대중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법문집과 산문집 15권, 잠엄집 3권과 여행서 1권, 역서/편저 12권 어린이용 편저 5권 등이 있으며 관련출판물 2권과 오디오북 2권 등이 있다. 특히 『無所有』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고 할 만큼 국민적인 도서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법정의 저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영문판으로 번역 출판된 저서는 『선가귀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산문모음집』 등이 있다. 중국어판으로 번역 출판된 저서는 『無所有』, 『산에는 꽃이 피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등 3권이 있다. 일본어판으로 번역 출판된 저서는 『無所有』, 『버리고 떠나기』,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맑고 향기롭게』 등 4권이 출판되었다.

IV. 법정의 선차문화(禪茶文化)

법정은 선과 차의 중심에서 단순하고 간소하며 담박하게 생활하였으며 차가 선이면서 선(禪)이 차(茶)인 선차일여(禪茶一如)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에서 살다간 선승이며 차인이었다.

법정의 선차문화를 선수행의 선문화(禪文化)와 차생활인 차문화(茶文化)로 구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선문화(禪文化)

법정의 선문화는 법정의 선의 정의, 선의 정신과 선사상(禪思想)의 핵심인 지혜와 자비, 선사상의 특징인 무소유 청빈사상, 불교와 타종교와의 화합사상, 자연과 생태주의 사상, ‘맑고 향기롭게 사상’과 출가수행자의 출가정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의 선(禪)의 정의와 선(禪)의 정신

(1) 법정의 선(禪)의 정의

선은 법정에게 있어 깨어있는 정신으로 현재를 완전히 사는 것을 말하며 진짜 선은 혀끝의 놀이가 아니라 신체의 작용이다. 순간순간 천진면목(天真面目)을 행동으로 발산하면서 마음껏 사는 일이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감이다(법정, 1993 : 276)고 하였다. 또한 선은 앉거나 눕는 데에 상관이 없는 것이며, 부처는 가만히 앉아 있는 부동자세가 아니다. 어디에나 집착이 없어서 따로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선이란 소리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좌선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좌선의 태도, 특히 그 마음가짐의 잘못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본래 천진스런 그 마음을 어

지립하지 않음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천진면목(天真面目)을 드러내라는 소리이다(법정, 2001 : 81)라고 선(禪)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법정은 선이 곧 좌선인줄만 알고 마음을 안정하는 것으로써 선을 삼으려는 오류는 일찍부터 있었다고 하였다.

유마경(維摩經)에 보면 한 수행승이 고요한 숲 속의 한 나무 아래 앉아 좌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마힐⁴⁶⁾이 그에게 말한다.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소.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동요됨이 없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깨달음)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앉을 수 있어야 부처님이 인정하는 좌선이 됩니다(법정, 2001: 80).

법정은 선과 명상이란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현대인들이 선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선(禪)의 다른 말인 명상에 대해 안으로 마음을 살피는 일 우리는 이것을 일과 삼아서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최초의 한 생각에서 싹튼다. 이 최초의 한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법정, 1998 : 144). 명상은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이다. 안으로 충만해지려면 맑고 투명한 자신의 내면을 무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명상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명상은 절에서,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 겹겹으로 둘러싸인, 겹겹으로 얽혀있는 내 마음을 활짝 열기위해서 무심히 주시하는 일이다(법정, 1998 : 151). 그리고 또 명상은 깨어있는 존재의 꽃이다. 명상은 어떤 종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마음껏 꽃피울

46) 저갓거리에 살면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았던 인도의 전설적 재가불자이며, 바이살리에 살았다고 전해지며 <유마힐 소설경>에서 주인공거사로 등장하지만 실존 여부는 명확치 않다. “그는 중생이 없으니 보살도 않는다”는 중생과 동심일체를 이루었고, 가족들의 소재를 묻자 지혜가 아버지이고 방편이 어머니라 답해 대승 보살 최상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법정, 2010 : 365).

수 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자연의 섭리 같지만, 그 안에는 홀로 겪는 명상의 세계가 있어 생명의 신비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조용히 안팎으로 지켜보라. 지켜보는 이 일이 곧 명상이라 하였다(법정, 1996 : 79).

법정이 선(명상)을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류시화(1999 : 19)는 스님과 나는 대화에서 스님이 하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줄 곳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행이 되겠는가. 홀로 살면서도 나는 아침저녁 예불을 빼놓지 않는다. 하루를 거르면 한 달을 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다. 명상과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유의 획득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가 선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의 획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법정의 선(禪)의 정신

법정(2001: 83-84)은 선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은 설명이나 해설에 의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진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수행이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하고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들은 지식이나 정보는 언젠가 흩어져 날아 가버릴 먼지 같은 것, 거리낌 없는 지혜야말로 그 사람의 무게를 이루고 그의 빛을 발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우리들은 머리와 입만 커다랗게 열려 있지 가슴과 발은 점점 퇴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으로 팔팔한 생명의 빛을 잃어간다. 따라서 대지와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선은 대지와 밀착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단련이다. 좌선은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당당하게 홀로 직립하는 모습. 새삼스레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좌선 그 자체가 본래적인 자아의 살아있는 모습이고, 대안락(大安樂)의 법문이다. 선은 원래 좌선으로써 행동의 근본을 삼지만, 좌

선만이 아니고 일상의 기거동작마다 깨어있는 삼매의 정신으로 순화되고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법정, 2001: 81).

법정은 우리는 본래부터 청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화(정진)하여 그 본래의 모습을 활짝 드러내야 한다. 본래 청정이기 때문에 무한히 정화하여 그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가르침은, 우리들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날이 날마다 순간순간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만 본래 청정한 자신의 모습을 활짝 드러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거듭 새겨두어야 한다고 하였다(법정, 2000 : 258-259).

(3) 법정이 임제선사(臨濟禪師)를 통해 본 선(禪)의 정신

선(법정, 2001 : 80)은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선종은 중국에서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꽃을 피운다. 좌선은 고대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인데 중국에 와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임제선사에 이르면 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크게 바뀐다. 임제선사(?-867)⁴⁷⁾의 어록에 나타난 선사의 선의 정신을 법정은 강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배불리 밥을 먹고 좌선하여 선정(禪定·삼매)에 들려고 한다. 망상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만을 좋아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외도(外道)의 짓이다. 일찍이 조사(祖師)의 말을 듣지 못했는가? 그대들이 생각을 쉬어 고요를 찾거나, 생각을 가라앉혀 삼매에 들려고 한다면 이런 놈들은 모두 가짜다 한 말씀을(법정, 2001 : 80).

그대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닫는다고. 도

47) 당나라 말기 선승으로, 황벽 회운 문하에서 도를 깨쳤으며, 임제종의 종주가 되었다. 남성적이고 행동적이며 거친 선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자 스승 황벽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백장선사가 물려준 선판(禪板)을 비롯하여 좌선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었다. 황벽이 이것들을 임제에게 준 것은 깨달음 인가의 징표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임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스승이 물려준 이 인가의 징표들로부터 불살라 버렸다. 그러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고 설했다. 틀에 갇히면 자유에 도달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에, 이런 것을 타파해야 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임제 사상의 근간이다. 임제를 영원한자유인으로 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법정, 2009 : 383).

대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지금 행동에 무엇이 모자라 또 다시 깊고 보태겠다는 것인가?(법정,2001:81).

그대들 한사람의 장부(丈夫)는 본래 무사(無事)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믿지 않고 있을 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남의 얼굴만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바른 견해를 얻고 싶거든 타인으로부터 미혹(迷惑)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성자를 만나면 성자를 죽이라. 그래야만 그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 자재하리라(법정, 2001 : 82).

법정(2001 : 82-83)은 임제선사의 선의 정신은 부처나 조사, 전통이나 스승을 최고 가치로 삼을 경우 그것은 스스로를 얽어매는 짓, 선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왜냐하면 부처나 조사, 성자나 스승에게 의존하면 새로운 가치창조를 방해받기 때문이다. 종교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을 역설하고 있다. 선은 이와 같이 창조를 존중하면서 모방을 배격한다. 선사가 내세운 바른 견해 [眞正見解]란 거리낌 없는 청정한 지혜이고 열린 눈이다. 일반적으로 선사들의 표현이 과격한 것은 생생한 체험을 죽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과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개념화로 굳어버린 언어와 문자를 살려서 쓰려면 부득이 역설적인 표현을 쓰기 마련이다. 만나는 죽죽 죽이라는 말은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극복하라는 뜻이라 하였다.

(4) 법정과 종정 성철선사(性徹禪師)의 대답에서 본 선의 정신

법정은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선사(1912-1993)⁴⁸와의 대답(성철, 1993 : 204)에서 「선문정로(禪門正路)」 저서를 출판하게 된 동기와 선사의 생사관(生死觀) 및 「현대인에게 주는 법문」 등에 관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

대답을 통한 성철선사의 선의 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1912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으며, 속명은 이영주(李英柱)이다.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여 해인사에서 하동산(河東山)대종사(大宗師)밑에서 득도, 속세와 인연을 끊고 오로지 구도에만 몰입하는 승려로 알려졌으며, 파계사(把溪寺)에서 행한 장자불와(長坐不臥) 8년은 유명하다(NAVER 두산백과).

① 선문정로(禪門正路)를 출판하게 된 동기

법정 : 제가 알기로 큰 스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몹시 싫어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온 기자들도 번번이 만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문정로 「(禪門正路)」란 책을 출판해서, 법공양인 비매 품으로 종단 안팎으로 널리 나누어 주셨습니다. 책을 펴지게 된 동기라 할까,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정 : 나의 이런 생각이 기우인지 알 수 없습시다만, 불교란 것이 그 근본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은 선(禪)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자체, 견성 자체에 대해서 그만 표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견성했으면, ‘성불했으면’하고 참선을 하는 것인데, 누구나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흘만 지나면 참선한다고 해서 한 사흘도 못되어 모두 다 견성해 버리고 성불해 버립니다. 근본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불교계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혼란이 와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는 안됐습시다만, 미국에 가 있는 일본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불교를 포교하느냐 하면, 먼저 견성해서 참선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무(無)’자 화두를 가르쳐 주고서 ‘무(無)’라고 말할 줄 알면 견성했다고 해서 ‘견성 단’이라고 따로 뜻말을 세워둔 곳에 앉습니다. 견성하기 위해 참선하는 것인데, 견성을 해가지고서 참선하는 식이니,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서 무슨 견성을 하겠습니까. 이리되어서 불교의 생명이 완전히 파괴될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날이 갈수록 그 피해가 심해져, 결국에는 견성이 없어져 버리고 성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서, 앞으로 불교 장래를 위해서 그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불고조(古佛古祖)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견성했는가, 어떻게 말씀 했는가. 그 법문들을 여러 곳에서 모으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습니다. 견성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내 개인 생각만이 아니고, 견성에 대한 표준인 고불고조의 기본사상을 소개해서, 앞으로 견성견불에 대해 혼란이 안 오고 과멸이 안 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책을 내봤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습니다(성철, 1993 : 191-192).

② 성철선사의 생사관(生死觀)

법정 : 사람은 한번은 죽습니다. 많은 생물가운데서 유달리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님의 생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종정 : 생사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나면 캄캄하듯이, 알고 보면,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생사라 하지만 본래 생사는 없습니다.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고, 이대로그 해탈입니다. 일체만법이 해탈 아닌 것은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 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눈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몸을 받고 또 받고 하여 이어지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모두 자유다 그 말입니다. 대 자유! 눈을 뜨고 볼 때는 그래서 생사가 곧 해탈이고 생사 이대로그 열반입니다. ‘생사 곧 해탈’이라고 하겠지요. 생사란 본래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만 보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이 현실 그대로가!(성철, 1993 : 200-201).

③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성철선사의 법문

법정 : 한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 풍진 세상 살아 가는데 길잡이가 될 시원한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종정 : 거듭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항상 금생뿐입니다. 새해라는 것도 달력을 만들어놓고 그것 바뀌는 것일 뿐, 새해, 구해 구별할 것 없이 중생이 본래 부처다, 우리가 본래 광명 속에 산다, 광명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자체, 이대로그 광명입니다. 그런 좋은 광명을 눈감고 못 보며 헤매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둡다, 어둡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바로 떠라, 마

음의 눈을 밝게 뜨자. 그리하여 일체 모든 상대세계가 절대세계 아닌 곳이 없으니, 미래 겁이 다하도록 모든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고 섬기자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우리 모든 존재가 광명 세계 속에 살고, 또 자체가 광명인데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본지풍광(本地風光)⁴⁹⁾이라 합니다.

본지풍광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모든 상대를 부처님으로, 부모로,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를 딛 데 가서 구할 것 없습니다. 현실이대로가 절대 아니냐 말입니다. 근본 요는 어떻게 하든지 하루바삐 이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 광명에서 마음눈을 뜨고 광명을 한시 바삐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시 마음의병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본시 마음에는 병이 없습니다. 아까도 명경이야기는 했지만, 본시 명경은 환하게 온천지 모든 것을 다 비춥니다. 그런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안 비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니 무슨 마음을 새로 만들고 새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본래 눈을 되찾자, 이것입니다. 거울의 먼지를 닦으면 본래 거울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거울에 낀 때를 닦아내고, 본마음을 찾을 수 있나? 제일 빠른 것은 참선을 해서 화두를 바로 깨치면, 그때는 거울에 있는 일체 때가 다 벗겨져 버립니다. 본 거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광명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나 하면, 이 거울에 묻은 때는 욕심 때문에 묻어 있는 것이니까, 욕심을 버리자 이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남을 돕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남을 돕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차차로 업이 녹아져 없어집니다. 욕심이다 없어져 버리면 마음거울에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온천지광명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시 천당에 살고 있고, 본시 극락에 살고 있고 본시 헤탈한 절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가, 흉덩이인가, 똥 덩어리가,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전체가 다 진금(眞金)입니다. 본시 순금인줄만 알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행복 하느냐 말입니다. 천하부귀

49) 본래면목이라고도 하고, 부모에게서 나기 전 면목(父母未生前面目) 또는 천진면목(天真面目), 법성(法性), 실상(實相), 열반, 보리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법정, 2008 : 274).

를 다 누린다 해도, 내가 본시 진금인 줄 아는 이 소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근본 가치는 본시 이대호가 절대라는 것, 광명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으니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자 이것입니다(성철, 1993 : 202-203).

2) 법정의 선사상(禪思想)

정휴스님(2011: 2. 28)은 법정스님에 대해 50년 전에 이미 선의 진수를 깨닫고 있었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안목과 존재의 핵심에 도달해 있었다. 법정스님은 깨달음과 닦음의 대상은 곧 자기 자신과 중생이라고 항상 주장하였으며 자기의 깨달음이 이웃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깨달음은 중생을 잃은 깨달음이며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의 완성이자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정의 선사상을 선사상의 핵심(核心)과 선사상의 특징(特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의 선사상의 핵심(核心)

선사상의 핵심은 지혜(知慧)와 자비(慈悲)이다.

법정(2009 : 194)은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며, 청정한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없는 자비의 행을 통해 지혜가 싹트고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는 경지에 도달하며 이것이 수행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 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명상이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늘 지켜보는 일이다. 그 다음은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길이다(법정, 1998 : 169-170).

지혜를 가르쳐 무이지(無二智)라고 함은 자비와 근원적으로 둘이 아

나라는, 다르지 않다는 뜻에서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와 자비는 우리들의 청정한 본심인 동시에 거기에서 파생된 작용이기 때문이다. 지혜와 자비의 완성을 열반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건너는 일」과 「건지는 일」은 떠날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가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반야심경(般若心經)가운데, 보살이 심오한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이 공(空)한 줄 알고 일체의 고액(苦厄)을 건져야 한다.⁵⁰⁾는 구절이 있다.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즉 먼저 일체중생의 고난을 건져야 한다는 이 말은 자비의 실천 행을 강조한 것이다. 자기 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의 고통과 재난을 건져줄 때 비로소 자신도 건널 수 있다는 뜻이다(법정, 1978 : 184-185).

법정의 선사상의 핵심인 지혜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혜(智慧)

먼저 지혜의 용어에 대해 사전적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용어사전(2009 : 96)에는 반야(般若)를 지혜(智慧)와 동일하게 보며 지혜, 혜(慧) 명(明)이라 번역하며 법의 실다운 이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 이 반야를 얻어야만 성불하며 반야를 얻는 이는 부처님이므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 또는 어머니라고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불교사전(김승동, 2015 : 1035-1036)에는 지혜는 알다 [知] 라는 동사 jñā에, ‘앞으로’ 또는 ‘가다 [法]’라는 뜻이 있는 접두어 ‘pra’를 붙인 동사의 명사형(名詞形)으로 예지(叡智) 지식 등을 뜻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반야지혜’라고 하여 분석적 개념지(概念知)를 벗어난 직접적인 심적 작용으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직관지(直觀智)라고 하는데, 곧 일체를 무아(無我)이며 공(空)으로 파악하는 지혜를 뜻한다. 지혜는 불교를 실천 수행한 결과이지만, 불교실천의 기본구조는 삼학, 즉 계학(戒學)·정학(定學)·혜학(慧學)이다. 생활의 규

50) 觀自在菩薩 行心般若婆羅蜜多 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법이 되는 계를 지키며, 선정(禪定)과 삼매(三昧)에 따라 수련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계학은 정학의 준비이며 정학(定學)은 혜학(慧學)의 조건수단이다 정의하고 있다.

법정은 지혜(智慧)에 대해서 보리달마는 ‘관심일법 총섭제행(觀心一法 總攝諸行)’이라 말하였다. 즉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현상을 거두어들이다.’는 뜻이다.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지혜는 명상으로부터 온다. 지식은 밖에서 오지만 지혜는 안에서 움튼다고 하였다(법정, 998 : 143-144). 또한 지혜는 딴 데 있지 않고 어리석음이 사라진 그 자리이며, 사랑 또한 미움이 가시고 난 바로 그 자리이다. 그래서 번뇌가 보리(도)를 이루고, 생사가(열반)에 이르는 디딤돌이라고 한 것이라 하였다(법정, 2010 : 155).

법정(1994 : 94-95)은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지혜의 특징을 <표 15> 로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지혜(맑은 마음· 본래의 마음)의 세 가지 특징

| |
|--|
| <p>맑은 마음, 본래의 마음은 세 가지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p> <p>투명함이 그 첫 번째 특성입니다.</p> <p>투명함은 지혜입니다. 우리의 참본성이 지닌 본래의 투명함은 모든 것을 비추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투명함에 도달한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고, 투명함이 가려진 상태를 무지 또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이 근본적인 투명함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p> |
| <p>맑은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은 무한한 능력입니다.</p> <p>투명함에 이른 사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능력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 시키겠다는 마음으로까지 확대됩니다.</p> |

맑은 마음의 세 번째 특성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곧 이웃과 나눔이고 배움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양을 할 때 감사의 계송을 외웁니다. ‘삼륜청정(三輪淸淨), 삼륜공적(三輪空寂)’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울 때 이 세 가지 것이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받는 쪽도 그저 고마운 마음 외에 다른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주는 매개체인 물건도 청정한 것, 어디에 내놓아도 멧멧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온전한 보시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관계입니다. 그것을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연기법의 공식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라가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과 친척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것도 연기법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은 지혜에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지혜를 마음의 맑은 마음과 본래의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아함 염처경(中阿含 念處經)〉 경전에 나와 있는 지혜에 이르는 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며, 고뇌와 슬픔을 없애고 바른 법을 얻게 하는 뛰어난 길이 있다. 그것은 곧 사념처법(四念處法)이다. 과거 모든 여래도 이 법에 의해 최상의 열반을 얻었고, 현재와 미래의 여래도 이 법으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열반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온갖 번뇌와 갈등이 사라져 평온하고 청정하게 된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킨 말이다. 니르바나(nirvāna)란 번뇌

의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 그래서 적멸(寂滅)이라고도 번역한다. 그 열반(깨달음)에 이르려면 다음 네 가지 몸(身), 느낌(受), 마음(心)과 현상(法)에 대해서 똑바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정진하여 바른 생각과 지혜로써 세상의 허욕과 번뇌를 끊어버려야 한다(법정, 2000 :168).

법정은 지혜(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와 실천해야 할 삼학(三學)과 팔정도(八正道)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2010 : 209)은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에 보면 네 가지 고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성제'라고 합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누구의 삶에나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또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미운사람을 만나야 하고, 육신에는 늘 온갖, 욕망이 차오르고, 그 밖에도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바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럼 고통은 왜 괴로운가?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물론 어렵지만,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육신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옷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옵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이 오지 않습니다.

둘째,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삼학(三學)의 실천은 다음과 같다.

삼독 번뇌인 탐욕과 증오와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계(戒), 정(定), 혜(慧)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 탐욕은 자기분수를 알고 지키는 청정한 생활규범인 계율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증오는 순수한 집중인 선정(禪定)에 의해서 그 분노와 들뜸을 삭일 수 있으며, 무지는 지혜에 의해

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 정, 혜, 세 가지를 배워야 할
바라고 해서 삼학이라고, 한다(법정, 1993 : 215).

셋째, 지혜의 완성의 위해서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이 필요하다

명지(明知)는 모든 선행(善行)을 달성시키는 실마리이다. 명지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서 바른 견해가 일어난다. 바른 견해가 있는 자에
게서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바른말이 나오고 바른 행위와
바른 생활과 바른 노력과 바른 기억과 바른 집중력(정신통일)이 일어난
다. 바른 집중력을 지닌 자에게 바른 지식이 생기고 바른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바른 해탈이 일어난다(법정, 1993 : 214).

팔정도⁵¹⁾는 여덟 가지 바른길인데, 그 첫 번째가 정견(正見)입니
다.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것
입니다.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
른 견해입니다(법정, 2010 : 209-210).

부처님 당시의 초기불교에서는 그 실천덕목을 정견(正見)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다. 불타를 호칭하여 「눈이 있는 이여」
혹은 「눈을 뜬 이여」라고 한 것도 바로 개안을 통한 해탈에 의미를 두고 있다.
즉 「벗어남」을 가리킨 것이다 하였다(법정, 1978 : 180-181).

불타는 개인의 해탈이 일반 대중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교도(바라문수행자)의 질문을 받고 아래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법정, 1978
:182).

‘바라문이여, 당신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기에 한 정각자(正覺者)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시다. ‘이

51)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한 가르침의 하나이다. 사제설(四諦設)가운데 제 4 도제(道諦)에 해당한다.
고(苦)의 멸(滅)을 실현하는 8가지 방법, 즉 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
(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다(김승동, 2015 : 1138).

것이 길이요 실천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었다, 너희들도 번뇌를 끊고 해탈을 하라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하여 자유를 얻었을 경우 당신이 물은 것처럼 개인의 해탈이 자기 한사람만의 일이겠소?’(中阿舍 143, 상가바라경).

정견(正見 : 바른견해) 즉, 진정한 견해는 팔리어로는 ‘삼마디티’라고 하는데 ‘삼마’는 ‘바르다는 뜻과 함께 ‘완전한’, ‘완성된’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을 두루 포함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바른 것이라는 소식인데 따라서 ‘바른 견해’는 ‘완전한 견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완전한 견해란 무엇인가? 개인의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 깨끗하고 더러움, 있음과 없음의 편견을 벗어난 한가운데(正中)의 견해 중도의 견해가 그것이다. 사람과 사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다 하였다(법정, 2010 : 211).

법정은 정견(正見)에 대한 임제선사의 ‘진정한 견해(眞正見解)’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임제선사는 ‘진정한 견해(眞正見解)’를 말했습니다. 진정견해는 일체의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스님은 선을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진정견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정견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진정견해에 통달하여 두루 밝게 되어야 비로소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진정견해를 구해야 한다. 만약 진정견해를 얻는다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워서 수승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수승함이 자연히 올 것이다.” 바른 견해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마음이 청정하고 견해가 바르면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법정, 2010 : 210).

법정은 지혜인 ‘바른 견해’에 대하여 무엇보다 이 세상에 불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보는 눈이다. 모든 존재가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

할 수 있다면 세상의 갈등과 문제들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지나다가 한사람이 가게에서 빵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를 주인에게 신고하거나 붙잡아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지혜의 눈은 그가 돈이 없어 며칠을 굶었음을 볼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빵을 훔친 것이다. 이 올바른 판단은 자비의 마음이 싹트는 계기가 된다. ‘바른 견해’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집의 주춧돌과 같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바르게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수행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 바르게 보지 못한다. ‘바른 견해’는 현상에 머물지 않는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보고, 그것에서 해답을 찾는다고 하였다(법정, 2010 : 211-212).

법정(2001 : 287-288)은 ‘바른 견해’인 지혜의 영역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덕산선감(789-865)선사는 젊어서 《금강경》에 통달, 그의 속성인 주 씨를 들어 주금강(周金剛)이라고 할 만큼 《금강경》에는 제 일인자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시골 떡장수할머니의 물음에 답을 못하고 찢찢 매었다. 그는 문자로 된 《금강경》에는 통달했을지 모르지만, 문자 밖의 소식에는 깜깜이었던 것이다. 지적인 이해에는 앞섰지만 종교적인 체험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지적인 이해는 지식의 영역이고 머리로 하는 분별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체험은 지혜의 영역이고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는 삶의 세계이다. 지적인 이해는 그 시선이 향시외부로 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체험에는 눈과 귀와 그 밖의 모든 감각이 내면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마음 밖에서 찾지 않고, 마음 안에 간직된 것을 캐내는 일이다.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식이 한때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면 지혜는 씨앗을 움트게 하는 대지이다. 모든 생명이 거기에서 움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다.

법정은 ‘바른 견해’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혜의 밭을 개간하려면 지금까지 쏘아지고 다닌 짐을 일단 부려놓아야 한다. 모든 생각을 쉬어야 한다. 채우려고만 했던 생활습관을 바꾸어 텅텅, 비어야 한다. 텅 비어야 메아리가 울리고 새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허리를 바짝 펴고 어디에도 기대지 말고 바닥에 편히 앉으라. 그리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고르게 하라. 마음을 한곳에 모으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고? 곰곰이 생각을 안으로 펼쳐보라. 망상이 떠오르면 망상인줄 알고, 졸음이 오면 번쩍 깨어나야 한다. 처음 앉으면 누구나 다리가 아프다. 그러나 아픈 생각에 팔리지 말고 아픈 줄 아는 그 놈이, 무엇인고를 거듭 추궁해보라. 농부들이 대지를 경작하는 데는 많은 힘이 든다. 마음 밭을 일구는 일인들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지기까지는 힘이 좀 든다. 그렇지만 평생사로서 언젠가는 익혀두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불교를 알고자하는 사람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무엇보다 먼저 부처님의 앉은 자세부터 본받아 익혀야 한다. 부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그 일이 곧 대안락(大 安樂)의 법문이고, 당당하게 살아있는 자기모습이다(법정, 2001 : 288-289).

‘바른 견해’인 지혜에 대해서 법정은 구경(究竟)에서는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선과 악이라는 서로 대립된 기초윤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입장으로는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 행위는 저절로 선에 일치되고 대립을 남기지 않는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더라도 ‘바른 견해’를 가진 행위는 저절로 바르다는 논리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또한 자유로운 해탈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흰 연꽃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듯이, 당신(부처님)은 선악의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숫타니 파타 547》

넘쳐흐르는 애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此岸·악)도 저 세상(彼岸·선)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묶은 허물을 벗어버

리듯이.’ 《숫타니 파타 3》 (법정, 1993 : 218-219).

② 자비(慈悲)

자비의 용어에 대한 사전적 해석을 살펴보면 불교사전에는 자비는 타자(他者)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나타내는 것이 본의(本義)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지혜와 병행하여 중심적인 개념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승동, 2015 : 938)).

법정(2009 : 68)은 자비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평생 많은 위대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자비’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야기 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비의 실천이 있었기에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주제로 삼았다면 불교는 종교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정(1978 : 183)은 자비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한 사랑 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르는 사랑이며 불교가 사회적인 실천윤리의 바탕을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비이다. 중생을 사랑하여 기쁨을 주는 것을 자(慈)라 하고, 중생을 가없이 여겨 괴로움을 없애 주는 일을 비(悲)라 한다. 그러므로 자비는 인간성의 승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자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초기 불교경전을 통해 나타나 있으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해탈한 너희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길을 떠나라.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을 가없이 여기고, 이세상의 의리와 이익과 안락을 위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함께 가지 말라. 시종여일하게 알찬내용과 다듬어진 말로 법을 설하라 순일 무잡하고 청정한 행동을 실

지로 보여라…」(律藏 마하아박가 제 1권).

석가모니의 이와 같은 말은 단순한 전도의 선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의 발음인 것이다(법정, 1978 : 181-182).

법정(1994 : 112)은 자비의 실현과 사랑의 실천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으며, 종교의 본질은 자비의 실현이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 없이 깨달음이 어떻게 견성이 무엇이라 지껄이는 것은 빈 골짜기를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가 어느 문화현상보다 뛰어난 것이라면 자비의 실천인 이 나누어 가짐 때문이다. 내적인 진리의 세계를 체험했다면 보편적인 중생계까지 그 기량이 미쳐야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깨달았노라고 자처하면서 그 기량이 중생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되었건 그는 가짜이다. 왜냐하면 옛 부처님과 조사들이 한 결 같이 지혜와 자비의 그 길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법정, 1994 : 89).

법정은 타인을 통해 자비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비의 실천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자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이 있기에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상으로 인해 비로소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움이 틈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 나를 일깨워주는 선지식(善知識·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마주치는 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법정, 2009 : 72-73).

그러면서 법정은 자비의 실천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오로지 이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지혜도 자라는 것이지, 무엇인가 깨닫는 그것만으로 지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야바라밀(지혜의 완성)란 말을 우리는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통해서 수없이 외우고 있지만 무엇이 지혜의 완성인지 곰곰이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 반야를 돌

이 아닌 지혜(無二智), 혹은 차별이 없는 지혜(無差別智)라고 하는 것도 지혜와 자비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맑은 심성인 보리심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발하지 않고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움틀 수 없다. 우리가 보살계를 받아 지니는 의미가 바로 여기다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자비의 싹을 틔우려는 다짐이다(법정, 1994 : 112-113).

법정(1978 : 251-253)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비(悲)의 윤리, 새로운 비의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 시대와 사회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석가모니 불타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현대 메카니즘의 위력에 짓눌려 비인간화로 치달고 있는 인간의 위기 앞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의 윤리일 것 같다. 모든 존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일으키는 일이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세상에 있음이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 것은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뜻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함께 의지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한 연기사상(緣起思想)은 모든 존재의 상의(相依)상관(相關)관계를 말하고 있다. 인간관계 또한 연기의 이법(理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서로의 의지해 함께 맺어져야 할 인간관계가 단절의 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저마다 자아(自我)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중략>

비(悲)는 남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함께 신음한다는 뜻이다. 대승보살의 마음은 너와 나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 웃이 겪고 있는 슬픔이 곧 내가 겪는 슬픔이다. 왜냐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모든 존재는 하나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비, 즉 남이 겪고 있는 괴로움에 대한 공감은 우리들이 말하는 동정(同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동정이란, 내 자신은 상처받음 없이 남을 쓰다듬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 유마힐은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으며 중생이 병에서 벗어나면 내 병도 없어진다.』라고 했다. 그리고 『보살의 병은 대비(大悲)로부터 생긴 것이다.』라고도 한다. 이것이 자비보살의 본질적인 생리다. 대승불교에서 무연(無緣)의 대비(大悲)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근거에서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남에게 바치는 일이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의식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무연의 대비에 의해서만 우리는 상호 불신과 증오와 투쟁과 그리고 단절의 심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비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민족사는 고사하고 교단자체도 이끌 수 없을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개인의 해탈의 자유보다 이타(利他)구제의 사회보장을 앞세운 근거도 바로 비의 전개에 대승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은 주는 일(布施)로부터 시작된다. 주는 일은 타인과의 관계 즉 실천적인 성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특성 중에 대승보살의 사상인 보살사상은 곧 자비의 실천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제쳐두고 먼저 이웃에 눈을 돌려 나누어 가지려는 염원이다.

법정은 보살사상의 주체인 보살이 보살(菩薩)의 정신인 자비를 어떻게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불타(佛陀)의 사상을 몸소 구현하는 사람을 보살(菩薩)이라고 한다. 보살이란 구도자란 뜻이기도 한데, 그 보살의 정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비에 있다. 자비란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자(慈)와 비(悲)의 양면성을 지닌 근원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즉 중생(모든 이웃)을 사랑하여 그에게 낙을 베푸는 것을 「자」라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겨 그가 겪는 고통을 함께 신음하면서 건져주는 것을 「비」라 한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곧 자기 자신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동체대비(同體大悲)라 하고, 그러한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두루 행한다는 뜻에서 무연대비(無緣大悲)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보살의 자비는 중생을 위해 있는 것이다(법정, 1978 : 188-189).

보살의 정신은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도 보살이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모든 이웃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이나 성자와 같이 하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길을 가르쳐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라. 이와 같은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하라. 이웃의 뜻에 따르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고, 이웃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 부처님을 존중하고 받드는 일이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으로 인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법정, 2001 : 392-393).

법정(2009 : 193)은 보살의 정신인 자비에 이어서 보살의 마음에 지녀야 할 자비심과 보리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의 청정한 본성이 곧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참선 잘하고 경전 잘 암송한다고 해서 자비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자비심과 보리심을 기르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본질적인 길이며 핵심입니다. 보리심은 진리를 깨달아, 그 깨달음으로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원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지나가는 짐승들을 보면 “발보리심 하라”고 말합니다.(여시축생발보리심(如是畜生發菩提心) ‘너는 비록 짐승이지만 보리심을 익혀라’고 가르치는 말) 옛날 어느 스님에게서 들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소에게 “발보리심 하라”고 말하니까, 그 소가 스님을 쳐다보면서 “음매—”하는데, 마치 “너는?”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책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리심을 발했을 때, 남에게 보리심을 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전해집니다. 보리심과

자비심은 그토록 따뜻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전해집니다. 이기심은 냉혹하고 차디찬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기 자신도 건디지 못하고 남도 차갑게 만들지만, 자비심은 자기 자신도 훈훈하고 이웃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법정(2009 : 376)은 경전에 나오는 대승보살로서 한없는 자비심과 보리심의 상징인 산티데바(寂天)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7세기 대승불교의 큰 스승 산티데바(寂天)⁵²⁾를 이야기한다.

산티데바는 대승불교학자로서 대승 수행자의 이상은 자타평등에 있고, 자타를 융합시키는 일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사회윤리를 강조한 것이다(법정, 1978 : 185).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위의 시에서 말하는 ‘남’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이고 보다 큰 자기 자신이다. 산티데바((寂天)는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를 두고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왕자였던 그는 어느 날 꿈에서 문수보살을 만난다. 그는 문수보살로부터 “왕의 자리는 지옥과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왕위계승에 회의를 느낀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위를 계승하게 될 전날 밤에 왕국을 몰래 빠져나와 날란다사(那爛陀寺·중인도 마가다구의 절. 세계 최초 대학인 날란다 불교대학이 있었다)로 가서 출가한다. 인도불교의 역사를 보

52) 7세기 인도 날란다 대학에서 대승사상을 펼친 불교 시인. 남인도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해탈불모(解脫佛母)가 문수보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며, “왕국은 지옥의 열탕과도 같다.” 고 말하는 꿈을 구고 왕위로 오르기 하루 전에 출가한다. 중인도 날란다에서 지나데바에게 출가하여 산티데바란 이름을 얻었다.

면 부처님을 비롯해 왕자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왕위 계승권을 버리고 출가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산티데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정, 2009 : 219).

둘째, 지장보살(地藏菩薩)⁵³을 이야기 한다.

지장보살은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단 한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받고 있는 한,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분을 성불을 원하지 않는 보살이라 해서 ‘비증보살(悲增菩薩·남을 이롭게 하기로 원을 세우고, 자비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생사의, 세계에 있으면서 속히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보살)’이라고 합니다(법정, 2009 : 222).

법정(2000 : 164)은 보살이 지녀야 할 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비를 베푸는 보살에게는 원(願)이 필요한데 보살(사람)은 원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원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삶의 지표이다. 삶에 뚜렷한 지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 욕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지만, 원은 나와 남이 함께 추구하고 누리는 사회적인 희망이요 복지다. 이런 원을 통해서 사람은 거둬거둬 새롭게 형성되어 갈 수 있다. 원이 없는 사람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때그때 땀질 인생으로 노상 비틀거린다. 그러나 큰 원을 세우고 살게 되면 그 원으로 인해 순간순간의 삶이 아무렇게나 소홀해질 수 없다. 원래 원이란 말이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대사회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소망 안에 개인의 욕구는 용해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부처님은 보살의 10 가지 원(願)과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큰마음이란 어떤 것

53) 일체중생을 지옥으로부터 모두 건지기 전에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보살이다. 지장은 범어로 Ksitigarbha라고 한다. ‘Ksiti’는 땅을 의미하고 ‘garbha’는 태(胎)·자궁(子宮)으로 번역되는데, 포장(包藏)한다는 의미이다. 곧 지장(地藏)은 대지(大地)와 같이 만유(萬有)의 모체이며, 만유를 평등하게 자라게 하고, 성취시키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이다(김승동, 2015 : 1034-1035).

인가 보살은 열 가지 원을 세운다고 하였으며 보살의 열 가지 원에 대해서 법정(2000 : 163-164)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첫째, 이 세상을 청정하게 정화시키겠다.
- 둘째, 모든 존재에 집착을 버리겠다.
- 셋째, 모든 이웃과 뜻을 같이하겠다.
- 넷째, 모든 이웃을 구제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다.
- 다섯째, 모든 이웃을 구제할지라도 한사람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두지 않겠다.
- 여섯째, 모든 법(현상)에 생멸이 없음을 깨닫겠다.
- 일곱째, 밝은 지혜의 마음으로 6바라밀(보살행)을 수행하겠다.
- 여덟째, 지혜를 닦아 모든 법을 알겠다.
- 아홉째, 모든 법이 공하여 자취(相)가 없음을 알겠다.
- 열번째, 자취가 없기 때문에 그 실상을 깨닫겠다.

위의 이 열 가지 원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보살의 원이 큰마음임을 알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한 원은 없으며, 법정(2000 : 164)은 현대인들이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을 세운다면 시들한 일상이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하고 있으며 원자체가 마침내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 말하고 있다..

(2) 법정의 선사상(禪思想)의 특징(特徵)

선사상의 특징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무소유 청빈사상과 불교와 타종교의 화합사상과 자연과 생태주의 사상 및 ‘맑고 향기롭게’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무소유(無所有)정신의 청빈사상

법정의 무소유정신의 청빈사상은 스승 효봉선사를 비롯하여 법정과 교류하였던 선사들인 운허법사(耘虛法師)⁵⁴⁾, 문성선사(汶星禪師)⁵⁵⁾, 금봉선사(金峰禪師

56), 청담선사(靑潭禪師)⁵⁷, 명봉(明峰)스님⁵⁸, 영암선사(映岩禪師)⁵⁹ 구산선사(九山禪師), 자운선사(慈雲禪師)⁶⁰, 지월선사(指月禪師)⁶¹ 등의 선사들을 통해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매사에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만족해 하였으며 몸소 무소유정신의 청빈생활을 실천하였던 분들이었다.

김세중(2011: 7)은 법정스님의 비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정스님은 평소 우리에게 비움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비워내는 자세를 수행해야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삶이 피로운 것은 소유를 집착하는 비이성적인 열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비움에 설법하시길 비움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되 얽매이지 않는 의식이 진정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
- 54) (1892-1980), 속명은 학수(學洙) 법호는 운허(耘虛)이며 법명은 용하(龍夏)이다. 젊은 시절 신혼의 단꿈을 뿌리치고 홀로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이고, 학교를 설립 운영해 교사로서 후학양성에 힘썼다. 30세 되던 해 국내에 잠입해 활동하다 왜경에 쫓겨 금강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경송(慶松)스님, 월초(月初)스님을 만나 출가한다. <능엄경> <무량수경>, <법방경> 등을 번역했으며, 최초로 불교사전을 펴냈고, 1964년 역경원장의 책임을 맡아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한글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우렸다. 춘원 이광수의 형이다(법정, 2010 : 358).
- 55) (1897-1997), 속명을 문성이라 하였다. 1911년 옥천사에서 채서옹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계를 수지 하였으며 1919년 진주 호국사에서 호은(虎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였다. 1997년 7월 입적하였다. 이때 나이는 100세. 법랍은 86세였다(<http://boeg.naver.com/samjung>).
- 56) (? -1959년), 법정이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해인사 선원 조실이었다. 1950년대 중반 불교정화 운동의 산실인 서울 안국동 선학원엔 효봉, 동산, 금오, 청담선사 등 선지식이 머물고 있을 때 같이 지내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 사람들이 피하자 훗날 중정을 지낸 효봉선사는 꾸짖었다고 한다(조현, 2013: 91-93).
- 57) (1902-1971), 법명은 순호(淳浩), 법호는 청담(靑潭)이며, 성은 성산이씨 이름은 찬호이다. 진주공립 농업학교를 졸업하여 1927년 일본으로 건너가 송운사의 아카모토에서 불도를 닦아 득도하였다. 이듬해 귀국하여 개운사 불교전문 강원의 대교과를 졸업 하였다. 1968년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불교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최석환, 2012 : 104).
- 58) 법정이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강주로 계시던 스님이었고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강의하였다(법정, 2000 : 149).
- 59) (1907-1987), 1924년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봉은사, 해인사주지, 제4대, 11대 조계종총무원장을 역임했다. 1933년 월정사 한암선사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법정이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총무로 계셨다(<http://blog.daum.net/jeongdaepower/>).
- 60) (1911-1992), 청정계율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율사이다. 보조국사의 가사와 장삼을 모델로 삼아 현재 조계종 입는 옷을 만들어 냈으며, 스님뿐 아니라 재가자들이 지켜야 할 각종계율을 모두 정리하여 조계종의 선풍을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법정, 2010 : 367).
- 61) (1911-1973), 법정이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 해인사 선원의 유나로 계시면서 스님들을 지도 하였다. 25세에 범어사의 일봉(一鳳)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때 받은 법명은 병안(炳安), 법호는 지월이다. 이후 만공선사의 화상에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다(조현, 2013 : 234-235).

장영우(2011 : 1105호)은 법정의 무소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거꾸로 무소유를 주장한다는 법정이 한 이야기는 무소유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통찰한 결과이다. 스님이 강조하는 무소유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주어진 빈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한 청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정이 무소유 청빈사상을 깊게 체험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무소유정신에 대해 더욱 더 깊게 체득하게 된 것은 다래헌 시절에 어떤 스님이 선물한 난을 키우면서 체득한 체험을 통해서이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 있는 난초(蘭草)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헌(茶來軒)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중략>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생 달처럼 항상 청청했었다. <중략>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耘虛老師)를 뵈러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갠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중략>

아차! 이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려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빛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執着)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중략>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훌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제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더듬하게 되었다고 할까(법정, 1993 : 31-33).

법정(1993 : 34)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쯤 생각해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이니까.

법정(1996 : 67)은 청빈(淸貧)한 삶을 살았던 양관화상(良寬和尚·1758-1831)에 대한 이야기를 나까무라 고오지의 저서 <청빈의 사상>에서 <양관 이야기(良寬物語)>의 일화집 일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양관화상이 한 산중의 보잘것없는 초암(草庵)인 오홉암(五合庵)에서 지낼 때다. 오홉암이란 하루 다섯 홉씩 한사람이 겨우 살아갈만한 식량을 본사에서 대준 데서 온 이름이다. 그러나 양관이 이곳에서 지낼 때는 그 다섯 홉의 식량마저 공급이 끊겨 손수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다가 근근이 연명을 해야만 했다. 이런 가난한 암자에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 낮에는 깔고 앉아 좌선을 하고 이불이 없어 밤에는 덮고 자는데, 도둑은 그 방석을 훔쳐가려고 했다. 스님은 도둑인 줄 알면서도 그가 놀랄까봐 모로 돌아누워 그 방석을 손쉽게 가져가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온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이불 짐을 떼고, 스님을 찾아온다. 사나이는 몇 해 전 가난한 암자에서 방석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빈다. 그때 그는 스님이 일부러 자는척하면서 방석을 손쉽게 가져가도록한 사실을 알고 더욱 가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분이 어떤 스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불대신 몸에 두른 방석을 훔치고 나온 자신을 두고두고 자책하면서 몇 해를 두고 버르다가 아내와 의논하고 이불을 한 채 들어 왔단다. 스님의 청빈과 너그러움이 말없는 가운데 도둑을 감화시킨 것이다.

양관화상은 32세 때 스승에게서 깨달음의 인정을 받은 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퇴락한 빈 암자만을 골라 가면서, 그 어디에도 메인 데 없이 한낱 가난한 탁발승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73세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양관화상이 수행을 하면서 살았던 청빈한 삶을 노래한 시는 다음과 같다.

욕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구하는바 있으면 만사가 궁하다
담백한 나물밥으로 주립을 달래고
누더기로 겨우 몸을 가린다.
홀로 살면서 노루 사슴으로 벗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논다
바위아래 샘물로 귀를 씻고
산마루의 소나무로 뜻을 삼는다(법정, 1996 : 67-68).

법정(1996 : 68)은 양관화상의 수행을 통하여, 수행이란 곧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욕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을 뜻한다. 수행자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완전히 그것에 몰입한다. 아무것도 그의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먹고 있을 때는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된다. 일을 할 때도 또한 일 그 자체가 된다. 따라서 그는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살며 그의 삶은 활력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임연철(1993 : 5. 24)은 무소유정신의 청빈함으로 살고 있는 법정의 수행에 대해서 ‘법정스님은 혼자 빨감을 마련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고 하였다. 가만히 앉아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24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이다. 스님의 지론으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홀로 있을 때 투철한 자기질서가 없으면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

② 불교와 타 종교와의 화합사상.

법정(1993 : 125)은 종교란 인간이보다 지혜롭고 자비스럽게 살기위해 있는 하나의 '길'이며 모든 종교의 진리는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리그베다〉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현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여러 종교를 두고 생각할 때 음미할만한 말씀이다. 사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불교의 대장경을 읽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조금도 낯설거나 이질감을 느낄 수 없다. 또한 기독교인이 빈 마음으로 대장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빈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데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표현을 빌리면, 종교란 가지가 무성한 한그루의 나무와 같다. 가지로 보면 그 수가 많지만, 줄기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똑같은 히말라야를 가지고 동쪽에서 보면 이렇고, 서쪽에서 보면 저렇고 할 따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에 이르는 개별적인 길이다. 같은 목적에 이르는 길이라면 따로따로 길을 간다고 해서 조금도 허물될 것은 없다. 사실 종교는 인간의 수만큼 많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특유한 사고와 취미와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기독교와 불교를 볼 때 털끝만치도 이질감이 생길 것 같지 않다. 기독교나 불교가 발상된 그 시대와 사회적인 배경으로 해서 종교적인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질의 것이다(법정, 1993 : 124-125)

현장스님(2010. 6. 3)은 법정의 종교교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달라이라마가 제안한 다섯 가지 방법인 첫째, 종교학자들 간의 학술세미나를 통한 교류와 만남, 둘째, 각 종교 수도자들과 영성체험을 나누는 만남, 셋째, 각 종교지도자들의 교류와 만남, 넷째, 이웃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기회를 갖는 것, 다섯째, 사회적인 문제에 종교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것이다 등의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법정은 종교교류의 모범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법정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지 종교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었으며 종교를 바꾸지 않고 믿고 있는 종교 그대로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

군사학 교수인 문현철 박사는 대학 다닐 때에 법정에게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등록금 도움을 받아 무사히 졸업하였으며 그의 후배 한명과 친구 두 사람도 법정의 도움으로 졸업하여 성공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변택주, 2013 : 227).

그는 대학 다닐 때 영세를 받는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퇴원 후 스님을 뵈고 하느님이 계신가를 따지듯이 여쭙어 보았다 그때 법정은 문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고 한다.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천주님이 만화책에 나오는 마술쟁이인 줄 아느냐. 하느님은 큰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도록 힘을 주신다.”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성찰을 이뤄야한다. 이번 일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천주님께 기도해봐라. 아주 오래도록 기도를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변택주, 2013 : 221).

문교수(변택주, 2013 : 222)는 법정이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새로운 시작, 희망 긍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스님은 하느님을 꼭 천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천주님께 기도를 드려라, 열심히 기도드리다 보면 이 사고가 주는 깊은 뜻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이 긍정을 인식하는 촉매제가 되었죠. 그때 스님은 마치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자꾸 저한테 툭툭 통명스런 말씀을 던지기도 하고, 막 뭐라고 화도 내곤 하었죠. 그러면서 스님은 ‘할머니 잘 계시나?’고 물으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뜬하치 말고 자주 오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였어요. 할머니와 스님이 제게 물려준 공통점은 새로운 시작, 희망, 긍정이었어요.

법정은 종교인은 우선 종교적인 현실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

고 있으며, 국지적인데서 벗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열린 눈으로 이웃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종교에 관한 법정과 최인호(2015 : 152-170)와의 대담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인호 : 스님, 우리나라 국민 중 기독교신자, 불교신자를 합하면 6천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대요. 세계적인 종교 왕국이란 말이 사실이죠. 전 세계에서 불교나, 기독교, 카톨릭이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없거든요. 물론 외국처럼 극심한 종교 갈등이나 전쟁은 아직 없습니다만, 종교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정말 비종교적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스님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법 정 : 나 자신도 반성하는 일입니다만, 불교도가 되었던 카톨릭교도가 되었던 그 밖의 다른 종교의 교도가 되었던 가르침의 참뜻을 알아야 하는데 흔히 그 뜻을 왜곡하곤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처신하셨을까하고 미루어 생각해 보면 보편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른 채, 특정상황에서 표현된 지엽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기 때문에 거기 걸려들잖아. 모든 종교에는 착하게, 이웃을 도와가며 살라는 보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요소는 무시 해버리고 내가 믿는 종교만이 올바르고 남의 종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서나 불경의 참뜻도 모르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기지요. 그러니 바른 종교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그런 편견이 없지요.

최인호 : 종교를 가진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위협해지죠.

법 정 : 그럼요.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역사상 많은 전쟁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었지요. 종교인의 현실 참여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충실한다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미뤄둔 채 남의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것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우선 종교적인 현실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국지적인데서 벗어나고 전체를 살펴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린 눈으로 이웃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법정과 최인호, 2015: 165-167)

③ 자연과 생태주의 사상

법정은 삶의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의 교감과 자연 속에서 영감을 느낀다.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의 <마지막 일기> 62)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자연, 살아있는 나무들과 수풀과 꽃과 풀과 흘러가는 구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연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결코 동물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탁광일(1999 : 26)은 법정의 자연적인 삶이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⁶³⁾ 삶과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산중에서 자신의 삶을 표본으로 자연을 가르쳐 주는 진리를 설파하는 스님의 사는 모습과 생각은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를 연상시킨다. <중략>

법정과 소로우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문명세계를 등지고, 대부

62) 1983년 캘리포니아의 오하이 계곡에 있는 그의 집에서 녹음기에 구술해 기록한 것이다.

63) (1817-1862)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28세에 윌슨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그는 노예제도와 멕시코전쟁에 항의해 인두세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한다. 윌슨 호숫가에서 생활한 2년의 경험을 기록한 <윌슨>은 19세기에 쓰인 가장 주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저서 <시민의 불복종>은 세계사를 바꾼 책으로 손꼽힌다(법정, 2010 : 370).

분, 자급자족을 하며 사는 모습이 비슷할 뿐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수도자로서의 모습이나 생각이 닮았다. 두 사람 모두 자연 특히 야생자연을 영혼의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세계로 여행하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야생의 자연은 내면세계로 여행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고독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은 문명인이 갖고 있는 문화, 인습, 편견 등을 모두 벗겨버리고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삶의 원재료가 되는 활력과 영감을 자연으로부터 얻었다. 기술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진보된 문명적 환경은 이러한 삶의 원재료들이 더 생산 되지 않는 지력이 쇠퇴한 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법정이 자연과 생태윤리에 대한 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무상으로 베풀어준다고 하였다.

법정(2010 : 160-161)은 베푸는 자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아득한 옛적부터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 오고 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밝고 따뜻한 햇살과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논밭의 기쁨진흙,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사랑스럽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그리고 생기 넘치는 숲...온종일 주위섬긴다 할지라도 자연의 혜택을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 인간의 대부분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곁에 이런 자연의 은혜가 없다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인데도, 현대인은 고마운 자연 앞에 너무도 무감각하다. 그저 많은 것을 차지하면서 편리하게만 살려고 하는 약삭빠르고 탐욕스런 현대인은, 욕심하게 빼앗겨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인간과 자연은 빼앗고 빼앗기는 약탈과 주종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천적인 삶의 터전이고 배경이다. 문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최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은 어

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파괴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자연 안에서만 우리들 인간도 덜 황폐되고 덜 오염되어, 인간 본래의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지치고 상처받은 인생이 기대고 쉬면서 위로받을 유일한 휴식공간이다. 우리가 살만큼 살다가 죽은 후 차디찬 시신이 되어 묻히거나 한줌의 재로 뿌려질 곳도 또한 이 자연임을 상기해야한다.

둘째, 자연은 인간에게 영원한 모성일 뿐 아니라 위대한 교사라고 하였다. 법정(2010 : 163-164)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연에는 그 나름의 뚜렷한 질서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질서가 있고 뿌려서 가꾼 대로 거두는 수확의 질서가 있다. 가뭄이 심하면 비를 내려 해갈시키고, 홍수가 나면 비를 멎게 하며, 바람을 일으켜 갇혀있는 것을 풀어주고 낡은 것을 떨어뜨리며, 끊임없이 흐르게 하여 부패를 막는다, 밝은 낮에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어둠이 내려 쉬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자연의 질서에 우리들 인간은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익혀야 한다.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나무와 물과 흙과 바위로 이루어진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다. 그것은 커다란 생명체이며 시들지 않는 영원한 품속이다. 자연에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침묵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인류역사상 위대한 사상이나 종교는 벽돌과 시멘트로 쌓아 올린 교실에서가 아니라 때 묻지 않는 대자연속에서 움트고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무들이 청청한 가지를 펼치고 있는 숲속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변에서, 혹은 밤과 낮의 기온차기 심한 침묵의 사막에서 위대한사상과 종교가 움트게 됐다는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시사 하는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환경위기시계⁶⁴⁾는

9시 33분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환경위기사계란 지구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인류존속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기한 것이다.

법정(2009 : 337)은 지구의 생태계는 모든 생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인간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켰고, 또 그 결과 인간 스스로가 왜소해졌으며 부분에 집착해 전체를 내다보지 못한 까닭에 공생공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사실 때문에 그는 생태윤리의 필요성과 실천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법정(2009 : 330)은 생태윤리가 꼭 필요한 배경, 즉 생태윤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는 이 대지는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흙과 식물과, 동물이 서로 조화로운 순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생태윤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지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윤리는 말보다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작은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재산이나 물건은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 준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이다음 세대, 곧 우리의 미래의 필요도 생각해야 합니다. 앓은 자리에서 싸늘이한다면 우리에게도 내일도 희망도 없습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히 다루는 것은 곧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법정(2009 : 330-331)은 생태윤리의 실천은 지구를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색다른 물건을 보면 거기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사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충동구매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그 물건이 지금 나

64) 리우환경회의가 처음 열린 1992년부터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재단이 각 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을 실시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12시가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불안', 9시 이후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나타낸다(법정, 2009 : 388).

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꼭 필요한 것인가를 거듭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리하다고해서 대형할인 매장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장바구니가 아니라 커다란 손수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자동차를 원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쾌적하고 쉽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값비싼 자동차를 보고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부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것이 일으키는 대기 오염과 환경파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배기량이 적은차일수록 환경을 덜 오염시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태 윤리입니다.

셋째, 광고에 속지 말아야합니다.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광고는 생태적 위협입니다. 광고를 대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멀리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여다보지 말고 내려다 보아야합니다. 들여다보면 거기에 빨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해마다 1만 7천 헥타르의 원시림을 엄청난 광고가 실리는 미국의 신문용지를 대기 위해 벌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신문용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비슷비슷한 소식을 전하는, 밤낮 물고 뜯고, 죽이고 사기 치는 소식을 지겹게 전하는 그런 신문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두세 개를 줄이는 것도 생태윤리의 실천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귀중한 시간과 전력과 체력을 무가치한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서 정신을 빼앗겨가며 등신처럼 앉아있는 일상적인 자신을 냉엄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불필요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생태윤리입니다.

④ ‘맑고 향기롭게’ 사상

법정(2010 : 153-154)의 맑고 향기롭게 사상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배경이 되는 사상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하도 혼탁하고 살벌하고 메말라가는 세태이기 때문에, 본래 맑고 향기로운 인간의 심성을 드리내어 꽃피워 보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세상을 타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지낼 때 우리 들레와 자연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질 것이고,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상도 또한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였다.

법정은 1990년 초에 우리나라의 경복궁, 독립기념관 등에서 우리의 연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현대인들에게 ‘맑고 향기롭게’의 마음으로, 세상, 자연을 가꾸며 살아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법정(1996 : 145-147)이 연꽃이 있었던 장소에서 연꽃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사라진 안타까운 마음을 언급하고 있다.

모처럼 독립기념관을 둘러보았다. 한 가지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존경하는 원로화가로부터 작년(1992년)에 들은 말인데 나는 그때의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다.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 정원에, 대해서 관계기관으로 부터 자문이 있어, 연못에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백련(白蓮)을 심도록 했다. 그래서 화가는 멀리 지방에까지 수소문을 하여 어렵사리 구해다가 심게 했다. 그 후 연이 잘 크는지 보기 위해 가보았더니 아, 이 무슨 변고인가, 연은 어디로 가고 빈 못만 덩그러니 있더라는 것.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빈 연못으로 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어처구니없게도 인위적인 제거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안 내판에는 ‘백련 못’이라고, 똑똑히 써져있는데, 8천 평 가까운 그 백련 못에 연은 한포기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독립기념관만이 아니고 경복궁과 창덕궁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꽃 철이 되어 혹시나 해서 어제 빗길을 무릎 쓰고 경복궁과 창덕궁의 비원을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중략〉 경희루 연못도 마찬가지였다. 비원에는 연꽃의 다른 이름인 부용(芙蓉)에서 따온 부용 정(亭)과 부용 지(地)가 있지만 역시 연꽃은 볼 수가 없었다. 불교에 대한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심했던 조선왕조 때 심어서 가꾸어 온 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뽑혀나간 이 연꽃의

수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꽃에게 물어보라. 꽃이 어떤 종교에 소속된 예속물인가. 불교경전에서 연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어지럽고, 흐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다. 불교신자들은 연꽃보다 오히려, 백합이나 장미꽃을, 더 많이 불전에 공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법정의 ‘맑고 향기롭게’ 사상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모임 발족 발원문에 잘 나타나 있다.

〈중략〉 이제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나’를 찾고자합니다. 청정한 마음 한번, 청정한 한 줄기, 청정한 풀씨 한 톨을 행구어 푸른 하늘 아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터가 삭막하고 혼탁하여도, 연꽃이 진흙탕에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자신의 둘레를 맑고 향기롭게 가꾸듯, 우리 또한,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고자 합니다. 부디 남을 탓하기 먼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며, 온화한 인품으로 성냄을,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찾기 전에 나보다 더 불행한 이웃을 돌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한 점 미소를 나누어 가지며, 빛한줄기, 기쁨을 전하며, 풀씨한 톨을 가꾸며 살게 하소서. ‘나’혼자가 아닌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어 종이한 장도 아껴 쓰고, 밥풀하나도 덜 버리는 마음 늘 챙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후일, 우리가 오늘 후손으로부터 빌려서 살 공간 이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바람 한줄기 더한 기쁨 누리게 하소서.

3) 출가 수행자(出家 修行者)의 출가정신

법정은 요즘처럼 물질이 넘치는 현시대에서 청정(淸淨)이 생명인 출가수행자의 출가정신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수행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출가수행자는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

법정은 출가수행자는 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때일지라도 불침번처럼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적인 중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 어떤 종파를 물을 것 없이, 세상에는 종교를 한낱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 이비 수행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대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출가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는지 거듭거듭 물으라. 해답은 늘 그 물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러나 묻지 않고서는 그 해답을 끌어낼 수 없다. 돈을 위해서 수행자가 되었는가. 세속적인 이름을 얻기 위해 집을 버리고 나왔는가? 세상일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인가? 혹은 인간적인 갈등을 피해서인가? 돈과 이름은 노력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행자의 도량은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무엇을 위해 삭발하고 떡물 옷을 걸치고 수행승이 되었는지 거듭 물어라.

둘째, 출가수행자는 가난한 사람이다.

법정은 출가수행자는 청빈한 생활을 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난이란 맑음(淸淨) 그 자체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결 같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수행자는 먼저 가난해야 거기에서 구도의 마음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지천으로 넘치는 요즘 같은 세대에서 그 넘치는 물건들은 무소유를 표방하는 출가 수행자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던지고 일어설 것인지는 하나의 과제다 하였다(법정, 1996 : 343-344) 그러면서 출가수행자가 지녀야 할 맑음(淸淨)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다.

출가수행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가난해야한다. 자신의 분수와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가난 속에서 도심(道心)이 우러난다. 가진 것이 많고 거느린 것이 많으면 출가의 뜻을 잃는다. 옛날의 수행자들은 갈아입을 옷과 바리때(밥그릇) 하나로 족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거처에 집착하지 않고 음식이나 옷을 탐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물론 오늘날처럼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세상에서는 옛날과 같이 살기 어렵다. 그렇

지만, 아니 그럴수록 ‘맑음’을 지키는 일은 더욱 귀하다. 늘 깨어 있는 것이 출가정신이라면 물질의 더미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수행자에게 가난이란 맑음(淸淨) 그 자체이다. 출가수행자는 세속의 자로 재어 가난할수록 부자다. 모자라고 텅 빈 그 속에서 넉넉한 충만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법정, 1999 : 41-42).

셋째, 출가수행자는 홀로 가는 사람이다.

법정은 여럿이 어울리면서도 은자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숨어사는 은자처럼 처신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서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 파타》

넷째, 출가수행자는 큰 원(願)을 세운 사람이다.

법정은 출가수행자는 중생을 생각하는 커다란 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과 욕심은 다르다. 욕심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원은 이타적인 것이다. 원은 삶의 지표이다. 원이 없으면 삶에 생기가 없다. 원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그 원의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수행자는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도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일에만 매이거나 집착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있다. 그 은혜를 수행의 덕으로 갚아야 한다. 자신이 지닌 특성을 묵혀두지 말고 그 특성을 살려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어떤 모임에서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라. 있어도 그만인 그런 반거충이는 수행의 대열에 들 수 없다. 큰 원으로써 이웃에 덕의 그늘을 드리우라.

다섯째, 출가수행자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법정은 출가수행자의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행자의 삶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로지 현재뿐이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산다.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뿐이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늘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일상적인 타성에 물들지 않고 신선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수행자에게 ‘영원한 젊음’이란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움이 트고 싹이 튼다.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잎이 피고 꽃이 피며 마침내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 시간을 아껴 쓰라.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목숨이다. 무가치한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밖으로 한눈팔지 말고, 그대 안에서 찾고 일깨우라.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종점에 이른다.

끝으로 당부의 말이 있다. 이 당부는 그대가 출가 수행자로 지내는 동안 피내어도, 피내어도 마르지 않을 넘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시시로 물으라.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근원적인 물음이다. ‘나는 누구인가?’(법정, 1996 : 345-346)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라고 하고 있다.

위의 법정이 이야기하는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정신을 살펴보면 첫째, 늘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가난한사람 셋째, 홀로 가는 사람 넷째, 큰 원을 세운 사람 다섯째,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깨어있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온 세상이 잠들지라도 불침번처럼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은 청빈한 생활을 원해야 하며, 가난함은 수행자의 맑음이라고 하였다. 홀로 가는 사람은 여럿이 어울리면서 은자같이 살아야 하며, 큰 원을 세운 사람은 큰 원으로 이웃에 덕의 그늘을 드리우라고 강조하였다.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법정의 출가수행자의 수행정신은 구도의 길을 가기위해 세속을 떠나 수행하는 수행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정보화 사회가 주는 기계문명과 물질만능의 공해와 시간에 바쁘게 쫓기며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정신일 것 같다.

2. 차문화(茶文化)

법정(1978 : 68-70)에게 있어 차를 마시는 일은 선을 하는 것과 같다. 차는 은은한 향취와 맑은 빛깔과 미묘한 맛을 느끼게 하며 항상 맑은 정신을 지니게 한다. 혼자서 마실 때의 신묘(神妙)함과 선의 삼매(三昧)에서 느낄 수 있는 선열(禪悅)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차는 선과 같이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

법정의 차문화를 살펴보면 차사상(茶思想), 차생활(茶生活), 다사(茶事), 다구(茶具), 다실(茶室), 다시(茶詩), 다화(茶畫)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법정의 차사상(茶思想)

첫째, ‘다선일미(茶禪一味)’ 정신이다.

‘다선일미’정신은 당나라 때의 고승이자 험산(夾山)⁶⁵⁾의 개산 종조(開山 宗祖)이며 험산사(夾山寺)주지로 있던 선회선사(善會禪師)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선회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다선일미’정신은 송나라 때에 이르자 험산사에서 선회선사의 ‘다선일미’의 법통을 이어 받은 원오 극근(圓悟 克勤)선사에 의해 더욱 일어났다. 선사는 20여 년간 험산사 주지로 있으면서 ‘차와 선의 관계’에만 몰두하여 마침내 다선일미의 참뜻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일필휘지하여 ‘다선일미(茶味)’라는 네 글자를 썼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선풍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⁶⁶⁾

법정은 ‘다선일미’에 대하여 선사들의 깃다거(喫茶去)를 통해서 ‘다선일미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은 무일물(無一物)의 경지에서 비로소 진미(眞味)와 진향(眞香)과 진 색(眞色)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조주선사(趙州禪師)가 찾아오는 나 그네들에게 한결같이 차를 내놓으면서 「차나 마시고 가게」 [喫茶去]

65) 湖南省 常德市 石文縣에 위치.

66) 법흥사 <http://bubheungsa..>

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선가(禪家)에는 차를 소재로 한 선문답(禪問答)이 많다. 협산(夾山) 선사가 어느 날 혼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제자가 찾아왔다. 『그대도 한잔하지』라고 말하니 제자는 다로 곁에 앉는다. 선사는 손수 차를 따라 내놓는다. 제자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려고 할 때 선사는 급히 찻잔을 당기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큰소리로 묻는다. 제자는 어리둥절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만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한 잔의 차다. 그러나 차이면서도 그것은 차가 아니다. 이 한잔의, 차야말로 하늘과 땅을 꿰뚫고, 주인과 나그네를 꿰뚫고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꿰뚫은 본지풍광(本地風光)이어야 한다.

방거사(龐居士)는 선가에서 널리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인 신도이다. 그는 뛰어난 유학자인 동시에 선(禪)에도 조예가 깊었다. 원래는 소문난 부자였는데, 느낀 바 있어 어느 날 그의 전 재산을 몽땅 물속에 던져버리고 청빈한 생활로 돌아간다. 이 방거사가, 그 당시에 이름난 마조선사(馬祖禪師)를 찾아가 물었다. 『온갖 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입에 죄다 마셔버린다면 일러주겠노라』 방거사는 마조선사의 이 말끝에 크게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온 강물을 한입에 마셔버리는 그런 심정 아니고는 진정한 차 맛을 알 수가 없다. 어디 강물뿐인가. 온 세상을 통째로 마셔버려야 비로서 온갖 얽힘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다선일미(茶禪一味)요. 또한 선가의 차 마시는 법이다(법정, 1978 : 73-74).

둘째, 맑고 고요(淸寂)함과 담박(淡泊)하고 검소함이다.

법정의 차사상은 맑고 청적과 담박(淡泊)하고 검소함이라 할 수 있다. 차가 가지고 있는 맑음과 육우의 정행검덕(精行儉德)은 법정의 담박·검소함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차를 마시는데 적합한 사람은 정행검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다경(茶經) 일지원(一之源·차의 근원)⁶⁷⁾에 적고 있다.

67) 茶者南方之嘉木也。一尺二尺迺至數十尺。其巴山峽川有兩人合抱者。伐而掇之。其樹如瓜蘆葉如梔子。花如白薔薇。實如柗櫚。莖如丁香。根如胡桃。(瓜蘆木出廣州。似茶。至苦澁。柗櫚。蒲葵之屬。其子似茶。胡桃與茶。根皆下孕。兆至瓦礫。苗木上抽。)其字。或從艸。或從木。或艸木并(從艸。當作茶。其字出開元文字音義。從木當作柗。其字出本草。艸木并作茶。其字出爾雅)其名一曰茶。二曰檟。三曰設。四曰茗。五曰蔎(周公云。檟苦茶。揚執戟云。蜀西南人謂茶曰設。郭弘農云。早取爲茶。晚取爲茗。或一曰蔎耳)其地上者生爛石。中者生礫壤。下者生黃土。凡藝而不

차의 맛이 지극히 냉하다. 차는 정행검덕 즉, 행실이 올바르고 검박한 덕망을 갖춘 이가 마시기에 적당하다(김진숙, 2001 : 20).⁶⁸⁾

교연선사(皎然禪師)는 다음과 같이 차가 주는 맑음과 청적을 표현하고 있다.

한번 마시면 혼매함을 씻어 마음과 생각의 상쾌함이 천지에 가득하고, 두 번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서 홀연히 비가 뿌려 티끌을 가벼이 씻어내는 듯하고, 세 번 마시면 문득 도를 깨쳐 어떤 괴로움과 번뇌도 닦아준다(김봉건, 2005 : 40-41).⁶⁹⁾

선가(禪家)에서 선승(禪僧)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것은 항상 맑은 정신을 지니려는 약리적(藥理的)인 뜻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생태가 차가 지니고 있는 담백하고 투명한 맛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온갖 걸치레를 훨훨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단순하게 살고자하기 때문이다. 법정은 선가에서 마시는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차를 마시는데 있어서 함께 마시는 사람의 수가 적어야 차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초의선사(艸衣禪師·1786-1866)의 동다송(東茶頌)에 나오는 차를 마시는 사람의 인원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법정, 1978 : 67-73).

차를 마시는 법은 객이 많으면 수선스럽고 수선스러우면, 아늑한 정취가 없어진다. 홀로 마시면 신묘하고, 둘이 마시면 좋고, 서넛이 마시면 유쾌하고, 대여섯이 마시면 덤덤하고, 칠팔 인이 마시면 나눠먹는 먹이와 같다.

법정(2010 : 235)은 서전수칙에서도 차의 청적(淸寂)에 대해 말하고 있다.

實 植而罕茂 法如種瓜 三歲可採 野者上 園者茶 陽崖陰林 紫者上 錄者茶 筍者上 牙者茶 葉卷上 葉舒茶 陰山 坡谷茶 不堪採掇 性凝滯 令人結痠疾 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 若熱渴凝悶 腦疼目澁 四肢煩 百節不舒 聊四五啜 與醍醐甘露抗衡也 採不時 造不精 雜以卉莽 飲之成疾 茶爲累也 亦猶人參 上者上黨 中者生百濟新羅 下者生高麗 有生澤州 易州 幽州 檀州者 爲藥無效 況非此者 設服薺萑 使六疾不療 知人參爲累 則茶累盡矣(陸羽, 『茶經』 상권 <一之源>).

68) 茶之爲用 味至寒 爲飲 最宜精 行儉德之人(『육우 『茶經』 상권 <一之源>).

69) 一飲滌昏寐 情思爽朗滿天地, 再飲淸我神 忽如飛雨灑輕塵, 三飲便得道 何須苦心破煩惱.

그 집에는 차외에는 마실 것도 두지 말아라. 차잔은 세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많으면 그 집에 어울리지 않고 소란스러워, 차의 정신인 청적(淸寂)에 어긋난다.

셋째, 우리민족의 근본문화와 민족정신을 지키는 호국사상이다.

법정은 오랜 전통을 가진 차문화가 우리의 근본문화이고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호국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현장, 2011 : 32)은 현대인들에게 ‘우리 차 마시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차문화를 복원하고 우리의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민족의 근본문화와 우리의 민족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이야기는 우리민족의 호국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차문화는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내려온 생활사(生活史)를 지닌 민족문화이기 때문이다.

법정과 손병철 관장은 우리민족의 근본문화와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차에 관한 이야기를 쌍계사 초당에서 나누었는데 법정과 손병철 관장이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차담(茶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법정스님을 만난 것은 1971년 가을이다.

그 당시 문학친구와 나는 대홍사, 송광사 등 남쪽사찰을 순회한 후 쌍계사에 들렀다. 그날 쌍계사 초당에서 나는 법정스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스님은 수척한 상태였다. 그리고 스님의 분위기보다는 대쪽 같은 선비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이미 법정스님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었던 터였다. 첫 인상에서 나는 당시 내가 제일 존경했던 효봉스님의 상좌라는 생각을 했다. 당대 최고의 학승이자 선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효봉스님의 상좌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당시에도 스님은 차를 매우 좋아하셨다. 그날 첫 대면한 우리에게 차를 권했다.

“쌍계사는 차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쌍계사의 차 맛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차밭이 있고 차가 생산 되지요. 초의선사가 칠불사에서 『다신전』을 채록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중략>

“스님 요즘 차 마시는 사람도 없고 차문화가 멸절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차를 좋아하십니까?”

“차가 불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중요한 음료이자 문화입니다. 수행정진의 도반으로 차를 권했지요. 초의스님께서는 『동다송』과 『다신전』을 통해 우리불가의 차를 복원시켰을 뿐 만 아니라 추사 등 조선시대 지식인에게도 차를 보급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사찰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차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커피문화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적도 없는 커피문화는 우리 근본문화를 뿌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우리 차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근본문화와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손처사 같은 분들이 앞장을 서야지요.” 그날 범정스님은 우리에게 손수 차를 우려 내주시며, 차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중국의 다성으로 불리는 육우의 『다경』을 비롯해 초의스님의 『다신전』, 『동다송』 등 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선보였다(현장스님, 2011:31-32).

2) 법정의 차생활(茶生活)

언젠가 법정을 알고 있던 한 신도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

“스님은 강원도 그 산골에서 혼자서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때 스님은 “시냇물 길어다 차 달여 마시는 재미로 살지요.”(법정, 1999 : 170)라고 하였는데, 대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차와 선이 일체라 생각하고 있으며, 선과 차가 하나가 된 경지인 선차일여, 다선일미를 엿볼 수 있다.

법정의 차생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차에 대해 알게 된 시기, 차를 제대로 알고 마셨던 시기, 마셨던 차의 종류, 계절에 따라 마셨던 차, 차를 선물하였던 지인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사(茶事)는 차생활에서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처음으로 차에 대해 알게 된 시기

법정이 차를 알았던 시기가 출가 후인 20대 행자시절이었다. 그는 차를 처음 알게 된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내가 처음 녹차를 본 것은 20대에 갓 입산 출가한 행자시절이었다.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에 있는 미륵산 미래사(彌來寺)에서였다. 결제일과 해제일에 정례적인 법문이 있었는데, 조실(祖室)인 효봉선사가 법상에 오르면 원주스님이 차를 따라 법상한쪽에 올려놓았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어느 날 선사께서 법문을 하시다가 찻잔을 입에 대기가 무섭게 ‘차가 너무 쓰다’라고 하면서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던 일이다. 그 때의 원주도, 차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맛도 향기도 없는 해묵은 차를 펄펄 끓는 물에 한주먹 듬뿍 넣어 우렸던 모양이다. 그날 법문 끝에 찻잔을 치우면서 맛을 보았더니 그저 ‘쓰디쓴 물’이었다. 이 쓰디쓴 물이 금생에 내가 처음 맛본 차 맛인 셈이다.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그토록 쓰디쓴 물에 입에 대지 않았다(법정, 2000 : 108).

(2) 차를 제대로 알고 마셨던 시기

법정이 차를 제대로 알고 마셨던 시기는 다래헌(茶萊軒)에서 수행정진하고 있을 때 마신 차이다. 이 시기에 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시게 되었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차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봉은사 다래헌에서였다. 동국역경원이 개설되는 바람에 그 일을 거들기 위해 거기 머물렀던 것이다. 마침 그 곳에는 좋은 샘이 있었다. 감로천(甘露泉)이라고 누가 새겨 놓았는지, 그 샘의 이맛돌에 음각으로 새겨 있었다. 차는 지리산 조태연씨 집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상품으로 쳤다(법정, 2000 : 109).

법정(2000 : 76-77)이 다래헌에 있을 때 함석헌선생이 가끔씩 방문을 하여서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함석헌선생님은 이따금 다래헌에 들르셨다. 차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샘물을 길어다, 차를 달여 마시면서 마하트마 간디⁷⁰)며, 칼릴지브란⁷¹)이며 노자⁷²)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함선생님께서 주관한 웨이커모임도 다래헌에서 연 적도 있었다. 그때 참석하면서 번다한 종교의 의식이 없고 마치 참선 같은 웨이커모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3) 법정이 마셨던 차(茶)의 종류

법정이 마셨던 차는 전통차와 대용차를 그때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마셨다. 전통차란 차나무의 어린 순(荀)이나 잎을 채취하여 찌거나 튀거나 혹은 발효시켜 건조시킨 후, 알맞게 끓이거나 우려마시는 것을 말하며 녹차, 홍차, 흑차, 우롱차 등이 이에 속한다. 대용차는 차대신 다른 재료를 이용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식 대용차와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이 생약재료를 이용하여 차처럼 달여 마시던 동양식 대용차가 있다고 한다(이진수, 2015 : 14).

법정은 다양한 종류의 차들 중에서 전통차인 녹차(綠茶)를 가장 좋아하여 주로 녹차를 많이 마셨다. 그리고 연꽃차, 매화차(梅花茶), 매실차 등과 같은 대용차도 마셨다. 또한 지인들이 다양한 차를 선물하여 여러 종류의 차들을 마셨다. 한국차로는 녹차(綠茶), 연꽃차, 차꽃차, 매화차, 매실차이며, 중국차는 자스민차와 용정차(龍井茶)이고, 일본차는 주로 말차(抹茶)를 마셨으며 인도에서 생산되는 홍차(紅茶) 등을 마셨다.

법정이 마셨던 여러 가지 차들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차로는 전통차인 녹차, 차꽃차, 대용차인 연꽃차, 매화차, 매실차를 마셨다. 먼저 녹차(綠茶)에 대해 살펴보면 법정이 직접 불일암에서 소량으로 만

70) Mahatma Gandhi(1869-1948)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인도건국의 아버지이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으로 유명하다. 제 1차 대전 이후 영국에 대해 반·영 비협력운동 등의 비폭력 저항을 전개했다(NAVE R 두산백과).

71) Kahil Gibran(1883-1931)철학자, 소설가, 시인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레바논의 대표작가이다.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인류평화와 화합 레바논의 종교적 단합을 호소했다. 주요작품은 《예언자》가 있다(NAVE R두산백과).

72) 출생-사망 미상으로 중국 고대의 사상가,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이다(NAVE R 철학사전).

든 불일암차, 지리산 조태연 씨 집에서 만든 차, 일타스님이 선물한 비구니가 만든 소량의 차, 현목스님이 선물한 운상차(雲上茶), 지리산 종대스님이 보내온 차, 원화보살이 보내준 반야로(般若露)차, 한국제다 감로(甘露)녹차 등을 마셨다.

법정은 한국제다 감로녹차(甘露綠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며칠 전 불일로 광주에 나간 김에 무등산 증심사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한국제다’에 일부로 들러 차를 좀 구해 왔다. 지난 5월 초순 ‘베토벤(음악감상실)’에서 내놓은 차를 마시다가 눈에 번쩍 띄었다. 어디서 구한 차냐고 했더니 ‘한국제다’에서 엇그제 만든 햇차 감로(甘露)라고 했다. 금년에 마신 햇차중에서 내 구미에는 일품이었다. 그 감로, 단 이슬을 조금 전에 한 잔만 마셨다. 두 잔째 마시면 첫 잔의 그 황홀한 향취마저 자칫 반감될 수도 있으니까(법정, 1994 : 218).

법정은 연꽃차를 마시는데, 그는 연꽃 중 백련(白蓮)을 좋아한다.

연꽃에 대하여 법정(1996 : 275-277)은 중국 북송의 학자 주무숙(周茂叔)이 이야기한 ‘애련설(愛蓮說)’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며 찬탄을 하고 있다.

중국 북송(北宋)시대의 학자 주무숙은 그의 ‘애련설’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오직 연꽃을 사랑함은, 진흙 속에서 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 사심이 없고, 가지가 썩지 않아 흔들림이 없다. 그 그윽한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그의 높은 품격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 한다.’하였다.

법정은 연에 대해 연은 하나도 버릴게 없다. 그 뿌리는 식용과 약으로 널리 쓰이고, 잎은 음식을 싸서 찌는데 쓰이며, 그 열매인 연실은 신선들이 즐겨먹는 음식으로 혹은 약재로 예전부터 쓰였다. 그리고 꽃과 향기는 나같이 철이 덜 든 사람을 천리 밖에서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법정(1999 : 200-201)은 마셨던 연꽃차에 대해서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여름 연꽃차를 마신 이야기를 해야겠다. 연꽃은 날씨에 따라 개

화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맑게 개인 날은 아침 6시쯤에서 꽃이 문이 열리고 저녁 5시 무렵이면 문을 닫는다. 꽃이 피었다가 오픈하려 든다는 표현이다. 연꽃은 나흘 동안 피는데 이틀째 피어날 때의 향기가 절정이라고 한다. 이틀째 피어난 꽃에 주로 벌들이 모여든다. 연꽃차는 이틀째 핀 연꽃이 오픈하려 들 때 한두 잔 마실 정도의 차를 봉지에 싸서 노란꽃술에 넣어둔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꽃대가 꺾인다. 하룻밤 지난 다음 날 아침 꽃이 문을 열기를 기다려, 차 봉지를 꺼내어 차를 우려마시면 연꽃차만이 지닌 황홀한 향취와 마주치게 된다. 이때 보통 차처럼 끓인 물을 식혀서 우리는 것 보다 차디찬 물로 차를 우려면, 연꽃가에서 들던 바로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또한 가지는 꽃한테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고 차의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이틀째, 개화한 꽃을 따서 그 안에 차를 한웅큼 넣고 비닐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꺼내 쓰면 된다고 한다. 옛 도반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나로서는 권할만한 일이 못된다. 1년을 두고 단 한번 피어난 꽃이 너무 애처롭지 않은가.

법정은 차꽃차 또한 즐겼다. 차꽃차에 대해서는 초의선사의 「동다송」에 이에 대한 표현과 형태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동다 송 < 1 송 생장개화 >

<중략> ‘서리 씻긴 흰 꽃 가을 영화로이 피었네.’

素花濯霜發秋榮

동다 송 < 2 송 차 꽃과 차 음 >

<중략> ‘꽃은 들 찔레와 같다.’

花如白薔薇(尹庚嬾, 2006 : 305-306).

법정(2009 : 309)은 차꽃차를 만들어 마셨으며, 만드는 방법과 마시고 난 후의

행복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즘 남쪽 차 고장에는 차꽃이 핍니다. 제가 몇 해 전 겨울 한철을 동해 안쪽에서 지내며 차 씨를 얻어다 심었는데, 작년부터 차꽃이 피었습니다. 차꽃은 모든 꽃이 다지고 난 이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핍니다. 차꽃은 겸손해서 아래를 향해 핍니다. 차꽃에는 베이지색 노란꽃술이 달립니다. 꽃을 따서 향기를 맡으니 찔레꽃향기와 같습니다. 따서 찻잔에 올려 차 한 잔을 마시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거창한 곳에서 찾지 말고, 자기들레의 사소한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은 매화에 대한 기록을 수첩에 적어놓을 만큼 매화를 참 좋아하였다. 수첩을 적어놓은 매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22일, 부풀어 올랐던 매화 꽃망울이 지난밤 휘몰아치는 눈바람에 많이 졌다. 속이 상한다(법정, 2010 : 246).

법정(1999 : 123-124)은 매화가 필 무렵이면 남도의 백운산자락. 광양군 다압면 섬진윗마을에 가서 매화의 아름다움을 구경하곤 하였다. 가서 본 활짝 핀 매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다압면(多鵬面)에 접어들면 동네마다 꽃 속에 묻혀있어 정겨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돌레에 꽃이 있으면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일지라도 결코 궁핍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곳 매화의 절정은 단연 섬진 윗마을에 있는 '청매실농원' 언저리이다. 요즘은 대형버스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닦여있지만 그 전에는 겨우 경운기가 오르내릴 정도의 오솔길이었다. 골짜기와 언덕에 수천그루의 매화가 핀 걸 보면, 아무리 물기가 없는 딱딱한 사람일지라도 매화에 도취되지 않을 수 없다. 기품 있는 꽃과 그 향기의 감흥을 모른다면 노소를 물을 것 없이 그의 인생은 이미 막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다. <중략>

다압 쪽에서 강 건너 북쪽을 바라보면 언덕 위 큰 바위 곁에 올망졸

망 붙어있는 집들이 신선이라도 사는 것처럼 사뭇 환상적이다. 또 화개에서 하동읍으로 내려가면서 바라보이는 강 건너 다압 쪽 섬진마을은 매화로 꽃구름 속에 묻힌 무릉도원이다.

법정(1996 : 323)은 만들어 마신 매화차를 신선들이 마시는 차라고하고 있으며 매화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감로(甘露)녹차에 매화꽃을 한 송이 따서 띄우면 매화차가 된다. 이런 차는 아마 신선들이 마시는 차일 것이다.

그리고 매실차도 담아서 마셨는데, 매실차와 매실을 주는 매화나무가 시들어서 즐기까지 베어냄에 대해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10년 남짓 뜰에서 마주 대하던 매화가 지난여름에 시들어 버렸다. 해마다 3월 초순께 꽃을 피우고 오뉴월이면 열매가 맺혀 매실차를 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봄의 꽃철에도 환하게 꽃을 피웠는데, 열매가 맺히면서 나무가 마르기 시작했다. 그전 같으면 하루가 다르게 열매가 토실토실 여물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열매가 자꾸 작아지는 걸 보고 매화나무에 이상이 생긴 것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꽃을 반겨하고 열매를 거둘 줄은 알면서도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무지한 나로서는 시들어가는 나무에 대해서 속수 무책이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마른가지를 한두 가지씩 잘라내다가 마침에 즐기까지 베어내고 만 빈자리가 몹시 서운했다. 그 매화나무는 이 암자를 지은 대목(大木)의 아들이 산 너머에서 몸소 쳐다가 심어주었다. 자기아버지가 집을 지었으니 자기는 나무라도 한그루심고 싶다는 뜻에서다. 용채라는 그 청년의 고마운 뜻을 꽃이 필 때마다 기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법정, 2000 : 103-104).

둘째, 법정은 중국차로는 자스민차와 용정차(龍井茶) 등을 마셨다.

자스민차는 『불교사전』을 만들기 위해 거쳐하였던 통도사에서 마셨던 차인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960년, 그러니까 4·19 학생의거가 일어난 해였다. 운허스님을 모시고 통도사에서 불교사전카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점심공양 끝에 이따금 차를, 마셨는데, 차시중은 운허노스님 방 시자인 용문이라는 행자가 들었었다. 열대여섯 쯤 마음씨가 좋은 아이인데, 지금에도 남는 기억에도 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고, 옷이 땀에 젖어있어 빨래 좀 자주 해 입어라고, 잔소리를 해준 일이 떠오른다. 이 아이가 차 시중을 들었는데, 펄펄 끓는 알루미늄 주전자에 차 잎을 듬뿍 넣어 가져오곤 했었다. 그 때의 우리도 차가, 무엇이었는지, 차를 어떻게 우리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쓰디 쓴물을 한 컵 가득 훌쩍훌쩍 마셨던 것이다. 중국에서 건너온 자스민 차를 주로 마셨던 것 같다(법정, 2000 : 108-109).

법정은 용정차도 마셨다. 마신 용정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는 금당 최규용(錦堂 崔圭用)선생이 불일암으로 가지고 온 차로써 같이 마신 차 맛에 대해서 법정은 이야기하고 있다.

7, 8년 전이던가, 부산의 금당 최규용선생이 조계산에 오면서 가져온 용정차(龍井茶)의 맛을 또한 잊을 수 없다. 중국에 다녀온 친지가 보내온 차라고 하면서 납작한 여행용차 통에 담긴 차를 내 놓았다. 용정차도 그 등급이 여러 가지인데 바로 그 해에 만든 상품 차였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극품(極品)이었다. 다른 차와는 달리 너댓 번을 우려도 한결같이, 산뜻한 맛이었다. 그 후 많은 용정차를 마셔보았지만 그때의 차 맛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만든 차는 대개 그 제다(製茶)의 연원을 밝히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 사람들은 제다 연원을 밝히지 않아, 햇차인지, 묵은 차인지 마셔보기 전에는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법정, 2000 : 110).

또다시 마셨던 용정차의 차 맛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차를 가까이 하면서 내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그 향기가 배여 있는 차는, 어느 해 겨울 불일암의 다실에서였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해질녘 금당선생이 찾아 오셨다. 주방에 내려가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실에 들어와 밤이, 이숙하도록 차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셨다. 그때 가져온 차가 납작한 껍에 든 용정차였는데, 향기와 맛과 빛깔을 제대로 갖춘, 눈이 번쩍 뜨이는 일급품이었다. 보통 차는 두세 번 우리면 그것으로 그만인데, 그 용정차는 대여섯 번 우려도 한결같은 맛과 향기였다. 그 후로는 같은 용정차인데도 그런 차를 접하지 못하였다. 좋은 차는 좋은 물을 만나야 제 맛을 낼 수 있다(법정, 1996 : 239-240).

셋째, 법정은 일본차도 마셨는데, 마신 차는 말차(抹茶)를 마셨다. 말차란 차나무의 어린 싹을 가루로 만든 차이다.⁷³⁾

정신과 의사인 피상순 박사는 불일암을 방문하였을 때 법정이 차 솔로 거품을 내어 만들어 준 말차를 마셨는데 마신 말차에 대해 그녀는 말하고 있다.

나는 일찍부터 차를 좋아했다. 그런 사실을 안 스님은 나에게 늘 차를 챙겨주었다. 지리산 녹차, 중국차, 일본차뿐만 아니라 귀한 다기까지 챙겨, 주시면서 차를 애음하라고 하셨다. 나는 친구들과 불일회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불일암에 가기 전에 광주의 대인시장에서 불일암에 필요한 장을 본다. 그리고 꼭 스님께서 좋아하는 수박을 사들고 간다. 그때 스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에게 말차를 대접한다. 불일암 차방에 모두 좌정하면 스님은 맑은 얼굴로 우리를 훑 둘러보고 유머 있게 말씀하신다. “오늘은 무슨 차 마실꼬” “스님~말차요” 스님은 반가운 손님이 오면 꼭 말차를 손수 내주셨다. 반가움의 표시로 말차를 대접한 것이다(피상순, 2011: 46).

넷째, 법정은 홍차도 마셨는데 홍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73) (Daum 어학사전).

동인도 다질링에서는 주로 홍차를 만드는데 차의 수확기간이 1년 중 약 200백 일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고급차는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각기 10일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채취된 어린잎으로 만든다(법정, 1999 :176-177).

법정은 인도여행 중에 들렀던 홍차가게에서 마신 홍차 맛에 대해서 그리고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뉴델리의 네타지 수바쉬 거리에 있는 ‘압 키 파산드(Aap Ki Pasand)’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급 홍차 판매점이다. 이 가게에 있는 차 감정인은 와인의 세계에서 말하는 와인 테이스터와 비교할 만하다. 이 가게에서는 고급홍차만을 선별해 놓았는데 그 종류와 브랜드가 아주 다양해서 20 종이 나 된다. 가게주인이 가장 향기로운 차로 권한 ‘스프링 버즈(Spring Buds)’는 그 맛과 향기에 눈이 번쩍 띄었다. 아하, 이게 바로 히말라야의 맛이요, 향기로구나 싶었다. 내 생애에 처음으로 마주친 좋은 홍차였다. 이런 차는 아무 것도 가미하지 않고 마셔야 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마시는 향기로운 녹차에 가까운 맛이다. 뉴델리에 가면 이 가게만은 꼭 다시 들르고 싶은 그런 찻집이다(법정, 1999 : 177).

법정이 마신 국가별 차의 종류를 <표 16>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법정이 마셨던 국가별 차의 종류

| 구 분 | 국 가 와 차 의 종 류 | | | | | |
|------|---------------|--------------------------|-----|------|-----|-----|
| | 한 국 | | 중 국 | | 일 본 | 인 도 |
| | 전통차 | 대용차 | 전통차 | 대용차 | | |
| 차(茶) | 녹 차 | 연꽃차 차꽃차 매화차 매실차 | 용정차 | 자스민차 | 말 차 | 홍 차 |

(4) 계절에 따라 마시는 차.

법정은 계절별로 나누어 차의 종류를 달리하며 마셨는데 계절에 따라 마시는 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름과 장마철

법정은 무더운 여름철은 녹차를 마신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홍차를 마셨다. 피상순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장마철에 마시는 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략〉 장마철에는 녹차는 맛이 없으니 홍차를 마실 것.

건강한 여름용!

7월 8일 아침. 불일암에서(피상순, 2011 : 48).

② 가을

법정은 가을철에는 마시기가 부담이 없는, 발효된 차를 마셨다.

무더운 여름철에 발효된 차는 그 맛이 텁텁하고 빛이 탁해 별로지만 가을밤 으스스해서 목이 마를 때 발효된 차는 긴장감이 없어 마실만하다 (법정, 1999 : 199).

(5) 차를 선물하였던 지인들

법정에게 차를 보내온 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타스님(1929-1999)

일타스님(최석환, 2012 : 238)은 1929년 충남 공주군에서 태어났으며, 1942년 경상남도 양산군 통도사 윤고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43년 통도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49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보살계를 수지한 뒤 통도사 불교전문 강원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1955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7일간 3천배 후 연지연향을 발원하였다. 태백산 도솔암

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일타스님은 시자 편으로 법정에게 차를 보낸다.

법정은 일타스님이 좋은 차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래헌 시절에 마셨던 차중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차는, 태백산 도솔암에서 일타스님이 시자 편에 보내온 차였다. 그 때 차와 함께 보내온 사연은 대충이랬다. 전라도에 사는 비구니가 소량의 차를 손수 만들어 왔는데, 차 맛이 좋아 스님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는 시자 편에 조금 보낸다는 내용이였다. 그 해 맨 처음으로 따서 만든 차인 듯, 아주 섬세한 세작(細雀)이었다. 가장 좋은 차가 갖추고 있는 빛과 향기와 맛을 두루 갖춘 맑고 향기로운 차였다. 어린애살결에서 나는 배릿한 젓비린내 같은 그런 향취가 맨 차였다. 그 후 차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 이 향취가 바로 ‘다신(茶神)’이고 ‘진향(眞香)’임을 확인하면서, 그 차가 아주 좋은 차임을 거듭 알게 되었다(법정, 2000 : 109-110).

② 현묵스님

현묵스님은 송광사에서 출가했으며, 지리산 칠불사가 좋아서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다. 법정스님을 사숙(師淑)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승가의 촌수로 따져서이다. 구산선사와 법정스님이 스승이신 효봉선사 밑에서 인연을 맺은 사형(師兄)이기 때문이다. 현묵스님은 지리산칠불사의 운상선원에서 수도정진하면서, 부휴선사의 선시가 담긴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운상차(雲上茶) 한통을 법정에게 보낸다.

현묵스님이 법정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과 부휴선사의 시는 다음과 같다.

불일암 사숙님께, 운상차 한 통을 진상하오며, 이 도량에 한동안 머무셨던 부휴선사의 글 한수를 적어보았습니다. 신록이 우거진 가운데 사숙님 청안 하옵길 향축하나이다.

부휴선사(浮休禪師·1543-1615)의 선시

깊은 산에 홀로 앉아 있으니 獨坐深山萬事經
만사가 시들하여
진중일 문을 닫고 掩關終日學無生
무생(無生)을 참구 한다.
생애를 되돌아보면 生涯默儉無餘物
별 물건이 없나니
다만 한 잔의 차에 一椀新茶一券經⁷⁴⁾
한권의 경책뿐

부휴선사의 속성은 김(金)씨이고 법명은 선수(善修)이며, 전북 남원출신이다. 부친의 이름은 적산(積山)이고 어머니는 이(李)씨이다. 어머니가 신승(神僧)으로부터 원주를 받는 태몽을 꾸었으며, 부모님에게 “장차 뜬 구름 같은 이 속세를 떠나 출가하려 합니다.” 하더니 20세에 양친의 허락을 얻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신명장로(信明長老)의 제자가 되었고 그 뒤 서산대사 청허휴정의 스승이기도 한 부용영관(芙蓉靈觀) 밑에서, 수도하여 심요(心要)를 얻었다. 저서로서는 <부휴당대사집> 이 있다.⁷⁵⁾

법정은 위의 선사의 시에서 그의 청빈한 삶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향기로운 한 잔의 차와 한권의 경책으로 자족하면서 청빈하게 살았던
옛 선사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법정, 1993 : 296-297).

③ 금당 최규용(錦堂 崔圭用)선생

금당 최규용(최석환, 2012 : 126)은 1903년 통영에서 출생하였고, 일본와세다(早稻田)대학부속 고공토목 과(高工土木 科)를 졸업한 뒤 토목기사로 종사하면서

74) <http://blog.naver.com/pian2002/>

75) <http://blog.naver.com/kimiusa/>

토목 및 고건축을 연구하였다. 국내각지는 물론 일본 중국등지를 여행하면서 수십 년간 차를 연구하였다. 금당선생은 방문객에게 ‘자 어서와 차나 마시게’로 유명하다. 저서로는 《금당다화》, 《현대인과 차》, 《중국차문화기행》이 있다.

법정에게 금당선생은 용정차를 2통을 선물하였다. 용정차 한통은 직접 불일암으로 가지고 갔으며, 다른 용정차 한통은 금당선생이 자신의 저서 <중국차문화기행(中國茶文化紀行)> 와 함께 편지와 같이 소포로 법정에게 부치었다.

법정은 부쳐온 용정차와 저서, 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에 계시는 금당(錦堂) 최규용(崔圭用)옹으로부터 소포 하나를 전해 받았다. 저서인 <중국차문화기행(中國茶文化紀行)> 과 용정차 한통과 서찰이 들어 있었다. 올해 아흔 세 살인 노인께서 손수 붓으로 쓰신 고졸(古拙)한 서체와 사연이 몇 번이고 되읽게 했다.

지난 해 11월 하순 내가 참여하고 있는 한 모임의 일로 부산에 갔을 때, 시민회관에서 옹을 뵈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정정하셨다. 전에 마시던 차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한 통 보내주마고 하셨다. 그 후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내 칼럼을 보시고 그 때의 일이 상기하셨는지 언약을 이행하신 것이다.

(앞에 인사말 생략) 지난날 부산 시민회관 내강 시(來講 時) 용정차와 줄저(拙著) 이제야 상송(上送)합니다. 차일피일(此日彼日)하다 보니 언질(言質)을 어겼습니다. 구삼 노령(九三 老齡)이니 오전에는 신선(神仙)이고 오후에는 귀신(鬼神)이 됩니다.

일월 이십 모일(一月 二十某日) 금당(錦堂) 다취(茶醉) 합장(合掌).

아흔세의 노령이라 오전에는 신선이 되고 오후에는 귀신이 된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박혀있다. 누구나 사람은 육신의 나이를 먹기 마련이다. 나이를 먹게 되면 대개의 경우 몸과 정신이 함께 쇠락해져서 사는 일 자체가 짐스럽고 시들해질 듯싶은데 금당옹께서는 이름 그대로 찬란한 말년을 누리고 계신 것 같다. 당신이 하신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귀찮은 소포까지 손수 꾸려 보내신 그 신의에 감격할 뿐이다. 평생 차를 좋아하고 차에 대한 저술과 번역을 하여 동호인들에게

차의 덕을 나누는 일을 즐기면서 말년을 정정하게 보내고 계신 듯하다. 중국과 국교가 열리기 전 '1989년 차의 원류를 찾아 고령으로 불편한 여행을 단행한 그 기상과 의지는 젊은 후배들로도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법정, 1996 : 238).

법정은 잊지 않고 차를 보내어 약속을 지키신 금당선생의 신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며, 차의 원류를 찾아 고령으로 불편한 여행을 단행한 기상과 의지에 대해서도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금당선생이 저술하신 저서 <중국차문화기행>의 내용에 대하여, <중국차문화기행>을 보면 차의 성인으로 추앙되는 육우(陸羽)의 고향에서 국제차회에 참석하고, 멀리 멀리 운남성 곤명(昆明·베트남과 미얀마의 국경에 인접한 곳)에까지 가서 수령 8백 년이 된 차나무, 이른바 차왕수(茶王樹)앞에 마주선 감동은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온다. 차나무 가운데 왕이라고 불려진 이 나무는 높이가 9.8m. 나무둘레가 무려 10m라고 한다. 8백 살 묵은 차나무에는 거기 능히 차신(茶神)이 깃들어 있을 법하다.

웅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차왕수가 있는 주위의 밀림지역에 들어서는 순간 가볍게 흥분되었는데 바로 차왕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 나이 이제 90을 바라보는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다니. 이 성스런 나무 앞에 서자 어떤 감동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내가 차를 접한 지 한평생을 거쳐 비로소 근원지에 섰다는 그 감회를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말로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차를 널리 알리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차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었다. 90년 세월의 궁극 목적이 차왕수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법정, 1996 : 238-239).

④ 종대스님

법정(2000 : 110)에게 종대스님은 지리산에서 차 두 통을 보낸다. 법정은 초하룻날 보내온 차로 시음하였으며 지리산에서 종대스님이 차를 보내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늦가을 여수 현정이네 집에서 그 집 주인인 원경거사(圓鏡居士)와 함께 마신차가 근년에 마신차 중에서는 다신(茶神)이 뻔 좋은 차였다. 무심코 찻잔을 들다가 그 차 향기에 눈이 번쩍 띄었다. 이 차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스님이 가져온 차라고 했다. 열 봉지를 구했는데 차 맛이 좋다고들 해서 이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바닥에 남은 것이 마지막이라 했다. 오늘 아침 시음한차가 그 차이다. 종대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자기가 마시려고 남겨둔 차를 두 봉지 보내온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맛이 아니었다. 우려낸 찻잎을 살펴보니 그때 마신 그 차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염록소가 많이 사라져 다신의 그 귀한 향취가 없었다. 아마 보관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다. 차의 변질을 막으려면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

⑤ 원화보살

법정에게 원화보살은 해마다 반야로(般若露)차를 보내온다. 보내온 차에 대해서 그는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울 원화보살이 보내준 반야로 차로 불전에 공양을 풀리고 두 잔을 마시다. 금년에 마셔본 차 중에서 상품이다. 해마다 잊지 않고 손수 만든 차를 보내주는 그 뜻에 그저 감사할 뿐, 나는 아무 보답도 못해 염치가 없다. 효당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 멀리서 지켜보기에 고맙다는 사연 쓰다(법정, 2000 : 342).

(4) 법정이 가서 본 복원 된 초의선사의 일지암(一枝庵)

법정은 1백 20년 만에 초의선사가 살았던 일지암이 복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초의선사에 대해서 초의선사는 <동다송>, <다신전> 을 통해서 우리 불가의 차를 복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쇠퇴했던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도는 신라, 고려를 통해 주로 선승(禪僧)들에 의해 발전 계승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교세와 함께 쇠퇴한다. 그러다가 조선조 후기 초의선사(1786-1866)에 의해 시들었던 다도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는 <동다송(東茶頌)>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茶書)를 저술하고 손수 차를 가꾸고 만들어 널리 폈다.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생활로서 다도를 새롭게 일으킨 것이다. 그 무렵 강진에서 다년간 유배생활을 하던 다산(茶山)정약용은 대홍사와 깊은 인연을 맺어 초의선사와는 차로써 교우관계를 두텁게 하였다. 또 추사(秋史)김정희는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자 대홍사에 있는 초의스님과 남다른 친교를 갖게 된다. 그들은 나이가 같았다. 추사는 물 건너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대홍사에 들러 초의선사를 만났고, 스님도 지기지우(知己之友)인 추사의 외로운 유배지를 찾아 거친 풍랑을 헤치고 제주도를 다녀오곤 했다. 추사는 이따금 글씨를 써서 스님에게 보냈다. 그중에도 반야심경(般若心經)한 질과 ‘참 禪(명 선)’이란 글씨는 유명하다. 명 선은 현재 간송(澗松)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법정(1993 : 98-99)은 초의선사가 살았던 일지암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가본다. 가서 본 복원된 일지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의스님은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에서 조출하게 살았던 한도인(閑道人)이다. 그가 살았던 일지암(一枝庵)이 한국 다인회(茶人會)의 몇몇 뜻있는 분들에 의해 복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쁜 마음으로 훨훨 찾아 나섰다. 대광명전 뒷길로 한참을 올라간 언덕배기 숲속에 아직 뒷손질이 끝나지 않은 집이 두 채 세워졌다. 한 채는 누마루가 있는 기와집이고, 한 채는 초당. 그 사이에 연못이 파져 있었다. 밤이되면 노루가 와서 연못에 고인 물을 마신다고 했다. 숲을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다로(茶爐)에서 끓는 물소리처럼 들린다. 초의스님은 이 암자의 설창(雪窓)아래서 화로를 안고 <다신전(茶神傳)>을 쓰기도 했었다. 집이 북향이라 겨울에는 햇볕쬐이기가, 어려운 곳이다. 화로를 안을 만도 했겠다. 1백 20년 만에 다시 세워진 일지암이다.

(7) 법정에게 한잔의 차가 가지는 숨은 공덕(功德)과 은혜.

차가 가지는 공덕과 은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1999 : 192)은 차의 덕은 맑고 고요함(淸寂)에 있으며 한잔의 차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은공과 은혜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다.

- 차 씨를 뿌려 차나무를 가꾼 사람의 공
- 한 잎 한 잎 찻잎을 따서 만든 사람의 공
- 그 차를 멀리 보내준 사람의 공
- 다포와 차 수건을 만든 사람의 공
- 찻순같이며 찻잔 받침대 등을 만든 사람의 공 그리고 물과 불의 은공
- 햇별과 비와 이슬과 구름과 맑은 바람과 거울에 내리는 눈과 별빛과 달빛

의 은공 등...이것저것 헤아리자면 자연과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한 잔의 차속에 배여 있다. 그러니 차를 마실 때 건성으로 마시지 말고, 이와 같은 은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음미해야 한다. 향기로운 한 잔의 차 속에 우주의 신비가 스며있다고 하였다(법정, 2010 : 68-69).

(8) 법정이 바라 본 차를 따는 풍경

차를 따는 모습에 대해서 차를 따는 모습은 노동으로 보이지 않으며 참으로 아름답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

경사진 차밭에서 삼삼오오 아주머니들이 흰 수건을 쓰고 차를 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어떤 일보다도 보기 좋은 풍경이다. 차를 따는 그 모습이 결코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만치서 바라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차밭에 내려와 진양조⁷⁶⁾가락에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리고 인도여행지에서 보았던 차 따는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76) 진양조장단은 산조 및 판소리 장단의 한 가지이다(Daum 어학사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차의 산지에 가서 보면 기온차가 심한 고지에서 생산되는 차를 으뜸으로 친다. 동인도 다질링에서는 표고 9백에서 2천 4백 미터의 고지에서 차를 수확한다. 해발 8천 6백 미터의 칸첸중가 히말라야, 장엄한 설산을 배경으로 차를 따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 풍경 같지 않다. 나는 몇 해 전 그 곳을 여행하면서, 차 따는 풍경을 하루 종일 바라보았다. 설산 앞에서 안복(眼福)을 누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게 간직 되어있다(법정, 1999 : 176).

3) 법정의 다사(茶事)

다사(신미경, 2008 : 8)란 차에 관련 된, 차나무를 심고 가꾸며, 차를 따고, 제다하고, 물을 끓여서 차를 우려마시는 등, 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차의 일들을 말한다. 그리고 다사(정영선, 1996 : 43).를 다른 말로는 청사(淸事), 아사(雅事), 명사(茗事)라고도 일컬어진다.

법정의 다사(茶事)를 차 따기와 제다, 불전에 차 공양, 차를 마실 때,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 따기와 제다(製茶)

법정은 큰절 송광사와 불일암에서 차를 따고 제다하였다. 큰절인 송광사 선원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을 때에 차 따기와 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옛 문헌에는 곡우(穀雨)를 전후하여 따는 차가 가장 상품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계산에서는 그 무렵이면 좀 빠르고 입하(立夏)무렵에 첫차를 따는, 것이 가장 알맞다. 이곳 선원에서도 엇그제 한차례 따다가 볶았고 오늘, 대중들이 나가 또 한 차례 따왔다. 예전 같으면 나도 아랫마을 사람들 몇을 데리고 따로 차를 따왔 텐데, 올 봄에는 하는 일이 많아 짬이 없을뿐더러, 이제는 대중 속에 섞여 살게 되었으니 나누어 주는 몫으로 죽할 수밖에 없다(법정, 2001 : 17).

지묵스님(2011 : 39-40)은 불일암에서 차를 따고 제다하였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정스님은 불일암에서 가끔씩 차를 소량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 스님은, 찻잎을, 딸 때가 되면 불일암 아랫마을에서 차를 잘 만드는 아주머니 두 분을 초청했다. 그리고 차를 탄 후 차를 불일암에서 바로 제다를 했다. 물론 불일암에는 차를 뒤는 솜이 없었다. 그러나 법정스님은 프라이팬을 깨끗이 씻어서 차 솜으로 썼다.

“한 나홀정도 차를 따서 뒤었지요. 스님의 지도하에 만들지요 워낙 차를 잘 만드는 아주머니들이라 맨손으로 차를 뒤었지요. 그것도 해년마다 할 수가 없어 차를 할 수 있을 때만 했지요”

법정(2001 : 18-20)은 송광사로 잠시 내려와 있을 때 사람이 없는 불일암에서 비구니스님이 차를 따서 제다할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를 따거나 그걸 볶을 때면 자칫 차 도둑이 될 뻔했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난다. 몇 해 전 차 딸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해마다 송광사에서는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고 이 도량을 새롭게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知訥·1158-1210)스님의 추모 재를 지낸다. 스님의 재일인 음력 3월 26일을 기해 사흘 동안 큰 법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든다. 따라서 산중은 전에 없이 붐비고 이 절에서 사는 스님들은 일 년 중에서도 가장 바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북새통에 무엇을 가지러 불일암에 올라갔더니 굴뚝에서 때 아닌 연기가 피어올랐다. 웬일인가 싶어 부엌에 들어가 보았다. 낮이 익은 노(老)여승이 할머니 한 분을 데리고 차를 따다가 볶고 있는 참이었다. 일손이 바빠 큰절이고 암자고 우리는 아직 차를 따지 않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객이 와서 먼저 차를 따 가는 것을 보니 속으로 꽤 씩씩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개 하면 다 알 정도로 주책이 없는 그 여승을 탓할 수도 없어 다 볶으면 차 줌 주고 가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못주겠다고 거절이었다. ‘남의 차밭에서 주인이 손도 안 댄 차를 따다가, 남의 솜에 나무까지 들여 볶으면서도 못주겠다고 하니 심히 꽤 씩씩한지고. 어디

못주고 가는가 한번 보자'고 나는 속으로 별렀다.

차를 다 볶자 그는 신문지에 싸서 가져가려고 했다. 차의 섬세한 성품을 아는 처지에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사람보다도 차를 위해서였다. 차 통을 몇 개 꺼내주면서 거기에 담아가라고 했다. 볶은 차를 식히느라 마루에 넣어놓은 채 우물가로 손을 씻으러 간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 나는 서둘러 반통쯤 차를 담아 슬쩍했다.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이 차를 마실 때마다 갈 데 없는 '차 도둑'이 될 판이었다. 웬지 개운치가 앓았다. 이슬방울 맺힌 다이아 목걸이도 아닌 맑은 차를 가지고 줌도둑이 될 수야 없지 않는가. 슬쩍 챙겼던 차를 비워버렸다. 개운한 마음이었다.

노비구니는 우물에서 올라오자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차 통을 하나 내놓으라는 것이다. 아까는 못주겠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니 차를 주겠다고 차 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는 내놓은 차 통에 하나 가득 담아 내 몫으로 내놓고 큰절로 내려갔다. 나는 그 때 이심전심의 오묘한 이치를 전존재로써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반통쯤 담은 그 차를 슬쩍 하고 말았더라면 그의 닫힌 마음을 끝내 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비어버린 바람에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듯 메아리와 같은 것,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마음과 마음끼리는 서로 보내고 받아들여 메아리치는 것이다. 반쯤 담은 것을 비우고 나니 가득 채워서 주는 이 응답. 두고두고 차 도둑이 될 번하다가 한 생각 돌이키니 이처럼 땃땃하게 선물로서 받게 된 것이다 하였다.

(2) 불전에 차 공양

법정은 차를 마실 때 불전(佛殿)에 차를 올린다.

차는 현목스님이 보내온 운상차와 원화보살이 보내온 반야로 차로 올린다.

차를 올린 후에 두 잔정도 마시며 불전에 차를 공양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달과 함께 길어온 샘물로 햇 차를 달여 첫잔을 불전에 공양하고 다
실로 돌아와 둘째 잔을 드니 공복에 운상의 싱그러운 향기가 뺏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따금 느끼는 바이지만 향기롭고 맑은 한 잔의 차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법정, 1994 : 298).

그리고 불전에 올린 반야로 차 공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음력 동짓달 초하루. 불전에 차 공양을 하였다. 차는 서울에 계신 원화보살이 보내온 반야로 차를 불전에 차 공양 올렸다. 올리고 난 뒤 두 잔을 마신다(법정, 2000 : 328).

법정(2010 : 68)은 불교의식에서 차를 공양할 때 차의 계송(偈頌)을 읊는 의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은갓 초목 중에 뛰어난 이 맛을
조주스님은 몇 천 사람에게 권 했던가
돌솥에 좋은 물로 달인 이 차를 드시고
영가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 나소서
향기로운 한 잔의 차는
자신을 바쳐 중생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법의 진미 넘치는 이 공양 받으시고
덧없는 애정의 갈증을 푸소서.

(3) 차를 마실 때

법정이 차를 마시는 방법과 차의 분량, 물의 양, 새 차를 마실 때, 홀로 마실 때 찾아오는 방문객과 같이 마실 때,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談笑), 차를 마실 때의 마음가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를 마시는 방법

법정(1996 : 23)은 차를 공복에 즐겨 마시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차는 공복에 마셔야 그 향기와 맛을 알 수 있다. 나는 옮겨울 들어 새벽으로 차를 마시고 있다. 새벽예불을 드리고 나서 좌선 끝에 다기를 내놓고 차관에 물을 끓여 여명의 창 아래서 차를 두어 모금 마시고 있으면, 이 오두막의 생활에 잔잔한 즐거움이 피어오른다. <중략>

공복에 마시는 차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 이 산중에서 음미할 차가 없다면 내 삶은 국이 없는 맨밥이 되고 말 것이다.

② 마실 때의 차의 분량과 물의 양

법정(1999 : 200)은 차를 마실 때 차의 분량과 물의 양에 대해서 차의 분량은 물론 찻잔의 크기 나뉘이지만 따랐을 때 찻물이 찻잔의 반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찻잔에 가득 차도록 부으면 그 차 맛을 느끼기 전에 배가 부르다. 이런 차에는 차의 진미가 깃들일 수 없다. 차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차의 품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였다. 그는 차에 따르는 물에 양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흔히 우리는 차의 물을 잔 가득 부어 습관적으로 마시는데. 잔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쯤만 따라 두어 모금 음미 해보아야 차의 고마움과 그 진미를 알 수 있다(법정, 1996 : 23).

③ ‘새 차(茶)’를 마실 때

법정은 흥이 날 때나, 기분 좋은 날은 꼭 ‘새 차’를 마신다. 그가 ‘새 차’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묵스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공상태에 있던 차는 햇차처럼 맛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진공상태를 해제한 뒤 남아있는 차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품이 중품이 되고 하품이 된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흥겨운 찻자리에는 늘 새 차를 대접해야 한다(지묵스님, 2011 : 40).

④ 홀로 마실 때

법정(1978 : 68)은 거의 차를 홀로 많이 마시는데 혼자서 마시 때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홀로 거처하기 때문에 혼자서 차를 마실 때가 많다. 혼자서 마시는 차를 신묘(神妙)라고 했지만, 그 심경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길이 없다. 선(禪)의 삼매(三昧)에서 느낄 수 있는 선열(禪悅), 바로 그것에나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법정이 차를 혼자 마실 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홀로 마실 때 두 잔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밖에 나가 어정거리면서 가벼운 일을 하다가 돌아와 식은 물로 세 번째 차를 마신다. 왜냐하면 앉은자리에서 잇따라 마실 때보다 그 맛이, 새롭고 그리고 애써 만든 공과 정성을 생각하면 두 번 마시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세잔을 연거푸 마시던 한두 잔 마실 때의 그 맛과 향기마저 반납해야 한다(법정, 1978 : 199-200).

⑤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같이 마실 때

법정은 봉은사 다래헌에서 수행을 할 때 차가 귀할 때에는 방문객과도 다관에 넣은 찻잎의 찻물이 한 방울까지 우려 날 때까지 마셨다. 그는 차생활에 있어 다례로서의 차와 생활차는 구분하여 생활 속에서는 차를 편하게 마시는 자연스러운 차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정(현장스님, 2011 : 32-33)이 다래헌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손병철 관장은 가끔씩 방문하였는데 그때 같이 마신 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법정스님은 당시에 늘 차를 즐겼다. 적은 양의 차가 생산되던 시절이라, 다관에 넣은 찻잎의 찻물이 한 방울까지 우려 날 때까지 마셨다. 그리고 차를 마신 후 뒤로 밀어 두었던 다관을 다시 꺼내 차를 우려주

실 때도 있었다. 나는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손치사님. 요즘 차를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아서 차가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차를 우려 마실 때까지 아껴서 우려마십니다. 그리고 차는 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차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식에 얽매어 격식을 추구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다례로서 차와 생활차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다례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술로 하지만 그런 의식에는 격식이 필요하지만, 생활 속에는 자연스러운 차생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⑥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談笑)

법정은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나 돈에 대한 것 말고, 차에 어울리도록 맑고 향기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큰소리로 세상일에, 참견하거나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차에 대한 결례이다(법정, 1999 : 200).

⑦ 차를 마실 때의 마음가짐

법정(2010 : 68)은 ‘차를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은 차를 마실 때는 그 차가 지닌 빛깔과 차 맛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함께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이야기하는 차를 마실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를 마실 때는 모든 일손에서 벗어나 우선 마음이 한가해져야 한다. 그리고 차만 마시고 일어나면 진정한 차 맛을 알 수 없다. 차분한 마음으로, 다기를 매만지고, 차의 빛깔과 향기를 음미하면서 다실의 분위기도, 함께 즐겨야 한다(법정, 1999 : 200).

(4)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물

법정이 차를 달일 때 사용하던 물은 거처하였던 암자주변에 있는 샘물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2000 : 109)이 다래헌에서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물은 감로천이 라는 샘인데, 감로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래헌(茶萊軒)에서는 감로천(甘露泉)이라 불리는 샘에서 길어다 차를 달였다. 감로천이라고 언제 누가 새겨놓았는지 그 샘의 이맛들에 음각으로 새겨있다.

불일암에서는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물은 불일암 아래채 밑에 있으며 네기둥 연꽃봉으로 고친 샘에서 길어다 차를 달여 마셨다.

법정(2000 : 333)은 샘을 다시 고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래채 곁에 있는 샘을 고쳤다. 사흘 전 큰절 일꾼 네 사람과 목수 두 사람의 힘으로 편백나무판자로 귀틀을 짜서 만들어 놓았었다. 그런데 바닥 틈을 막지 않아, 물이 새는 바람에 그 전처럼 넘치지 않았다.

<중략> 오늘 일꾼 두 사람과 다시 샘물을 퍼내고 바닥 틈을 시멘트로 막아놓았다. 이제는, 물이 철철 넘친다. 신통해서 몇 차례나 샘가에 가서 맑은 물이 넘치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이 뿌듯한 기쁨!

강원도 수류산방(水流山房)과 일월암(日月庵)에서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물을 살펴보면 먼저 수류산방에서는 개울물로 차를 달였다. 하지만 겨울에 얼음이 얼어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얼음을 녹여 찻물로 사용하였다.

법정(2008 : 130-131)은 얼음을 녹여 찻물로 사용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더러는 눈 녹인 물로 차를 달여 마신다고 하는데 얼음을 녹여 차를 마신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번 겨울 그런 풍류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얼음을 깨어다가, 그것을 녹여 차를 마셨다. 차 맛이 어떻더냐고? 더 말할 것도 없이 별로였다.

일월암에서 차를 달일 때 사용했던 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2008: 97)이 지은 일월암 주변집 뒤 30미터 올라가면 샘이 있는데 이 샘을 급월정이라 이름을 지었다. ‘달을 길어 올리는 샘’이라는 뜻이다. 그는 급월정으로 샘물을 길러 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요즘 응달샘으로 물 길으러 가는 일에 재미를 누리고 있다. 개울물을 뜨러 가는 일보다 더 정감이 있다. <중략>

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문득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가 연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 | |
|-----------------------|-----------------------|
| 산중에 사는 스님 달빛이 너무 좋아 | 山僧貪月色 |
|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 네 | 并汲一瓶中, |
| 방에 들어와 뒤미처 생각하고 | 到寺方應覺 |
| 병을 기울이니 달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 瓶傾月亦空. ⁷⁷⁾ |

(법정, 2008 : 93-94).

법정(2008 : 94)은 위의 시에 대한 감상과 급월정이란 명칭에 대한 배경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다.

물을 길으러 갔다가 때마침 우물에 달이 떠있는 것을 보고 그 달을 함께 길어 담는다. 아마 청명한 가을밤이었을 것이다. 밤이 이슬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길으러

77) 『詠井中月』, 고려시대 이규보가 지은 한시, 오연철구로 작자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권 1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장지연(張志淵)이 편한 대동시선(大東詩選)에 이규보작이라고 전한다 (Daum 백과사전).

간다. 길어놓은 물보다 새로 길은 물이라야 차 맛이 새롭다. 차 맛은 곧 물맛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마침 둥근달이 우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바가지로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다. 하던 일을 마저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길어온 샘물을 끓이려고 다로의 차관에 물병을 기울이니 함께 길어 온 달은 그새, 어디로 새어나가도 없다. 샘물과 달과 차가 어울린 가을밤 산중의 그윽한 풍류이다. 내가 옹달샘 이름을 급월정이라 한 것도 이런 정취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정이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샘물을 <표 17>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샘물

| 명칭 구분 | 암자 명 과 샘 물 | | |
|----------|--------------|------------------------|-------------------------|
| 암 자 | 봉은사 다 래 현 | 불일 암 수 류 화 개 실 | 강원도 수 류 산 방 일 월 암 |
| 샘 물 | 감 로 천 | 요사 채 밑 네 기둥 연꽃 봉 샘물 | 개 울 물 급 월 정 샘물 |

4) 법정의 다구(茶具)

다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이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구들은 차 덫는 기구, 물 끓이는 주전자, 물병, 다관과 찻잔, 다완 차탁, 차수건, 퇴수기 등이 있다 다구들은 대체로 도자기들이며 소박하면서 간결하다.

차를 마시려면 거기에 소용되는 그릇들이 필요하다. 가게마다 다기들로 가득가득 쌓여있지만 눈에 띄는 그릇을 만나지 못했다. 대부분 차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기 위

해 그릇들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릇의 아름다움이 차를 마시도록 이끌기도 한다. 그릇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마음에 맑음과 고요를 구하는 것과 같다(법정, 1999 : 178).

법정(1999 : 201)은 다구들이 너무 화려하면 차 맛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다.

차의 진정한 운치는 담박하고 검소한데 있다. 그릇이 지나치게 호사스러우면 차의 운치를 잃는다. 차의 원숙한 경지는 번거로운 형식이나 값비싼 그릇에서 해방되어야한다. 그릇에 너무 집착하면 담박하고 검소한 차 맛을 잃게 된다.

법정의 차 덫는 기구, 물 끓이는 주전자, 물병, 다관과 찻잔, 다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 덫는 기구

법정이 사용하였던 차 덫는 기구는 전용차(茶) 덫는 프라이팬이다. 전용차 덫는 프라이팬은 차를 덫는 때 사용한다. 그는 차를 덫는 날씨에 대해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차 맛이 떨어지므로 이런 날은 차를 덫는다.’하였다 그리고 차 덫는 프라이팬자루에는 ‘차전용’이라고 표시도 해두었다.

법정(2000 : 210-211)이 프라이팬에서 차 덫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 덫는 기구를 본 김에 차를 덫었다. 우선 뭉근한 불에 프라이팬을 데우면서 사나흘 마실 차를 덜어다 덫는다. 이때 조그만 대수저로 차를 저어야 차가 타지 않고 고루 덫어진다. 차 덫는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내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려놓고 식혀야 한다. 자칫 때를 놓쳐 차를 태우면 헛일이기 때문이다. 식은 차는 차 통에 넣어 때에 따라 꺼내어 쓴다. 같은 인데도 맛이 산뜻하다. 차 덫는 향기는 차 맛에 못지않다. 요즘은 시중에 차 향료가 있어 묵은 차를 넣고 티 라이트를 켜 차 덫는 향기를 차와 함께 음미할 수 있다. 이때도 가끔 차 향료에 올려놓은 차를 뒤적여 주어야, 차가 타지 않는다. 햇차는 아까우니까 이미 향기와 맛이 떨어진 묵은차를 차 향료용으로 쓰면 된다.

(2) 차 주전자

법정은 물 끓일 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차 주전자가 아닌 모든 집에 있는 전기 포트를 차 주전자대신 사용하였다.

(3) 물병

물을 길러갈 때 사용하는 물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2008 : 73-74)은 차를 달이기 위해 물을 길러갈 때는 도자기로 된 물병을 사용하였다 도자기로 빚은 목이 학처럼 긴 오지물병이다.

새로 가져온 오지 물병을 창문 아래 놓아두고 벽에 기댄 채 이만치서 바라보고 있으니 내안에서도 봄기운이 움트는 것 같았다. 이 오지물병은 목이 길아 학처럼 늘씬한 몸매다. 자꾸만 눈이 간다. 보성 미력옹기의 이학수님이 나를 위해 빚어준 것인데 그 사연은 이렇다. 작년 가을 불일암에 사는 스님들과 함께 보성 차밭에 가는 길에 미력옹기에 들렀었다. 스님들은 이것저것 소용될 그릇들을 고르고 나는 찻물을 담기 위한 물병을 골랐었다. 그릇은 마음에 들었지만 그 용량이 적은 게 아쉬웠다. 이런 뜻을 알고 주인이 나를 위해 좀 큰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이번에 들렀더니, 비슷비슷하게 만든 두 개를 내어주며 다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중 작년에 구해 온 것과 같은 형태의 하나만 골랐다. 두 개를 갖게 되면 하나만의 지냈을 때의 그 풋풋함과 살뜰함이 소멸되고 만다. 이게 내 지론이다. 어떻게 두 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4) 다관과 찻잔

다관과 찻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1998 : 63)이 사용하였던 다관과 찻잔들은 대개가 소박하고 무채색의 다관과 찻잔들이다. 그는 작은 모양의 다관과 찻잔을 좋아하며 어떤 유학 중인 스님에게 선물 받았던 조그마한 다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기를 많이 사용한다. 몇 해 전에 중국 대만

에서 유학하는 스님이 내가 작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조그마한 다기를 하나 사왔다. ‘선(禪)’이라고 음각이 되어 있는 아주 작고 껌직한 물건이었다. 다기는 크면 안 좋다. 손안에 들어와야 한다. 나는 그것을 아주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많이 사용했다. 그 뒤에 내가 인도로 일본으로 다니다가 대만으로 갔더니 육교 밑에서 잔뜩 놓고 팔고 있었다. 그래서 선물하려고 몇 개 사고 다시 내 뚝으로 부처‘불(佛)자를 쓴 것을 구했다’ 그걸 가져와 내 거처에서 쓰는데 처음 하나 가졌을 때의 그 소중함. 그 알뜰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법정이 쌍계사와 다래헌, 불일암, 수류산방에서 수행하며 차를 마실 때 사용하였던 다관과 찻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이 효봉선사를 모시고 쌍계사 탑전에서 수행을 하며 차를 마시는 다관과 찻잔은 소박하고 흰색의 큰 다관과 찻잔이었다. 그가 그 당시에 사용하던 다구에 대해서 손병철 관장(현장, 2011.: 31)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에 법정스님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불품없는 다관과 찻잔을 쓰고 있었다. 흰 색깔이었지만, 어딘지 크고 둔탁해 보였다. 그러나 법정스님은 그 다관과 찻잔을, 무척 아낀다는 생각을 했다.

둘째, 법정(2000 : 109)은 다래헌에서 수행할 때의 차를 마시는 다구는 해인사 동구에 사는 토우선생이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토우 김종희(土偶 金鐘禧·1921-2000)선생은 1921년 대구에서 태어나 13세 때인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가 가난한 성장기 십여 년을 일본에서 그릇 만드는 것을 배웠다. 해방 후 귀국하여 1948년 가야산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도자기를 구우면서 지내다 효당 최범술과의 만남을 통해 찻그릇을 만들었다. 5인 다기와 물 식힘 그릇이 이때에 처음 탄생하였다. 그의 차 주진자를 보면 다기가 깨지지

않도록 태토를 두껍게 하거나 찻물이 잘 나오도록 구멍을 크게 내고 주둥이를 붓어 입처럼 만들어 놓아 매우 실용적이면서 반면에 기교가 없는 투박한 무색의 순수함을 갖추고 있다.

금당선생은 토우가 좋은 도자기일수록 오동지(五冬至, 음력 5월과 동짓달) 삼동에 만들어야 한다면, 그는 이미 완전건조시기의 시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도공이었다고 말한다. 2000년 12월 80세로 작고할 때까지 평생 차와 찻그릇과 함께 하였으며, 우리나라 차문화 보급을 하는데 혼신을 다하였다.⁷⁸⁾고 한다.

셋째, 법정은 불일암과 수류산방에서 수행하며 차를 마실 때 사용한 다관과 찻잔은 도예가 김기철과 송충효가 만든 다관과 찻잔을 주로 사용하였다.

법정과 도예가 김기철과의 인연은 다기(茶器)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법정이 보원요에 가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차를 즐기는 사람은 대개 다기에 대한 애착과 함께 그것을 보는 눈이 맵다. 그때 내놓은 백자 다기를 보니 그 맑고 투명한 때깔에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이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가마돌레에서 가마잔치가 벌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는 스님이나 신자들을 데리고 참석했었다 (김기철, 2011 : 41).

도예가 김기철(변택주, 2013 : 100)은 ‘법정찻잔’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도자기 100벌 쯤 구운데서 20여벌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김기철(2011 : 41)은 ‘법정찻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스님은 찻잔 굵이 약간 밖으로 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다고. 어느 해. 겨울, 법정스님을 모셔서 다기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숙우(熟盃)가 완벽하게 균형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연잎이 말린 느낌을 살려 우리 태극무늬를 재현했죠. 스님이 보시곤 ‘아, 좋다’고 하셨습니다.

78) <http://blog.naver.com/blumt69/>

그는 ‘법정찰잔’은 스님의 다기 보는 뛰어난 안목 때문에 탄생되었다고 했다.

스님은 늘 차를 즐기시고 그릇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오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찻잔하나만 보드라도 그 미적 감각과 쓰임새에 알맞은 것을 빚는 데는 굽에서 전(口緣部: 맨 윗부분)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귀에 경읽기 식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법정찰잔’이 어엿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인내력을 시험할 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2011, 22호 : 42).

법정(2011. : 42)은 도예가 김기철의 다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원요 그릇들은 “내가 20년 가까이 몸담아 살던 조계산 불일암에는 보원요에서 구워 낸 그릇들로 구석구석 빛을 발하고 있다 일상에 즐겨 쓰는 다기를 비롯해서 차향아리며 향로와 연적 등 날날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면서 ‘연잎다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현님께. 이번에 나온 연잎다기 아주 좋습니다. 차관과 숙우, 찻잔, 그리고 퇴수그릇까지 하나하나 만지고 바라볼수록 정이 갑니다. 물레로 돌려, 만든 판에 박은 제품이 아니고, 정성을 기울여 날날이 손으로 빚은 그릇이기 때문에 만든 이의 인품이 배어있습니다. 천연스런 때깔도 빼어나고 연잎을 닮은 숙우와 찻잔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차는 좋은 그릇을 만나야 비로소 그 차가 지닌 빛과 향기와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다기는 차를 마시고 싶게 합니다.

좋은 다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잘 쓰겠습니다.

제주의 정서를 담은 또 하나의 법정찰잔’은 도예가 송충효가 만든 찻잔이다. 법정과 송충효(2012. : 45-46)과의 첫 인연은 보원요에서 3년간 수학하였을 때이다. 그가 도자수학을 끝내고 제주도로 돌아와서 속리산방을 열고 본격적인 도자 작업에 몰두한다. 이때 법정은 제주도 속리산방에 자주 들러 작품에 대한 조언

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때 한 조언은 다음과 같다.

송 선생 도자기는 실용성과 멋스러움을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 역시 담아내야겠지요. 도자기가 예술과 실용의 도구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정신의 수행을 통한 육신의 예술성을 살려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송 선생의 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잔의 차에 우주를 담을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작품은 만들어야하지 않겠어요.

법정의 제안으로 송충효(2012 : 45-46)은 제주의 붉은 분홍노을을 담은 ‘법정 찻잔’을 만든다. ‘법정찻잔’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제주도 속리산방을 방문한 법정스님은 송충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봐 송 선생. 제주를 담은 찻잔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송충효는 깜짝 놀랐다. 또 다른 색깔의 법정찻잔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스님! 스님찻잔이 이미 있잖습니까.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송 선생! 송 선생만이 만들 수 있는 찻잔을 만들어 봅시다. 아름답고 고즈넉한 제주의, 살빛을 담은 그런 찻잔을 만들어 봅시다.” 법정스님은 송충효에게 스님 자신이 생각하는 찻잔의 형태와 느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평소 소박하고 담백한 무채색의 찻잔을 좋아했던 법정스님은 송충효에게 전혀 색다른 찻잔을 제안했다. 바로 제주의 색깔을 담은 붉은 찻잔이었다. 선생은 틈틈이 ‘법정찻잔’을 만들어 완성할 때마다 스님에게 보여드렸다. 몇 번의 수정 끝에 드디어 송충효의 손에서 ‘법정찻잔’이 탄생했다.

법정은 송충효가 만든 ‘법정찻잔’을 보고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아주 훌륭합니다. 가볍고 날렵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운 분홍빛 찻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찻잔에 차를 마시면 마치 제주도 노을의 노을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5) 다완(茶碗 · Tea bowl)

오늘날 차 마시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완은 가루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사기(沙器)로 된 발(鉢)을 말하는데 찻사발틀 또는 다완이라 한다.

다완은 다른 그릇에 비해 쓰임새가 좋고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으며 찻물에 의해 변해가는 모습은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신수길, 2005 : 66-67). 육우의 다경(茶經)에도 다완이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다완은 신라시대 최고의 다완인 안압지에서 출토된 연정영명백토분장토기의 다완이 있으며, 고려시대에서는 흑유다완, 퇴화문다완 등이 제작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연질백자다완, 덤병분장다완, 반담금다완, 인화분청다완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법정(2008 : 74-75)은 다완 속에 초를 넣어 불단을 밝게 밝혔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곤지암 보원요 대청마루에 놓인 그릇을 보다가 단정하게 빛은 다완을 매만저 보았더니 주인이 내 마음을 읽고 선뜻 써서 주었다. 말차 다완으로 두 번 쓰다가 초를 넣어 불단에 밝혔더니 은은한 그 불빛이 부처님 모습과 매우 잘 어울렸다.

법정(1999 : 199)은 계절에 따라 다기(茶器)를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여름철에는 백자가 산뜻해서 좋고 여름이 지나면 분청사기나 갈색계통의 그릇이 포근하다. 여름철에는 넉넉한 그릇이 시원스럽고,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좀 작은 것이 정겹다.

5) 법정의 다실(茶室)

다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은 거처하였던 암자의 명칭을 다래헌, 수류산방이라고 지었으며 불일암에는 따로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이라는 다실을 만들었다.

법정(2000 : 95-96)은 불일암의 다실을 ‘수류화개실’이라고 지은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5년 전 옛터에 집을 새로 짓고 들어와 살 때였다. 삼 칸 집 네 기둥에 달까 해서 간단한 주련(柱聯)을 이것저것 헤아리다가 불화가인 석정스님의 권유로, 중국 송 대의 시인이며 화가인 황산곡(黃山谷)⁷⁹⁾ 글을 골랐었다.

| | |
|----------------|------|
| 구만리 푸른 하늘에 | 黃里青天 |
| 구름 일고 비 내리네 | 雲起雨來 |
| 빈산에 사람 그림자 없어 | 空山無人 |
|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 水流花開 |

‘수류화개실’이란 내 거처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몇 자 안된 글귀에 푸른 하늘과 구름과 비, 산과 사람과 물과 꽃이 들어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하는 직선적인 성미에 맞는 글이다. 황산곡의 서체처럼 활달하고 기상이 있는 내용이다.

불일암의 다실 ‘수류화개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2000 : 99-100)은 ‘수류화개실’ 다실을 만들게 된 동기와 만들고 난 후에 다실의 크기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이 암자를 새로 지을 때 한 평반쯤 되는 조그만 골방을 다실(茶室)로 만들었다. 그때 생각으로는 공부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 방에 가서 차를

79) (1045-1105)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이며 서예가이다. 소동파문화에서 배웠으며, 자유 분명한 초서체로 유명하다. 깨달음을 향한 치열하고도 간절한 마음에 당시 선학으로 유명한 회당(晦堂)선사를 찾아가 법을 물었으나 선사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줄리면 자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내가그대에게 숨김이 없습니다.” 어느 봄날 길가에 핀 목서화(계수나무 꽃)향기가 진동하자 회당이 묻는다.“목서향이 들립니까?” “듣나이다.” “이렇듯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지요” 이 말에 황산곡은 깨달았다(법정, 2010 : 371).

마실 요량에서였다. 소창다명(小窓多明) 사아구좌(使我久坐), 조그만 창에 햇볕이 밝아 나를 오래 앉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겨울철 오후와 초봄에, 이 방에 앉아 있으면 서쪽 창으로 스며드는 햇볕이 참으로 아늑하고 포근하다. 응접실이 따로 없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서너트 일 때는, 이 방에 맞아들인다. 지금 생각으로는 처음 집을 지을 때 부엌을 좁히고 방을 좀 키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머리 무거운 일을 벌려가면서까지 더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나는 가장 넉넉하고 충만하다고 했는데, 조그만 방이지만, 이 방에 겨울철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한 때,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다기를 매만지고 있으면, 참으로 넉넉하고 충만한 내 속 뜰이 열린다. 이 속 뜰에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간사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차는 이래서 고맙고 향기로운 삶의 벗일 수 있다.

법정은 다실의 다실 벽에 두 종류의 작품을 걸었는데 그림엽서로 된 액자와 글씨로 된 족자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2000 : 340-341)은 다실 벽에 건 그림엽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실 안에 그림을 하나 걸었다. 사방 한자 쯤 되는 까맣게 색칠한 송판에 몇 해 전, 대구의 미영이가 보내준 새해아침의 그림엽서. 청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단선으로 휘적휘적 산등성이를 그리고 위에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데 까치인 듯한, 새 한마리가 날아가고 있다. 이런 그림바탕에 가는 연필로 새해 인사를 쓴 것. 차를 마시면서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 불필요한 것들이 생략 되어버린 간결하고 산뜻한 조화. 내 식성처럼 담백한 그림이다. 큰절 제재소에 가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송판, 그걸 사방 한 자 쯤 되게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었다. 황선스님이 검은색 락 카를 칠해주었다. 그 스님은 검은색을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나무에 서슬을 죽이지 않고 날카롭게 모를 새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긴장감이 있어 좋다는 것. 이런 나무판에 책꽂이에 놓아두었던 그림엽서를 붙여

놓으니 운치 있는 그림이 된 것이다. 나무판과 그림의 조화. 함께 함으로써, 서로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빛을 받는다.

둘째, 법정(2000 : 344)은 다실 안에 글씨로 된 검여(劍如)의 족자인 원관산유색(遠觀山有色)을 걸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벽에 그림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검여(劍如)유희강님의 글씨로 된 원관산유색(遠觀山有色)의 족자를 걸다. 그림보다는 글씨 쪽이 방안의 분위기를 훨씬 그윽하게 가라 앉혀준다. 새로 걸어놓은 글씨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다. 한적(閑寂)을 되찾다.

6) 다시(茶詩)와 다화(茶畵)

다시와 다화는 법정이 애송하였던 다시와 즐겨보았던 다화, 법정이 지은 다시와 그린 다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이 애송 하던 다시(茶詩)

① 노동(盧仝·775? - 835)의 칠완 다시(七碗 茶詩)

법정이 월정차인에게 개사하여 보낸 노동⁸⁰⁾의 칠완 다시는 다음과 같다.

한 잔을 마시니 목구멍과 입술이 촉촉해지고
두 잔을 마시니 외롭고 울적함이 사라지고
석 잔을 마시니 가슴이 열려 오천권의 문자로 가득하고
넉 잔을 마시니 가벼운 땀이 나서 못마땅했던 일들이 죄다
땀구멍으로 흘러지네.

80) 당나라 중기의 시인. 호는 옥천자(玉川子), 후베이(湖北省) 판양(范陽)에서 출생하였다. 고고하고 청절한 색다른 성격으로서, 처음에는嵩山(嵩山)에 숨어살다가 나중에 휘양(洛陽)에 정주하였다.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청렴한 인품을 굽히지 않아 이에 감탄하여 조정에서 기용하려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감로(甘露)의 변에 휩쓸려서 살해되었다. 저서로는 《옥천자 시집》 2 권과 외집(外集)이 있다(NAVER 지식IN).

다섯 잔을 마시니 살과 뼈가 맑아지고
 여섯 잔을 마시니 신선과 통하게 되며
 일곱 잔은 차마 마실 수가 없네. 양 겨드랑이에서 솔솔 맑은
 바람이 일어나니 봉래산이 어디 댜 고?
 나는 이 맑은 바람을 타고 훨훨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현장, 2010 : 21).

노동의 칠완 다시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칠완 다시는 노동이 맹간의가 보낸 신차를 받고 보답으로 다시를 적어 보낸다.

走筆謝孟諫議寄新茶

一 碗 喉 吻 潤,
 兩 碗 破 孤 悶,
 三 碗 搜 枯 腸 唯 有 文 字 五 天 券,
 四 碗 發 輕 汗, 平 生 不 平 事, 盡 向 毛 孔 散,
 五 碗 肌 骨 散 清,
 六 碗 通 仙 靈,
 七 碗 吃 不 得 也, 覺 兩 腋 習 清 風 生, 蓬 萊 山, 在 何 處?
 玉 川 子, 乘 此 清 風 欲 歸 去,

맹간의가 보낸 신차를 받고 붓 가는대로 쓰다.

한 사발에 목과 입술이 적셔지고
 두 사발에 답답함이 풀리네.
 세 사발에 모자란 머리에서 책 오천 권이 떠오르니
 네 사발에 쉬이 땀이 흘러 평생 살며 불평했던 일들이 모두
 땀구멍으로 흩어지네.
 다섯 사발에 살과 뼈가 가벼워지니
 여섯 사발에 신명과 통하네.

일곱 사발을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양 겨드랑이에 시원한 바람이
 이는듯하니 봉래선이 어디인가?
 옥천자여! 바람타고 봉래산에 가자꾸나.⁸¹⁾

② 황산곡(黃山谷·1045-1104)의 다시

법정이 애송하였던 황산곡의 다시는 추사 김정희도 애송하던 다시이다.

말없이 앉아 차를 드니
 반쯤 마셔도 향기는 처음 그대로 靜坐處茶半香初
 일어서 움직이면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妙用時水流花開
 (법정, 1978 : 69).

③ 충지선사(忠志禪師·1226-1292)⁸²⁾의 다시

선사의 다시는 다음과 같다.

배고파 밥을 먹으니 飢來喫飯飯尤美
 밥맛이 좋고
 자고 일어나 차를 마시니 睡起啜茶茶更甘
 맛이 더욱 향기롭다
 외떨어져 사니 地僻縱無人扣戶
 문 두드리는 사람 없고
 빈집에 부처님과 함께 계시니 庵空喜有佛同龕
 근심걱정이 없네(법정, 1996 : 22). (이상현, 2010 : 295).

81) <http://blog.daum.net/dongcho/>

82) 고려후기의 고승이다. 속명은 위원개(魏元凱), 자호는 복암(宓庵)이다. 첫 범명은 법환(法桓), 나중 범명은 충지(沖止)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이며, 원나라 세조의 흠모를 받았으며, 원오(圓悟)의 법을 이어 수선사(수선사)제 6대 국사가 되었다. 승탑은 송광사 남암(南庵)의 옛터 북쪽에 있으며, 입적 후 22년만인 1314년(충숙왕 1)에 제자들이 원감국사 비를 세웠으나 전란 중에 파괴 되었고, 약 200년 전 그 자리에 중건 되었다(NAVER 위키백과).

④ 허균(許筠·1569-1618)⁸³⁾의 누실명(陋室銘)

누실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누실명(陋室銘)〉

남쪽으로 두 개의 창문이 있는 손바닥만 한 방안
한낮의 햇볕 내려 쬐이니 밝고도 따뜻하다
집에 벽은 있으나 책만 가득하고
낮은 배잠방이 하나 걸친 이 몸
예전 술심부름하던 선비와 짝이 되었네.
차 반 사발 마시고 향 한가치 피어두고
벼슬 버리고 묻혀 살며 천지고금을 마음대로 넘나든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에서 어떻게 사나 하지만
내 둘러보니 신선 사는 곳이 바로 여기로다
마음과 몸 편안한데 누가 더럽다 하는가.
참으로 더러운 것은 몸과 명예가 썩어 버린 것
옛 현인도 지게문을 축대로 엮어 살았고
옛 시인도 때 담집에서 살았다네.
군자가 사는 곳을 어찌 누추하다 하는가.⁸⁴⁾(법정, 1999 : 163-164).

법정(1999 : 163)은 위의 교산시비에 대해 허균의 누실명이란 글에서 몇 구절 뽑아 옮겨놓은 글로서 누실명 전문은 위대한 한국인시리즈 중 이이화의 〈허균〉

83) 조선시대 문인이자 열정적인 독서가이며, 많은 책을 낸 저술가이다. 개혁적인 정치사상가. 국방이론가, 종교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 최초의 〈학산초담〉, 〈성수시화〉 등을 저술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20년 전 병자호란을 예언하고 그 대비책과 바른 피난길을 제시하였으며, 명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서적을 가져와 천주교를 소개하였다. 또 사회제도의 모순과 정치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등 실천적인 삶을 살았지만 국가의 반란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 당한다(법정, 2010 : 370).

84) 房闊十笏, 南開二戶, 年日來烘, 既明且煦, 家雖立壁, 書則四部, 餘一犢鼻, 唯文君伍, 酌茶半甌, 燒香一炷, 偃仰棲遲, 乾坤今古, 人謂陋室, 陋不可處, 我則視之, 清陪玉府, 心安身便, 孰謂之陋, 五所陋者, 身名並朽, 憲也編蓬, 潛亦環堵, 君子居之, 何陋之有(<http://blog.daum.net/gobang53/>).

번역으로 실려 있는 글을 몇 군데 표현은 고쳐 적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다시

추사의 다시는 다음과 같다.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다시이다.

예전부터 선인들은 모두다 차를 사랑했네.
차는 군자와 같아 그 성품에 샷됨이 없기 때문

古來賢聖俱愛茶
茶如君子性無邪(법정, 1993 : 98).

⑥ 초의선사(1786-1866)의 다시

초의선사가 추사의 아우 산천도인(山泉道人)에게 보낸 다시이다.

밝은 달은 촛불이요 벗이어라
흰 구름은 자리가 되고 또한 병풍일레라.
대숲소리 솔바람소리 모두 시원스러워
내 청한(淸寒)한 마음을 일깨워주네
흰 구름 밝은 달을 손님으로 맞으면
도인의 앗은 자리 이보다 나을까(법정, 1993 : 97-98).

⑥ 작자미상의 다시

보았네, 못 보았네, 떠들지 말고
그대도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손님접대는 이것 뿐
절집은 원래 잔정 따윈 없다네(법정, 1994 : 299).

(2) 범정이 즐겨 본 다화(茶畵)

즐겨본 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정(1978 : 64-65)이 즐겨 본 다화는 소당 이재관(李在寬·1783-1837)⁸⁵의 <오수도(午睡圖)>이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몇 해 전 덕수궁에서 한 개인이 수집한 것으로 「한국미술특별전」이 열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소당(小塘)이재관(李在寬)이 그린 <오수도(午睡圖)>에 반해 세 차례나 전시장을 찾아갔었다.

그림은 한그루 늙은 소나무아래 초당(草堂)이 있고, 흰히 들여다 보이는 초당 안에서는 한 노옹(老翁)이 비스듬히 서책(書冊)에 기대 채 낮잠을 즐기고 있다. 초당 곁 벼랑아래서 동자가 다로에 부채질을 하다 말고, 노송아래서 즐고 있는 한 쌍의, 학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풍경이었다. 그때 그 그림의 분위기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토록 뻔질나게 덕수궁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쳐인 강 건너 다래헌(茶來軒)으로 돌아와서는, 샘물을 길어다 그 <오수도>의 분위기를 연상하면서 혼자서 차를 달여 마시곤 했었다. 그 후 그 그림이 우표로 발행되자 나는 한꺼번에 백장이나, 사두고 쓰기도 했었다.

(3) 범정의 다시(詩茶)와 다화(茶畵)

현장스님(2010 : 46-47)은 범정의 다시와 다화에 대해서 ‘범정스님은 항상 우리 녹차를 즐겨 마셨던 차인이셨다. 멋을 즐겼으나 거기에 결코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찾 자리의 분위기를 지인에게 작은 선물을 받거나 편지를 받으면 단순한 산자락이나 찻잔그림에 차에 관한 계송 또는 다시들을 붓글씨로써 보내셨다. 그 글이나 선물 하나하나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고 차향이 흐른다.’고 말하였다.

정찬주(2011 : 61)는 ‘스님의 모든 그림에는 다관과 찻잔이 하나뿐이다. 찻잔이 두개면 스님식의 묵화가 아니다. 찻잔이 하나인 까닭은 스님께서 차를 홀로마시

85) 조선후기의 화가, 구름 초목 새 등을 잘 그렸고, 초상화에도 능해 태조의 어진(御眞)을 그리기도 했다. 전통적인 수법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남종화의 세계를 수립한 화가이다. 작품은 《송하인물도(松下人物圖)》, 《약산초상(若山肖像)》, 《선인도(仙人圖)》, 《전가독서도(田家讀書圖)》 등이 있다(NAVER 두산백과).

고 있는 모습의 상징일 것이다' 고 하였다.

법정의 다시와 다화를 살펴보면 다시는 다화와 같이 그려져 있으며, 다화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그린 것으로 다시의 밑에나 옆에 중앙에 같이 그려져 있다. 한 개의 찻잔과 다관이 전부이다.

법정이 현묵스님에게 보낸 차 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묵(墨)스님께

해마다 잊지 않고 화개(花開)꽃 햇 차를 보내주어 받을 때마다 반갑고 송구스럽습니다. 정성스레 보내주시니 지리산의 정기와 우리 묵스님의 사랑의 향기를 함께 접하는 복(福)을 누립니다.

날씨 탓인지 금년차가 전반적으로 싱거운 감이 있습니다.

운상차(雲上茶)는 여전히 세작에다 엽록소를 지니고 있지만 올해는 좀 싱거운듯하고, 쌍계우전(雙溪雨前)은 너무 덩어 싱그러운 차향(茶香)이 감해진 듯합니다.

요 근래 조계산의 차가 보잘 것 없이 된 것은 선사(禪師)가 가시고 나서 쇠잔해진 가풍(家風)이 그대로 드러난 듯싶어 가슴 아픕니다.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고자 불필요한 소음과 관계를 전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좋은 여름 지내십시오.

보내준 정 생각하면서 차 공양 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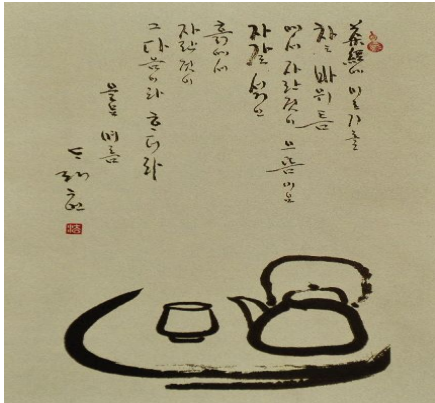
불탄 전일 불일암에서 정(頂)합장(현장스님, 2010 : 47)

다음 작품들은 법정의 선·다시(禪·茶詩)와 선·다화(禪·茶畫)작품이다

선·다시(禪·茶詩)와 선·다화(禪·茶畫) 작품



〈사진 14〉 고현교수에게 부채에 그려준 선시와 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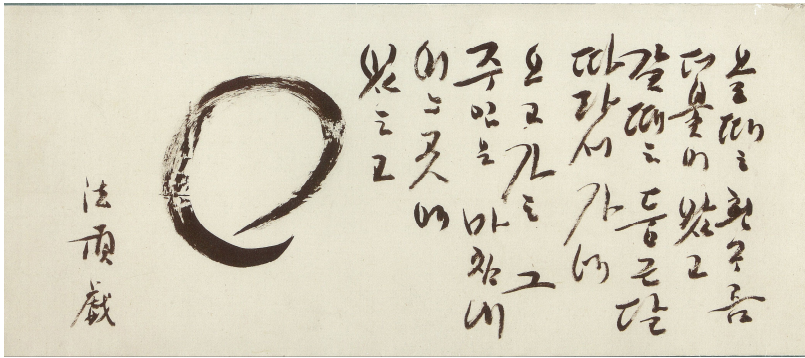


〈사진 15〉 손병철 박사에게 그려준 다시와 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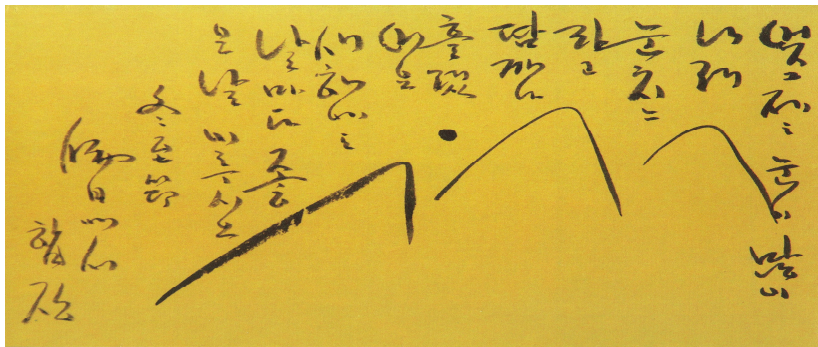


〈사진 16〉 지묵스님에게 부채에 그려준 다시와 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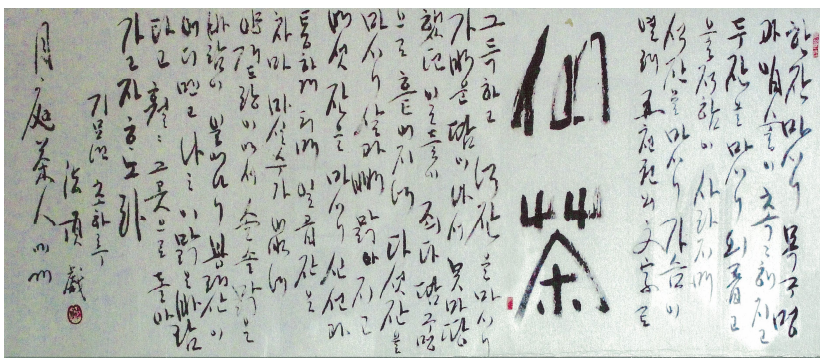
(출처 : 현장, 「법정스님 禪 墨」, 도서출판다래헌, 2010, p.169, p.23, p.171).



〈사진 17〉 덕현스님
에게 그려준
선시와 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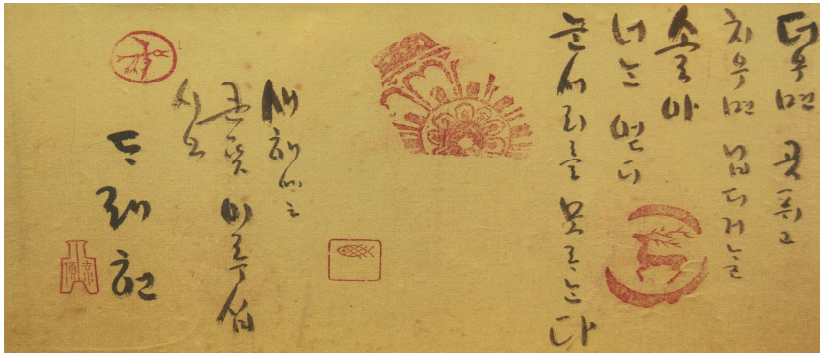


〈사진 18〉 대자화보살
에게 보내준
편지와 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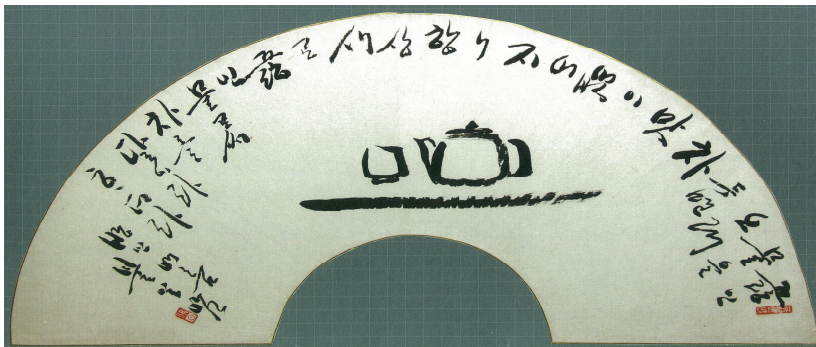


〈사진 19〉 월정다인
에게 보내준
철완 다시와 다화

(출처: 현장, 「법정스님 禪 墨」, 도서출판 다래헌, 2010, p.55, p.115, p.21).



〈사진 20〉 현장스님
에게 보내준
선시와 선화



〈사진 21〉 현장스님
에게 보내준
부채 다시와 다화



〈사진 22〉 법정의 '茶禪一味'
도자기
(김포다도박물관 손민영관장)

(출처 : 현장, 「법정스님 禪 墨」, 도서출판 다래헌, 2010, p.71, p.15, p.197).

위의 선·다시와 선·다화작품들은 법정이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고현교수, 덕현스님, 대자화, 현장스님에게 보낸 선시와 선화는 같이 그려진 작품으로 선시, 선화가 4작품이다. 다시와 다화는 지묵스님, 손병철 박사, 월정다인, 현장스님에게 보내었으며 다시와 다화는 같이 그려졌다. 손민영 관장에게는 도자기에 다선일미의 글을 쓴 작품으로 다시, 다화는 5작품으로 선시 선화를 합한 모두 총 9작품이다.

법정의 선시는 담백하고 간결하며 간단한 글을 부채나 색 화선지에 적었으며 선화는 주로 선으로 된 수묵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현교수에게는 부채에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선시와 선화를 그렸으며, 덕현스님에게는 원을 그린 선화와 ‘올 때는 흰 구름 더 불어 왔고 갈 때는 둥근달 따라서 가네. 오고가는 그 주인은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라는 선시를 보냈으며, 대자화보살에게는 ‘새해에는 날마다 좋은날 이루어라’는 내용의 편지에 산의 선화를 그렸으며, 현장스님에게는 ‘새해에는 큰 뜻을 이루어라’는 내용의 선시로 보내었다. 간단한 내용의 선시나 안부내용으로서 간결한 산의 그림에 조그만 점으로 해를 상징한 선화들로서 붓이나 펜으로 그려서 보냈다.

다시나 다화를 살펴보면 다시의 내용은 지묵스님에게 부채에 ‘빛과 향기와 맛을 온전히 할지로다’는 차에 대한 내용의 다시를 적고 다관과 찻잔이 하나뿐인 그림을 수묵으로 그려주었다. 손병철 박사에게는 다경의 내용 중에 차에 관한 내용과 다관과 찻잔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 월정다인에게는 뒷부분 개사한 노동의 칠완 다시를 적어 보내었고 차(茶)자를 산 모양처럼 그렸다. 현장스님에게는 부채에 찻물에 관한 다시와 다관과 찻잔이 하나뿐인 수묵으로 된 그림을 그려 보내었다. 손민영 관장에게는 도자기항아리에 다선일미를 한자로 적었다.

법정이 지인들에게 보낸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그린 선시, 선화, 다시, 다화는 보낸 이들에게 고마움과 반가움의 표시나 스님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라는 격려로 보낸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낸 선시나 선화, 다시나 다화를 살펴보면 법정의 간결하고 단순한 선적인 기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V. 법정의 선차사상(禪茶思想)인 사회공헌

법정은 수행자라는 본분을 잃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혜와 자비를 나누며 살다 가신 선승이며 차인이었다. 기계문명의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의 마음을 글로써 정화시키며 세상에 보여준 나누는 삶의 모습은 스님의 다선일미(茶禪一味)와 ‘맑고 향기롭게’의 선차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정은 민족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차보급의 확산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초석이 되며 민족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선차사상은 한사람의 마음수행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와 대중에게 연결시키고자 사회운동을 펼쳤다는 점이 주목되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창하였다.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내 마음을 먼저 맑히고 세상을 위해 향기로우심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의 선수련회와 차담(茶談)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자신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데 앞장섰다. 그의 선차사상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 모두는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연꽃의 생리를 배워가야 하겠다.

그리고 법정은 그의 삶 후반기에 창건한 길상사를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모임의 일환으로 길상사의 선 수련회와 다도(茶道)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사람들이 맑아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였다.

법정이 실천한 선차사상의 현대사회공헌 중 본 연구 5 장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과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맑고 향기롭게’살아가기 운동은 1993년 법정이 주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서 출발하였으며,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교계에서 제안하는 최초의 범국민운동인 종교와 종파를 떠난 순수 시민운동이다(韓庸愚, 1994. 24).

법정은 “답답하고 삭막한 현실을 정화할 수 있는 불교운동을 늘 생각하다 연꽃을 떠올렸고 우리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배경은 법정의 ‘맑고 향기롭게’ 사상에서 싹트게 된 것으로 법정은 평생 처음으로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인해 모임의 중심에 서게 된다.

‘맑고 향기롭게’의 사상이 싹트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맑고 향기롭게’의 사상이 싹트게 된 배경

법정(2010 : 153-154)은 ‘맑고 향기롭게’의 사상이 싹트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시대가 하도 혼탁하고 살벌하고 메말라가는 세태이기 때문에, 본래 맑고 향기로운 인간의 심성을 드러내어 꽃피워 보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세상을 타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지닐 때 우리 들레와 자연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질 것이고,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상도 또한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

2)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소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시작에 대한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⁸⁶⁾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의 메아리를 뜻합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

86) 길상사 [http:// www. kilsangsa.or.kr/](http://www.kilsangsa.or.kr/) 맑고 향기롭게.

상과 자연을 본래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뜻을 함께 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수시민 모임입니다.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무소유 사상을 설파하던 법정스님은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자 1992년 강원도 산골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홀로 수행 정진하던 중 1993년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기념관, 창덕궁 부용정 연못의 연꽃이 모두 없어지는 기막힌 현실에, 아연실색 하며 ‘살벌하고 삭막한 현실에 푸근하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우면 어떨까’ 하는 소박한 생각으로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법정(류시화, 1998 : 159)은 어떤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시작하자 잘 아는 스님이 어떻게 그런 머리 무거운 일을 해나가겠냐고 물은 적이 있다. 번거로운 일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냈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중이 밭값은 해야 되겠지’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이 일이 밭값을 하는 일인지 밭을 지는 일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1)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취지문

‘맑고 향기롭게’운동의 취지문 <표 18> 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⁷⁾

87) 길상사 [http:// www. kilsangsa.or.kr](http://www.kilsangsa.or.kr). 맑고 향기롭게.

<표 18>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취지문

‘맑고 향기롭게 운동’취지문

흔히들 마음을 비우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을 맑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는 없다. 또 실제 생활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이처럼 여겨지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다. 마음이란 결코 말로써, 관념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선행(善行)을 했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선행이란 다름 아닌 나누는 행위이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 있던 것들을 그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일 뿐이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인간이 적은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았다면 오늘날 같은 자연의 오염, 환경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천연의 생수 등등 자연이 인간에게 무한정 베푸는 것에 비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편리함, 편안함만 추구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협할 지경이 되었다. 이제 우리들, 인간들은 지혜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나눌 줄 알고, 자제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알고, 서로 손 잡을 줄 아는 심성을 회복해 가야만 한다. 이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길이며, 삶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방법이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한다. 하나는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냄이 없도록 사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행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있어야 한다. 이 두 길을 함께 하고자 여러분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1994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모임 발족 시 범정스님의 강연 내용-

(2)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구성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추진위원회

처음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추진위원회(변택주,2012:194)는 다음과 같다.

법정의 발의로 처음에는 현호스님, 청학스님, 고현교수가 첫모임을 갖고 준비되었으며, 정목스님, 윤청광, 김형균, 김재진, 이계진, 김자경, 정채봉, 이성룡, 김유후와 박수관 등 그 밖의 몇몇 사람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운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② 「연꽃스티커」의 상징

연꽃 스티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은 고현교수에게 연꽃스티커 제작을 부탁하였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 고현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교수! 스티커로 쓸 수 있는 연꽃 하나 그려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 줄 수 있겠어요?” <중략>

“스님 열 번이라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짧은 화상(畵想)으로 스님의 깊고 넓은 사유를 담아 낼 수 있을지...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각박한 세파에 뿌리박고 살아도, 맑고 향기로운 연꽃을 한번 피어보자는 우리들의 소박한 소망, 괜찮지 않습니까?” 힘든 자, 없는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작은 등불 하나 켜보자는 스님의 뜨거운 발원...거대한 무게로 조여 들었다(고현, 2015 : 76).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상징되는 「연꽃스티커」가 운동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정에 의해 운동의 상징인 「연꽃스티커」를 그리게 된 동기를 정찬주(2011 : 256)는 이야기하고 있다.

스님에게 카톨릭의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스님의 심혼(心魂)에 불을 댕겼다. 당시 스님을 모셨고 길상사를 창건하는데 실무를 보았던 청학스님의 얘기도 잊히지 않는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아주 단순한 계기로 출발했어요. 천주교의 ‘내 탓이오’ 스티커를 스님께서 보시고는 우리도 연꽃 한 송이 스티커를 만들어 보자고 서너 번 얘기하다가 현호스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작한 겁니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방향은 스님 책을 참고해서 정했구요. 스님 내면에 맑고 향기로운 세상의 서원이 충만해 있다가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한 장이 전광석화처럼 스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것이 맞는 말일 듯하다.

「연꽃스티커」(韓庸愚, 1994. 1. 24)는 조선대학교 미대교수인 고현교수가 진흙탕 속에서도 한 점 티 없이 맑고 향기로운 연꽃 모습을 디자인한 것으로 우표 크기에서부터 14× 7cm 크기의 실내용 두 가지와 차량용 세가지등 모두 다섯 가지로 제작비와 발송비를 위해 5종 한 묶음에 1천 원씩 판매하기로 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천덕목 9개항을 실천사항을 확정하고 운동의 상징으로 20만장을 제작한 「연꽃스티커」 붙이기 보급에 적극 힘쓰기로 하였다.

법정은 임현철(1994. 5. 18)과의 대담에서 연꽃스티커의 연꽃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성들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이야기 나눈 대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현철 : 올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 정 :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돌면서, 확산시키는 중입니다. 비록 연꽃이 인쇄된 스티커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이 연꽃의 의미를 새기면서 본다면 엄청난 힘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 차분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하는 감춰진 우리네, 심성들이 이 연꽃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활짝 피어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 관한 대답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한 후에 불교방송에서 이루어진 법정과 이계진과의 대답에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대답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계진 :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시고 시작한 것이 햇수로 만 3이 되잖습니까. 세상을 스님사시는 강원도 산골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운동이 다른 캠페인들에 비해 좀 조용히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요.

법 정 : 원래 맑고 향기롭다는 것 자체가 조용한 것을 지향하고 있을랐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제자신의 체질도 그렇고 여기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용히 꾸준히 이어나가지는 취지에 공감 하고 있지요.

이계진 : 지역적으로 지부를 만들고, 지역 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도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 방편일 듯싶습니다.

법 정 : 지금까지 춘천,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지부활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전주, 광주, 원주 쪽으로 모임이 퍼져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불교방송하고 운동을 병행해서 하기로 했고, 작년부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지향하는 3대 지표로 마음을 맑게, 자연을 맑게, 세상을 맑게,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마음부터 잘 다스려 나가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

이 좋겠습니까.

법 정 : 자연이건 사람이건 세상이건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서 맑고 투명하다면 그 그림자인 세상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자체가 순화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맑고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맑고 향기롭게'운동도 제일 먼저, 우리마음을 맑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 그때그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나의 온전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자문하는 기회를 가질 때 삶이 조금씩 개선되어갑니다. 요즘 이야기되는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것, 외향적인 것, 생산적인 것, 표피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까 마음이 험한 겁니다. 옛날보다는 생활이 풍족해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자리는 허전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쏠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사람마음을 안정시키고 맑히는 것은 올해 중심과제로서 많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계진 : 스님, 강원도 산골에 계시니까 항상 느끼시겠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말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해야 배울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법 정 : 소위 현대문명의 해독제는 자연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기댈 데가 자연입니다. 또 자연은 인간의 존재와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크게 보면 우주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인데 자연은 그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커다란 우주생명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게 된 것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기물로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양의 전통사상은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 여겼습니다. 등산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니다. 반드시 입산, 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말은 감히 쓸 수 없었지요.

이계진 : 등산이라면 정복의 의미가 더 많죠.

법 정 : 흔히들 산을 정복했느니 따위의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정복한다는 것은 거기서 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 몇 분도 안돼서 영금영금 기어 내려오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커다란 생명체로 여긴다면 오늘날과 같이 환경오염이라든가 과소비라든가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계진 :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처음 출발할 때 범종교적인 운동으로 펼쳐지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주가 스님이라서 그런지 불교적인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 하면 종교를 떠나 범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법 정 : 원래 ‘맑고 향기롭게’운동은 많은 종교를 초월해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가꾸어 가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도 불자를 비롯해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등 다양합니다. 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제가 승단에 있어 몸을 담고 있어 꼭 불자만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맑고 향기롭게’운동은 전혀 종교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더욱 성숙된 시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회원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이은자, 1996. 1.26).

④ 초창기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활동 현황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 초창기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 연꽃스티커배부

- 서울본부 발족식거행(3월 26일, 서울 구룡사)
- 우리 꽃 나누기 실시(쪽씨 무료배포 및 관음대비양로원 우리 꽃, 나무 심어 주기)
- 관음대비 양로원 정기방문으로 봉사시작
- 1회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개최,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 지급
(호암아트홀, 노영심 김광석 김 영동 정목스님 출연)

1995년

- 회원 및 일반인 대상 무료배포용 소식지 월간 맑고 향기롭게 창간
- 영아시설인 ‘한국사회 봉사회’ 정기방문 봉사 시작(1998년 종료)
- 2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장학금지급
(호암아트홀 노영심 김광석 김 영동 정목스님 출연)

(4)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실천덕목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실천덕목이 생긴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청광은 스님께서 종이 밥값을 하고 가겠다고 주신 ‘맑고 향기롭게’ 여섯 자에 마음, 세상, 자연과 이에 따른 실천덕목을 만들어서 운동의 실천이 되게끔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변택주, 2013 : 338-339).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실천덕복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른 실천덕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②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외로운 이들, 걸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③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포기, 나무 한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3)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 법정이 주창한 ‘맑고 향기롭게’운동은 1994년 종교를 초월한 범국민적인 순수시민모임으로 창립하여, 1996년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1997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내에 중앙모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부산, 경남, 광주, 대전 등의 지부에서도 사무국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중앙모임 사무국을 길상사에 마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게끔 정부지원금을 준다는 연락이 왔을 때 김자경 실장은 법정에게 그 돈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그때 그 자문의 대답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생각은 이래요. 우리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마음을 맑게 하

고, 회원들 몸을 움직여서 나누고, 또 우리 주머니형편에 따라 능력껏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기관에서 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변택주, 2012 : 199).

(1)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사단법인 사업현황

'맑고 향기롭게'사단법인에서 활동한 사업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6년

- 도봉산 쓰레기 줍기를 시작으로 관악산 등산로 매립쓰레기 캐내기 매달 실시
-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맑고 향기로운 여름 수련회 실시
-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인가(비영리불교법인)
- 3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장학금 지급
(동국대 대강당, 각 지역모임 회원 출연)
- 보육시설인 '송암동산' 정기방문 봉사

② 1997년

- 홀수 달마다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사찰환경 생태기행 실시
- 짝수 달마다 아나바다 정신고취를 위한 맑고 향기롭게 알뜰시장 개설
(2004년 종료).
- 회주 법정스님 정기대중법회 때 장애인 차량이동 봉사 실시
- 4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장학금 지급
(길상사 설법전에서 김영동과 서울시립국악단원 출연)

③ 1998년

- 정기산행을 통한 자연보호활동을 펼칠 산행모임 발족

- 생태 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길상사를 대상으로 한 생태사찰 만들기 실시(2004년 종료).
- 맑고 향기롭게 장학사업 전개
- 노숙자, 노인대상 무료급식소 운영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보문선원 ; 성광스님)

④ 1999년

- 결식아동 및 무의탁노인, 극빈 장애인 가정대상 결식이웃 밑반찬지원 사업 시작
- 우리 꽃 나누기 실시 ; 1만 포트, 서울과 대구모임 연대활동

⑤ 2000년

- 생태문화 조성을 위한 사찰생태문화기행실시
- 백련나누기 실시(아산 인취사)
-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금 명칭변경
- 결식이웃 후원을 위한 이당 도예전 전시

⑥ 정기적 주요활동

-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연꽃스티커를 붙이기,
- 맑은 나를 찾아 떠나는 향기로운 여행 ‘맑고 향기롭게’ 선 수련회

맑고 향기롭게 회원인 강정옥(변택주, 2013 : 242)은 선 수련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강화도에서도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유스호스텔이 공교롭게도 ‘강화군 길상면’에 있었다. “그때 윤 청광선생님과 옛 멤버들과 젊은 청년들이 1박 2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사는 실천

지침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해서 쪽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과 자연과 세상을 얘기하는데, 저는 주부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세제를 써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엌에서부터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랬더니 스님이 ‘주부가 보는 각도가 따로 있네.’ 그러시면서 그래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의 선 수련회는 참선프로그램과 스님과 회원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차담(茶談)프로그램이 있다.

(2) ‘맑고 향기롭게’ CI(Corporate Identity)

‘맑고 향기롭게’ CI를 <표 19>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맑고 향기롭게’ CI

CI이란 Corporate Identity의 약어로서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동일성을 확립해 기업의 존재가치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에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위한 디자인통합정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맑고 향기롭게’의 CI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맑고 향기롭게’의 CI는 연꽃캐릭터(Character), 심볼(Symbol), 로고(Logo), 일러스트캐릭터 연풍(蓮風)등이 있다.

① 심볼(Symbol)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살자”는 법정스님의 뜻을 담아 팔정도(八正道)의 상징으로 「8개의 꽃잎과 이제 막 피어난 형태」를 그린 것입니다. 9개의 별은 「9가지 실천덕목」을 뜻하고 그 중에 흰 별 3개는 마음, 세상, 자연을 상징

하는 세 줄기를 뜻한다. ‘진 주황’의 색채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뜨거운 ‘심장’, 즉 맑고 향기롭게 회원의 마음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본심 불은 20여년간 사용해왔던 캐릭터 연꽃과 색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있는 근본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심불역시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하여 제작하였다.

② 연꽃캐릭터(Character)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우리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간절한 마음과 정신을 상징한 것이다.

③ 로고(Logo)

세종대왕 한글 창제 시 사용된 ‘갑인자’ 글꼴을 참고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접근하여 쉽게 읽히고 친근감을 주기위해 받침 글과 높이를 차별화하였으며, 영문 로고는 ‘맑고 향기롭게’를 영작할 때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표기 하였는데, 순수한 우리문화의 보급이라는 의미와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세계에 파종하자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④ 일러스트 캐릭터 ‘연풍(蓮風) ’

연꽃(백련)과 별을 펠친그림으로, 연꽃 캐릭터를 토대로 쉽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연꽃들이 한쪽으로 기운 듯 ‘바람’이 느껴지는 것은 인위적이 아닌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그림은 맑고 향기롭게 CI 제작내용으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CI 제작내용



〈그림 1〉 심볼



〈그림 2〉 연꽃 캐릭터

맑고 향기롭게 Maigo
맑고 향기롭게 Hyanggiropge

〈그림 3〉 로 고



〈그림 4〉 일러스트 캐릭터 연풍(蓮風)

(출처 : 〈그림〉 1, 2, 3, 4 길상사 [http:// www.kilsangsa.or.kr/](http://www.kilsangsa.or.kr/) 맑고 향기롭게).

2. 근본도량 길상사(吉祥寺)

1) 길상사(吉祥寺) 창건

길상사는 법정이 창건한 절로서 창건하게 된 배경, 창건할 때의 조건과 스님들이 지켜야 할 부분, 길상사의 명칭과 발원, 공덕주 길상화보살 김영한(金英韓), 길상사의 가람건축물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길상사를 창건하게 된 배경

법정(2009 : 131-132)은 길상사 창건기념일에 길상사가 생기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교단에서 세운 절은 그 시작부터가 시주의 보시에 의해서였습니다. 최초의 절은 마가다국의 근교에 있는 죽림정사(竹林精舍)로, 마가다국의 왕 밤비사라의 발심에 의해서 세워진 절입니다. 그는 부처님이 수행자이던 시절에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교단이 형성되자, 절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제가 불일암에 살 때의 일입니다. 겨울이면 직접 끓여 먹는 자취생활이 지겹고 세상구경도 할 겸 1987년 겨울부터는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송광사분원 고려사에 가서, 서너 달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경전번역 일거리를 가져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거리를 아마 4, 5년 했을 겁니다. 이 무렵 서울 성북동의 요정 대원각의 주인 김영한(金英韓)여사를 고려사 화주(시주) 대 도행보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한님은 당시 <샘터>에 매달 실리던 저의 글을 읽기 위해 정기 구독자가 되었노라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자 저는 번거로운, 일에 얽혀들기 싫어하는 천성 탓에 마음을 내지 않았습다. 그러다가 제 거처를 강원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해 겨울, 중이 하는 일 없이 공밥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자책을 느꼈고, 세상에 도움이 될 일을 이것저것 모색하던 차에 “맑고

향기롭게'살기 운동을 전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 쓰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겨, 구체적인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거듭되는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2) 길상사를 창건할 때의 조건과 스님들이 지켜야할 본분

법정(2009:132-133)은 길상사를 창건할 때의 조건과 승가의 재산인 절, 스님들이 지켜야할 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절을 만들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無住相)보시(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는, 보시라는 생각자체를 잊은 진정한 보시)로 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이다 이런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사찰운영을 의논하는 자리에서(그때 '맑고 향기롭게' 이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저쪽 재산관리인이 앞으로 절을 운영하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어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절을 세우자는 처음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절 살림에 이사와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절에 사는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절 살림입니다. 그 사이 다른 여러 스님들이 이곳에 절을 세울 생각으로 시주의 조건에 맞도록 절을 만들겠다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시주 김영한여사의 뜻은 10년 동안 초지일관 오로지 저에게 이 장소를 맡기겠다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9년 전 길상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길상사가 창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주 김영한이 세상을 뜨게 되자 저쪽 재산관리인이 절의 일부 부지(지금의 지장전과 주차장자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다.

법정(2009 : 133-134)은 길상사를 종단에 송광사분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는 등록을 한 이유와 승가의 재산, 승가의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절은 종단의 공동재산이지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주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지만, 절은 개인의 사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승가의 규범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송광사 분원으로 이 절을 종단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중략>

불교교단의 계율(율장·律藏)에는 승가물(僧伽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사방승물(四方僧物) 또는 상주승물(常住僧物)과 현전승물(現前僧物)이 있는데 사방승물은 그 도량에 사는 스님들이 함께 쓰는 승단의 공유물을 가리킵니다. 그 절의 건물이나, 방이나 전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전승물은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이 사사로이 쓰는, 개인의 사물을 말합니다. 사방사물은 현전 승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율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정신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길상사에 제 개인 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산을 내려올 때 행지실(길상사의 주지실)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절에서 단 하룻밤도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각이라도 자지 않고 떠납니다. 이와 같은 처신은 제 개인의 삶의 질서이며, 생활규범이기도 합니다. 이 도량에 살지도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 밖의 행위입니다.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노릇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더 맑고 향기로워집니다(법정, 2009 : 134-135).

(3) 길상사의 명칭과 발원

법정은 길상사(吉祥寺)라고 절의 명칭을 정하였다. 서울에 길상사가 세워지기

전에 프랑스 파리에 송광사본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으며, 이름이 좋아서 같은 이름을 정한 것도 있지만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한 인연 때문에 ‘길상사’라는 명칭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법정은 길상사가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좀처럼 마음이 놓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시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요정이었던 건물을 절로 바꾸면서 여기저기에 손대다보니 빛이 쌓여 갔기 때문이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발원을 하게 된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또다시 그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 염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보살피 주신 많은 분들, 소임을 보아온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공덕임을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법정, 2009 : 135).

(4) 길상사 공덕주 길상화(吉祥華)보살

공덕주인 길상화보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녀의 본 이름은 김영한(金英韓·1916-1999)이다. 김영환(2014 : 1)은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할머니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일제치하인 민족사의 암흑기에서 성장한다. 16세에 사라져가는 한국전통음악과 가무의 전승을

위하여 조선권번을 세워 불우한 인재들에게 고전궁중악과 가무일체를 가르친 금하 하규일의 문하에서 진향이라는 이름을 받아 기생으로 입문하였다. 한때 시인 백석으로부터 자야(子夜)라는 아명(雅名)으로 불리었던 그녀는 분단조국의 남한에서 1953년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뒤에 몇 편의 수필과 『백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규일 선생약전』, 『내 사랑 백석』 등의 저술을 내기도 했다. 노년에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아 스님을 친견한 뒤 생애의 높고 아름다운 회향을 생각하고,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하겠으니 청정한 불도량인 절로 만들어주시기를 청하였다. 그 후 10여년에 걸쳐 사양하시는 법정에게 받아주시길 거듭 청하여 결국 1995년 그 뜻을 이루게 된다. 1997년 12월 14일 대각사가 길상사로 명칭을 변경한 날, 그 아름다운 법석에서 그녀는 법정스님으로 염주 하나와 길상화(吉祥華)라는 법명을 받았고, 7천여 평의 절터와 전각모두를 보시하는 그녀의 바람은 단 하나, 이곳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어 그들 모두가 고뇌의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99년 11월 14일 그녀는 육신의 옷을 벗었다. 다비 후 그녀의 유골은 49재 후 유언대로 첫눈이 도량을 순백으로 장엄하던 날, 길상 현 뒤쪽 언덕바지에 뿌려졌다. 길상사에서서는 그 자리에 조그마한 돌로 소박한 공덕비를 만들어 세워서 그녀의 뜻을 기리고, 매년 음력 10월 7일에는 기재를 모셔 그녀를 추모한다. 그리고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은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장학금을 만들어 해마다 30명 안팎의 고교생을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하며 그녀의 뜻을 잇고 있다⁸⁸⁾

2) 길상사(吉祥寺)의 가풍

법정이 기대하는 길상사 가풍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길상사 맑고 향기로운 도량·가난한 절

김중서(변택주, 2013 : 203-204)는 길상사를 열 때, 법정스님은 스님들은 수행

88)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에 전념하고 재가불자들이 절 살림을 책임지라고 했다. “법정스님은 자신이 돈을 만지지 않고, 돈이 생기면 남에게 그냥 주고,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도 하지 않았던 분이니까 처음에 스님들이 돈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일절. 그런데 스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이라면 우습지만, 재가자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잘못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면서 스님들이 다시 살림을 맡았어요. 그리고 법정스님은 절이니까 하는 수 없이 재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재가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또 가난한 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나 봐요”라고 말하였다.

법정은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고 가난한 절이길 원하고 있었다.

가풍이라 할 것은 없지만 두세 해 전의 일입니다. 이 절이 빗이 많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떤 업자들이 절에 납골당을 지으면 어려움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며 주지스님과 저를 유혹했습니다. 설계도까지 가지고 와서 몇 차례나 즐랐습니다. 이 절을 만들 때 맑고 향기로운 도량, 또 가난한 절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을 만들면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신도들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도량이 아닙니다.

이 절의 신도들은 깊이 명심하십시오. 스님들은 절에서 한때 머물다가지만, 신도들은 대를 이어 이 도량을 지키고 보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신도들이 맑고 향기롭게 지키고 가꾸려는 의지를 잃지 않으면, 그 도량은 누가 와서 살던 향기로운 도량이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흥청거리는 절을 더러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청정한 부처님도량이 아닙니다. 돈 많은 절에 가보면, 스님들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그것은 절이 아니라 장사꾼들 장터입니다. 그런 도량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올 때 돈과 절을 가지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부처님의 마음과 자비심을 가지고 교화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절들이 생기고 도량이 생겨난 것입니다(법정, 2009 : 273-274).

(2) 길상사에서 사는 대중들이 나갈 때의 지침

법정(2009 : 274)은 길상사에 사는 대중들이 절을 나가게 될 때는 될 수 있는 한 그가 정한 지침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

저의 또 하나의 가풍으로, 주지스님과 대중스님한테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 일꾼이든 스님이든, 대중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간섭을 안을테니, 여기 사는 스님들이 알아서 하되. 누구든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도량에 들어왔으면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법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3) 길상사도량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 보존

법정(2009 : 274-275)은 길상사도량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절에는 우리가 이 도량에 오기 전부터 살았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오염된 대기 중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도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다치게 해서 안 됩니다. 제 허락 없이 나뭇가지 하나라도 자르지 말라고 늘 당부합니다. 나뭇가지가 건물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두고두고 지켜본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무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늘지고 습하다고 해서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늘 당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서 산 생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도량을 가꿀 때, 그곳은 진리의 빛을 받습니다. 이곳에 오면 모두를 좋아합니다. 여기 머물고 정진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그만큼 안으로 청정하게 정진하고 있어서 그 빛이 저절로 도량에 비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3) 길상사 선 수련회

선(禪)수련회는 길상사에서 하는 여름철에 4박 5일 일정으로 참선과 다도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여름에 하는 수련회뿐 아니라 주말 선 수련회가 한 달에 2번 진행되고 템플스테이에서도 참선과 다도체험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선과 다도프로그램이 있는 주말 선 수련회의 일정표를 <표 20>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선(禪) 수련회 일정표⁸⁹⁾

| 명칭 | 시 간 | 프 로 그 램 | 명칭 | 시 간 | 프 로 그 램 |
|----|---------------|----------------|----|---------------|-----------------|
| 첫 | 12:00 - 13:00 | 접수 | 둘 | 03:30 | 기상 및 세면 |
| | 13:00 - 13:20 | 사찰 예절 | | 04:00 - 04:40 | 새벽예불 |
| | 13:00 - 13:50 | 입재식 | | 04:50 - 05:50 | 나를 깨우는 108배 |
| | 13:50 - 14:30 | 사찰 안내 | | 06:00 - 06:30 | 아침공양 |
| 째 | 14:50 - 15:30 | 다도 | 째 | 06:30 - 07:00 | 포행(자율산책) |
| | 15:50 - 16:50 | 예불습의 | | 07:00 - 07:40 | 나에게 보내는 편지 |
| | 17:10 - 16:30 | 발우공양 | | 07:50 - 09:00 | 차담 (스님과의 대화) |
| | 16:45 - 20:00 | 영상법문 | | 09:50 - 09:20 | 회향식 및 기념촬영 |
| 날 | 20:10 - 21:30 | 참선 | 날 | 09:20-09:30 | 소감문 작성 |
| | 21:30-22:00 | 세면 및 취침, 소등 | | | |

89)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4) 길상사(吉祥 寺) 가람건축물과 길상사 전경

길상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2동에 위치한 삼각산 남쪽자락에 있는 도심 속에 있는 절로서, 범정스님에게 청정한 불도량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였던 길상화(본명 : 김영한)보살이 음식점이었던 대원각을 시주하면서 창건되었다.

1995년 6 월 13일 ‘대법 사’로 등록한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말사이며, 1997년 ‘길상사’로 절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길상사 가람 건축물의 대부분은 대원각 시절에 사용하던 건물들로서, 사원의 배치가 일반적인 사찰과는 차이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길상사의 가람건축물

가람건축물은 극락전, 지장전, 설법전, 관세음보살, 길상선원, 적묵당, 침묵의 집, 범종각, 일주문, 도서관, 선열당, 길상보탑, 소강당, 총신도 사무실, 신행단체 사무실, 종무, 안내실,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 나누는 기쁨(찾집), 바람 속 향기(커피자판기), 정랑(淨廊), 진영각, 스님들의 처소(송월각, 향당, 길상헌, 월조헌, 능인당, 죽림당, 반야당, 육화당, 보시실, 지계실, 인욕실, 정진실, 지혜실), 사중스님의 처소(정인당), 길상사 객실(혜탈실), 길상사 마당에는 길상보탑, 길상화공덕비 등이 있다.⁹⁰⁾ 길상사의 중요한 가람 내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극락전

아미타부처님을 봉안한 길상사의 본 법당이다.

극락전에 대해서 최완수(변택주, 2013 : 46)는 청학스님에게 중심건물이 어디냐고 물어 지금 극락전 자리를 중심법당으로 정하였다. 대웅전이 아닌 극락전이라 한 이유는 신라이래로 개인집을 절로 만들 때 대체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극락전으로 했는데, 극락왕생을 발원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전통이니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내어 중심전각이 대웅전이 아닌 극락전이라 하였다. 다른 절에서는 아미타전 미타전 무량수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미타불은 특히 정토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주불로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이라고도 한다.

90)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최완수(변택주, 2013 : 46)는 극락전에 아미타 삼존불을 모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특색 같은데, 고려 중반기 무신의 난이후로 아미타불 좌우보처를 경전 가르침대로 관음, 세지를 모시지 않고, 관음, 지장을 모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섭해 버린 거지요. 우리 겨레는 종합해서 함축하기를 좋아해요. 요점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만들지요. 그 전통에 따라 길상사 극락전에 아미타 삼존불을 모셨어요. 그리고, 길상사 극락전 아미타부처님은 달처럼 은근하고 푸근하며, 태안반도 백제불상이 본분이고, 부처님의 원형은 보덕사 부처님⁹¹⁾인데 송광사 부처님보다 길상사 부처님이 더 보덕사 부처님에 가깝다고 하였다.

불모(佛母) 김의식(변택주, 2013 : 322-327)은 불단의 탱화를 그렸다. 탱화 안에도 아미타불이 주 존이며 왼쪽에는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사천왕 가운데 지국 중장천왕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그리고 사천왕가운데 다문, 광목천왕이 그려져 있다.

그는 길상사 극락전 탱화를 그리기로 결정을 하고나서 법정에게 인사드리려고 길상사에 갔을 때 길상화보살도 같이 만난다. 김의식이 그때 만났던 길상화보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정스님이 길상화보살님한테도 절을 하라고 그러셔서 절을 올렸더니, 보살님이 ‘아이고, 내가 살다가 불모(佛母)님 절을 다 받아보네.’ 그러셨어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김의식은 길상사 극락전 후불탱화를 떡 바탕에 금니로 조성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1) 충남 예산군 가야산 보덕사 극락전에 홀로 계신 아미타여래상은 높이가 117센티미터로 고려 명종(1170-1197)때 조성하고, 조선 영조 2년(1726)에 중수한 종이불상이다.

법정스님께서 채색은 혼란스러운 감이 있으니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조성할 수 없느냐고 하셨어요. 그 어른성품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떡 바탕에 금니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셔서, 극락전 후불탱화는 떡 바탕에 금니로 조성했습니다.”

② 지장전

맨 아래층에 선열당이 있는 지장전은, 스님과 불자들의 공간으로 길상사 지장전은 고창 선운사 도솔암 지장보살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법정은 지장전의 전각 이름을 명부전과 지장전중 지장전으로 정한다. 길상사 지장전 지장시왕탱화(地藏十王幀畵)는 김의식이 그린 붉은 바탕에 금니로 그려진 탱화이다. 지장전탱화가 홍 탱화로 완성된 이유는 법정이 극락전에 그려진 흑 탱화와 달리 홍 탱화로 그려지길 원하였기 때문이다. 지장전 지장보살상 뒤로 가면 위패를 모시는 금 바탕에 연록색이 어우러지는 연꽃으로 조성된 부처님세계가 있는데 은근하고 말간 연화장세계를 그렸다.

김의식은 탱화를 조성할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순금바탕은 처음이었어요. 영가를 모시는 곳이어서 너무 밝고 화사해도 부담스러울 테니, 은은하면서도 화사하게 회화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법정스님께서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으셨어요. 순금을 바탕에 깎았는데, 부담도 느끼시고 그래서 살짝 펴서 가뿐히 바르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된 다음에 스님이 편안하고 색다른 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칙칙한 느낌이 들거나 무서워서는 안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랬지요(변택주, 2013 : 327-330).

③ 설법전

사람이 많아 모이는 강당의 명칭을 법정은 설법전과 무설전중 설법전으로 정한다. 설법전에 모신 부처님에 대해 최완수(변택주, 2013 : 50)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곳은 법을 설하는 설법전이니까 강인하고 장대한 느낌을 가진 부처님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모셔져있는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나온 순금불상을 원형으로 삼았어요,

길상사 설 법전부처님은 신라불상을 본분으로 삼고 있으며, 처음 당나라양식을 받아들인 황복사불상으로 근엄하고 당당하다.

⑤ 관세음보살

길상사 관세음보살상은 조각가 최종태가 조성하였다.

조각가 최종태(변택주, 2012 : 34)는 평소 조각완성을 관음상이라고 여겨 관음상을 조성하려고 이곳저곳 인연이 닿는 곳을 수소문하다가 법정이 길상사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같은 카톨릭 신자이자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정채봉 씨에게 자기의 소망을 전한다. 최종태를 만난 법정은 걸림 없이 무애자재한 미륵반가사유상 느낌을 살려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해 달라고 하였다.

길상사 불자가 보시한 돌 속에서 숨은 관세음보살님이 세상에 빛을 드러낸다.

⑥ 길상선원

제가자들을 위한 시민선원이다. 길상사 수련회나 다른 도량에서 3회 이상 선수련회를 마친 사람에게 한해 방부는 들일 수 있다. 선 원장스님의 지도로 일 년 내내 실참이 이루어지는 좌선 방이다.

⑦ 선열당

지장전의 맨 아래층이며 스님과 불자들의 공양간이다. 선열당 앞에는 작은 원형연못이 있으며 그 둘레에서 야외명상 또는 수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⑧ 길상보탑

이 석탑은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길상화보살과 법정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길상사와 성북성당, 덕수교회가 함께한 종교간 교류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영인

모자회장 백성학님이 무상으로 기증하여 2012년 11월 11일 복장봉인 품을 봉안 하였으며, 2013년 8월 25일 미얀마에서 1600여 년 전 고탑 해체과정에서 출토한 부처님 오색정골 사리, 응혈사리, 아라한사리 등을 새롭게 봉안하였다.

⑨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

극락전 옆에 있는 송월각 아래층이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중앙사무국업무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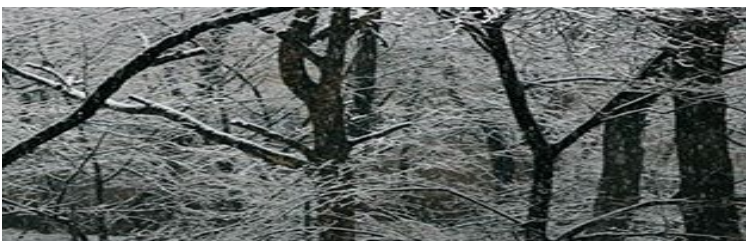
(2) 길상사 전경

사진으로 살펴본 길상사의 모습이다.

길상사의 전경



〈사진 23〉 길상사 일주문



〈사진 24〉 길상사 숲길

92)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사진 25〉 길상사 관세음보살



〈사진 26〉 길상사 극락전



〈사진 27〉 길상사 지장전



〈사진 28〉 길상사 진영각



〈사진 29〉 길상선원



〈사진 30〉 길상화보살 공덕비

(출처 : 〈사진〉 24, 28, 29, 30, 길상사<http://www.kilsangsa.or.kr/>).

VI. 결 론

본 연구 6장에서는 각 장에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과제에서는 법정의 선차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대를 살다 가신 법정선사의 선수행인 선문화와 차생활인 선차문화를 고찰한 것이다.

법정은 청정하며 올곧은 수행승으로 이 시대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무소유의 청빈생활을 생활철학으로 ‘무소유의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보이신 선(禪)의 진수를 깨달은 선승이며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차인(茶人)이었다. 그는 민족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차 보급의 확산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초석이 되며 민족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정신세계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선차정신은 한 사람의 마음수행을 통한 정화가 사회의 정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시민운동을 제창하여 자신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데 앞장섰다. 또한 길상사창건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등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과 끼친 공헌은 지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선사의 선차문화와 더불어 선차문화의 개념 및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시대적 변천과 현대에 와서 선차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크게 각광받고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를 고찰해 보았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차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무상선사가 처음 선차지법을 창안한데서 시작되었다. 선차문화의 성립배경을 살펴보면 선의 대가인 달마대사로부터 시작하여 선종의 깃다가풍(喫茶家風)과 다선일미(茶禪一味)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선종(禪宗)의 유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선차문화의 변천이 있었다. 선차문화가 웰빙(Well-Being)문화의 중심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크게 각광받고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는 현대정보화 사회가 주고 있는 물질만능, 기계문명의 공해로 찌든 현대인들의 심리에 스며드는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동양적, 한국적 전통문화인 선차문화의 정적인 효용(效用)을 통하여 평온과 휴식, 그리고 일상의 감성적 행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世界禪茶文化交流大會)는 제 1회가 2005년 10월에 중국백림선사(柏林禪寺)에서 개최되어 현재 7차까지 대회가 개최되었다. 7차 대회 때에는 2012년 한국의 서울에서 열려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둘째, 법정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서 그의 선차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법정의 재가구도기 시절은 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다가 대학 3학년 때, 우주고의 고녀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한다. 스승인 효봉선사를 만나 계를 받고 스님이 된다. 출가 후의 법정의 삶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승을 모시고 살았던 쌍계사 탐전, 불교대중화를 위해 글쓰기로써 서원을 세웠던 해인사와 운허스님의 부름을 받고 불교사전을 편찬했던 통도사, 암자생활을 하던 다래헌, 불일암,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자 강원도 오두막에서 수행했던 시절이다.

봉은사 다래헌 시절에는 함석헌선생과 같이 민주화 인사들과의 모임을 통한 현실참여시기를 보낸다. 불일암 시절에는 수행정진하면서 그 당시 송광사 방장이신 구산스님을 도와 송광사 선 수련대회 원장도 맡게 된다. 송광사 선 수련회는 전 사찰에서 선 수련회와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2010년 법정의 입적(入寂)과 입적 후에 그를 기리며 출판된 저서와 사진출판물, 영상물과 그의 학문적 업적인 법문 집, 산문집, 잠언 집, 여행서, 역서/ 편저, 어린이

용편지, 관련출판물, 오디오 북, 법정의 영문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저서들이 있었다.

셋째, 법정의 생애를 바탕으로 법정의 선문화와 차문화인 선차문화에서 선문화(禪文化)는 법정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현재를 완전하게 사는 것을 선의 정신이라 말하고 있다. 임제선사, 성철선사를 통해본 선의 정신과 법정의 두 가지 선사상 핵심과 선사상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선사상의 핵심으로는 지혜와 자비를 들 수 있으며, 선사상 특징으로는 무소유의 청빈사상 불교와 타종교의 화합사상 자연과 생태주의사상 맑고 향기롭게 사상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출가정신에서는 출가수행자의 다섯 가지 출가정신을 말하고 있다.

차문화(茶文化)에서는 법정의 차 사상은 다선일미(茶禪一味)와 맑고 고요와 담박함과 검소함에 대해서, 우리민족 정신을 지키는 호국사상이라 말할 수 있다.

차생활에서는 처음으로 차를 알게 된 시기는 20대 행자시절이다. 효봉선사의 법문 끝에 남은 차를 마셨는데 그는 그 때 마신 차 맛이 쓰디쓴 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차를 제대로 마셨던 시기는 봉은사 다래헌 시절이다. 그 곳에는 감로 천이라는 좋은 물이 있었고 차는 지리산 조태연 씨 집에서 나오는 차를 상품으로 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차로서는 좋아하는 전통차인 녹차이외에 차꽃차, 대용차인 연꽃차, 매화차 매실차 등의 다양한 차를 마셨다. 중국차로는 자스민차, 용정차를 마셨고 일본차로는 주로 말차를, 인도의 홍차를 마셨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차를 마셨는데 무더운 여름철은 녹차를 마셨으며, 장마철에는 홍차를 마셨다. 가을철에는 발효된 차를 마셨다.

차를 선물한 지인들은 일타스님은 전라도 사는 비구니가 만든 차를, 현묵스님은 운상차를, 금당선생은 용정차 2통 중에 한통은 직접 불일입으로 가져가고 한통은 책과 함께 보내었고 종대스님은 지리산에서 차 2통, 원화보살은 해마다 반야로 차를 보낸다. 법정은 한국 다인회의 몇몇 뜻 있는 분들에 의해 1백 20년 만에 복원된 일지암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는 한 잔의 차의 여러 가지 숨은 공덕을 말하고 있다. 차를 따는 풍경을 좋아하여, 차를 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안복(安福)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다.

다사(茶事)는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법정은 차 따기와 제다를 송광사에서

하였으며 불전에 차를 공양할 때에는 차를 마실 때 불전에 올린다. 법정이 차를 차 마시는 방법은 공복에 차를 즐겨 마시며, 마실 때의 차의 분량과 물의 양은 따랐을 때 찻물이 찻잔의 반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 차를 마실 때는 흥이 나거나 기분이 좋은 날은 꼭 마신다. 홀로 마시는 차는 선의 삼매에서 느낄 수 있는 선열(禪悅)이라고 이야기하며, 홀로 마실 때는 꼭 두 잔만 마시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가벼운 일을 하다가 돌아와 식은 물로 차를 마신다. 방문객과 같이 마실 때 찻물이 한 방울까지 우려 날 때까지 마셨다.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는 정치나 돈 이야기 말고 차에 어울리도록 맑고 향기로운 내용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차를 마실 때의 마음가짐은 우선 마음이 한가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차분한 마음으로 다기를 매만지고 차의 빛깔과 향기를 음미하면서 다실의 분위기도 즐겨야 한다고 하였다.

법정이 차를 달일 때 사용하였던 물은 다래현에서는 감로천, 불일암에서는 요사 채 밑에 있는 네 기둥 연꽃봉 샘물, 강원도 오두막에서는 개울물과 급월정 샘물이다. 다구(茶具)들은 차 뒤는 기구로서는 차 전용프라이팬이 있으며 차주전자, 물병, 다관과 찻잔, 기타 등이 있다. 그리고 도예가 김기철과 송충효가 각각 만든 ‘법정찻잔’이 있었다. 불일암에 만든 다실(茶室)은 조그만 골방을 다실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후 크기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다고 했지만 고치지는 아니했다. 불일암 다실의 명칭은 ‘수류화개실’이라 정했으며, 명칭은 황산곡의 시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실의 벽에는 그림엽서액자와 글씨로 된 족자를 걸었다.

법정의 애송하였던 다시(茶詩)는 노동의 칠완 다시를 끝부분만 개사하여 애송하였으며, 황산곡, 충지선사, 허균, 김정희, 초의선사, 작가미상의 다시들이 있다.

즐거보았던 다화(茶畵)는 소당 이재관의 <오수도> 이다. 법정의 선시와 선화 및 다시와 다화의 작품에서, 선화는 간단한 선시와 주로 선으로 그린 산을 표현한 그림이 전부이다. 주로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나 부채 등에 간단한 내용의 글이나 선시에 간결한 산 그림에 검은 점으로 해를 그렸으며, 붓이나 펜으로 그렸다. 다화와 다시는 다관과 찻잔이 하나뿐인 수묵으로 그린 그림에 다시를 적었다. 다시의 내용은 물에 관해서, 홀로마신 차와 맛과 향기에 관해서, 다경의

내용 중 차에 관해서, 노동의 칠완 다시, 한자로 적은 다선일미 등이다.

넷째, 또한 법정외의 사회사상은 한사람의 마음수행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와 대중에게 연결시키고자 사회운동이 주목되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 후반기에 창건한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선 수련회와 다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등과 같은 사회에 끼친 공헌이 있었다.

다섯째, 마지막 장 결론은 각 장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향후과제는 법정외의 선차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법정외의 선차문화 연구는 법정외의 생애 그 자체가 선과 차가 하나인 선차일미(禪茶一味)의 경지로서 살다 가신 자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정외의 선차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조화되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적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 선차문화에 대한 연구나 법정외의 저서에 관한 연구는 소수가 있지만 법정외의 선차문화에 대한 연구는 전혀 전무(全無)하다. 따라서 이 연구가 법정외의 선차문화의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소홀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었음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를 기점으로 법정외선사와 우리나라 선사들의 선차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3. 향후 과제

향후과제로서는 법정의 선차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대중화와 세계화로 나누어 모색해 보았다.

1) 선차문화의 대중화

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선차문화가 요즘 트렌트로 현대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보화 사회가 주는 물질만능과 기계문명의 공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불안감 등에서 벗어나 평온과 휴식, 일상의 감성적 행복을 회복하고자 욕구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스려주는 웰빙(Well-Being)문화인 선차문화 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은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여유를 주는 동시에 정신적이고 문화적 만족감마저 경험하게 하여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이 가꾸어왔던 전통의 선차문화를 우리 모두의 현대에 필요한 생활문화와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선차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차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선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 마시기 운동

차는 마시는 음료이지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고 고요하게 해준다. 차를 마시면 정신을 각성되어 맑게 해주고 차를 우려서 마시기까지 행하는 차의 행법(行法)은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하게 하여 선적, 명상적경지로 이끌어 주어 차를 선차(禪茶) 또는 다선(茶禪)이라고도 한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맑아지고 차분해질 뿐 아니라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차 문화교류협력재단 이진수총재는 특히 차 문화교육이 청소년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 차의 정신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차문화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예, 효사상이 근본적으로 배여 있기 때문이다⁹³⁾라고 하였다.

법정은 우리민족의 근본문화와 정신을 지키려면 우리 차 마시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손병철 관장과의 차담(茶談)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가 불가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중요한 음료이자 문화입니다. 수행정진의 도반으로 차를 권했지요. 초의스님께서는 『동다 송』과 『다신전』을 통해 우리 불가의 차를 복원 시켰을 뿐 만 아니라 추사 등 조선시대 지식인에게도 차를 보급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사찰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차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커피문화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적도 없는 커피문화는 우리 근본문화를 뿌리채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우리 차 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근본문화와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손 처사 같은 분들이 앞장을 서야지요.

일본이 오늘날 세계적 정신문명국이 된 원인은 녹차라고 한다. 이유는 녹차성분 속에 정신을 맑게 하는 ‘테아닌’ 성분이 들어있다. 이 ‘테아닌’ 성분은 인체에 들떠있는 수백조의 욕망세포를 조용하게 안정시켜 맑은 정신을 기르고 정관(正觀)으로 사물의 사리판단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 성분은 암억제, 피부미용, 다이어트, 두통방지, 치아 건강 등의 효과가 있다. 일본의 시즈오카 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충치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녹차를 마시게 한다고 한다.⁹⁴⁾

우리나라도 오늘날은 경제부강국으로는 손색이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도덕적 세계적인 정신지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명상을 곁들인 녹차마시기 운동을 펼쳐야 하겠다. 한사람이 차(茶)를 마시기 시작한다는 것은 법정이 강조하고 있는 한사람의 마음정화가 사회와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한

93) <http://uh1986blog.me/>

94) <http://blog.daum.net/jjj5353/>

다는 그의 선차사상과도 부합되며 차 마시기 운동이 개인과 가정으로 확대될 때 자연스럽게 사회와 자연의 정화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2) 가정에 다기(茶器) 갖추어 음차(飲茶)생활하기

차 도구를 갖춘 가정에서의 음차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의선사는 저술한 다신전(茶神傳)에서 다도(茶道)에 대해서 말하기를 차를 만들 때는 정교하게, 보관할 때는 건조하게, 달일 때는 청결하게, 정교, 건조, 청결함이 차의 지킬 바를 다함이다. 즉 다도라 하였다⁹⁵⁾(尹庚嫻, 2006 : 297-298)

가정에 다기를 갖추어 음차생활(飲茶生活)을 한다는 것은 선차문화(정신문화)를 통하여 가정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선조들의 오랜 전통의 민족문화를 계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통을 안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와 일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짙어져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애족의 정신도 가지게 된다.

가정에서 음차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한 벌의 다기가 필요한데, 다기(茶器)란 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말차면 다완이 필요하고 잎차면 다관, 숙우, 찻잔 차탁 등이 필요하며, 현대는 거의 잎차를 많이 마시므로 잎차에 필요한 차도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관(茶罐·차 주전자)

다관은 끓인 물과 잎차를 넣는 용기이다. 다관을 만드는 재료는 옥 용기 토기 도자기와 금, 은, 동, 주석, 무쇠 등 금속류로 된 것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많이 사용한다. 종류는 손잡이가 위로 붙은 것, 몸통에 둥글게 붙은 것, 몸통에 자루모양으로 붙은 것의 세 가지가 있다.

② 숙우(熟盃)

물을 식힐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물 식힘 그릇’ 이라고 하는데, 물을 따르기에 편리하게 한쪽에 귀가 달려있어 ‘귀때사발’, ‘귀때그릇’, ‘유발(乳鉢)’이라고도 한다. 탕관에서 끓인 물을 알맞은 온도로 식혀 쓰는 그릇으로 대부분 도자기를 많

95) 造時精, 藏時燥, 泡時潔精操潔, 茶道盡矣

이 사용한다. 크기는 다관의 크기에 어울리는 것이 좋다.

③ 찻잔(茶盞)

차를 마시는 잔의 총칭. 모양, 크기, 색깔, 재료 등이 다양하며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한다. 잔 입술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져서 범종을 거꾸로 세워 놓은 것 같은 것을 찻종(茶鍾)이라 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잔(盞)이라고 한다. 녹차를 마시는 찻잔에는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하여 안쪽은 흰색으로 된 것이 좋다

④ 퇴수기

다관이나 찻잔을 덥힌 물과 찻잎을 버리는 그릇이다. 도자기나 목기류가 많으며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⑤ 찻잔받침

찻잔을 받히는데 쓰이는 도구로 차탁(茶托)이라고 한다. 주석, 구리, 도자기, 나무, 대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목기류는 어느 잔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⁹⁶⁾

⑥ 찻상(茶床)

손님에게 차와 다식을 낼 때 사용하는 상이다. 찻상은 둥글거나 네모진 것이 대부분인데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불품이 없다. 크기가 적당하여 다관과 찻잔, 숙우와 차 수저를 등을 올려놓을 수 있으면 된다. 찻상은 은, 동, 나무 등으로 만들지만 주로 나무로 만든 것을 많이 쓰고 있다.

⑦ 차수건(茶巾)

차수건은 다관과 찻잔 등 다구(茶具)을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는 마른 행주이다. 무명이나 세마포(細麻布) 등 부드럽고 먼지가 잘 털어지는 재질의 천을 쓰는 것이 좋다. 크기는 너무 커면 사용하기가 불편하며 너무 작아도 불편하다..

⑧ 찻상보(茶床褌)

다기나 찻상을 덮을 때 사용한다. 찻 상보는 다구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덮어두는 것이므로 찻상을 덮을 만한 크기로 마련하며, 빛깔은 너무 울긋불긋하거나

96) <http://cafe.daum.net/mokryun3025>

요란하지 않도록 한다. 찻 상보를 예로부터 적색과 남색으로 안팎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⑨ 탕관(湯罐)

탕관은 찻물을 끓이는 솥 또는 주전자이다. 은제, 동제, 철제, 옹기, 석기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는데 돌솥이 제일 좋고, 자기나 옹기도 좋다. 형태도 여러 가지 솥과 같은 것 에서부터 주전자 종류까지 다양하다. 어느 것이든 무방하지만 전통적인 우리의 형태를 찾아 쓰면 더욱 좋다 하였다(이진수, 2015 : 169-171). 위의 차도구들을 <표 21> 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잎차 마실 때 필요한 차 도구

| 구분 명칭 | 용 도 | 종류 및 특 징 | 비 고 |
|--------------|---------------------------------|--|----------------------------------|
| 다관 (茶罐) | 끓인 물과 잎차를 넣는 옹기이다 | 손잡이가 위인 것 몸통에 둥글게 붙은 것 몸통에 자루모양인 것 | 일반적으로 도자기 많이 사용한다. |
| 숙우 (熟盃) | 물을 식힐 때 | 한쪽에 귀가 달려있어 귀때사 발, 유발(乳鉢)이라 칭함 | 도자기 많이 사용한다. |
| 찻잔 (茶盞) | 차를 마실 때 | 찻종(찻종) 잔 | 맛과 색감상시 찻잔 안쪽은 흰색이 좋다 |
| 퇴수기 | 다관이나 찻잔을 덥힌 물 과 찻잎을 버릴 때 | 도자기나 목기류 두껍이 있거나 없는 것 두종류가 있다 | 도자기를 많이 사용한다. |
| 찻잔받침 (茶托) | 찻잔을 받힐 때 | 주석, 구리, 도자기 나무, 대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다. | 어느 잔이나 어울 리는 목기류를 많이 사용한다. |
| 찻상 (茶床) | 손님에게 차와 다식을 낼 때 | 은, 동, 나무 등 둥글거나 네모진 형태 | 목기류를 많이 사용한다. |
| 차수건 (茶巾) | 다관과 찻잔 등의 다구 사 용할 때 물기를 닦을 때 | 무명이나 세마포(細麻布) | 주로 세마포를 많이 사용한다. |
| 찻상포 (茶床褌) | 다기나 찻상을 덮을 때 | 양한 천의 재료들이 있다 | 적색과 남색을 안팎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
| 탕관 (湯罐) | 찻물을 끓이는 솥 또는 주전자. | 은제, 동제, 철제, 옹기 석기 등이 있다 | 돌솥이 제일 좋다. |

(3) 집안에 차 문화 공간 만들기

오늘날 차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안에 차문화공간(다실·茶室)은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마음을 충전시키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기위해 차 도구를 둘 곳을 마련한다. 가정 내에서 애정이 넘치는 따뜻한 차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발달에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생활 내에는 차 문화 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방, 거실, 아이들의 방, 서재, 식당 등 생활공간의 필요에 따라 차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이일희, 2004 : 195).

(4) 선차문화의 역사공부와 선차관람문화 체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좀 더 나은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이므로 선차문화에 관한 저서, 출판물, 영상물 등 가까이 하여 우리 선조들이 체험했던 문화에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선차문화를 다시 인식할 계기를 갖게 되므로 배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선조들이 보았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차학을 전공하는 전문인의 양성이 시급하다(정민, 2011 :650). 이를 위해서는 선과 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원문해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문화인 선차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선조들의 차생활의 실상과 그들이 보았던 다서 등을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이 올바른 정신문화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차 문화축제관람(茶畵, 다악), 차 박물관관람, 선차공연, 사찰과 차문화단체의 선차문화체험. 등을 접할 때 일상생활에서 차를 접할 때 구체적으로 와닿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2) 선차문화의 세계화

우리나라 선차문화를 세계화 하려면 현대의 시대에 맞는 개념을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며 세계의 선차문화를 받아들여 다시 한국적 정서에 맞는 시대정신을 잇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선차문화의 다양화와 창조적 모색

다양화와 창조적 모색을 통해 선차문화의 세계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는 다양화시대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합류하여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하면서, 우리들의 선차문화 또한 국제적인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아무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하여도 이미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음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선차문화는 다양화 시대를 의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선차문화가 발전되어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과제일 것이다. 전통의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여과되지 않고 외부로 들어오는 선차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적응하면서도 후손에게 물려줄 한국적인 선차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민간차원과 공공차원의 지원체계

선차문화의 민간차원과 공공차원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차원의 지원은 각 지역별 선차문화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사찰 또는 차단체모임을 중심으로 선차문화운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통선원 작법을 비롯한 의례, 생활선의 제다 등의 분야인 전반적인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선차의 복원이 필요하다 하였다(韓昇希, 2015 : 73).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협의체에는 사찰 또는 차단체모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간을 공동설립 할 수도 있다. 공공차원의 지원체계에서 정부는 선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찰 또는 차단체모임에 행정, 제도, 재정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김정태, 2009 : 97-98). 선차문화의 체험은 참가자인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건강증진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광 산업적, 문화적, 사회 환경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원할 만한 공공사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는 운영사찰이나 차 모임단체에서 필요한 전용시설 건립의 설치조건을 완화시켜 주고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책임이 있다

(3)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의 지속적인 참가

요즘 지구촌은 어느 때보다 기후이상, 폭력과 환경재해, 공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은 정신을 맑고 빛나고 평화롭게 하는 세계선차대회를 통한 선차문화의 대중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선차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여 서로의 나라의 선차문화의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통하여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신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장이다. 한국에서 열린 제 7차 대회 세계선차문화교류는 학술대회 들차회, 그리고 선차공연, 차생산지 견학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선차문화’를 주제로 세계선차 학술대회와 세계 선차공연 행사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세계선차공연은 1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악의 중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렸다. 참가한 차회를 살펴보면 한국의 고선다회(古禪茶會)의 ‘무상선다도(無相禪茶道)’, 숙우회(熟盂會)의 ‘우담바라(優曇鉢華)’, 보천다회(寶泉茶會)의 ‘보천선차’, 화용선차회(和容禪茶會)의 ‘화중유화(畫中乳華)’,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시은선차(四恩禪茶)’, 정보다회(聖寶茶會) ‘향하(香河)’, 성균관 유학대학원 ‘공자헌다례(孔子獻茶禮)’, 부산차인회의 ‘주심다법(珠心茶法)’이 공연되었다고 하였다(박정진, 2012). 이런 세계적인 선차교류대회의 참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선차문화의 위상을 드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선차가 선가(禪家)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선(명상, 또는 사색)에 잠기면서 차(茶)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선조들이 지녔던 선차의 정신인 맑음, 한적, 검박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대인의 정서에 맞으며 전통문화와 조화되는 차 생활운동을 생활문화의 일환으로서 사회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때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지수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1. 原典 및 역주본

- 무여선사, 『쉬고, 쉬고 또 쉬고』, (주)새로운 사람들, 2010.
- 법 정, 『맑고 향기롭게』, (주)위즈덤 하우스, 2010.
- 『無所有』, 범우사, 1976.
- 『물소리 바람소리』, (주)샘터, 2001.
- 『버리고 떠나기』, 사단법인 샘터 사, 1994.
- 『봄여름 가을 겨울』, 도서출판 이레, 2001.
- 『산방한담』, 사단법인 샘터사, 1993.
- 『산에는 꽃이 피네』, 동쪽나라, 1998.
- 『서 있는 사람들』, 사단법인 샘터 사, 1978.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사단법인 샘터사, 1996.
- 『아름다운 마무리』, 문학의 숲, 2008.
- 『오두막 편지』, 도서출판 이레, 1999.
- 『一期一會』, 문학의 숲, 2009.
- 『영혼의 母音』, 大德印刷社, 1978.
-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 문학의 숲, 2010.
- 『홀로 사는 즐거움』, (주)샘터 사, 2010.
- 『텅 빈 충 만』, (주)샘터 사, 2000.
- 『깨달음의 거울』, 동쪽나라, 2008
- 法 海, 『육조단경』, 弘法院, 2009.
- 서경보, 『선이란 무엇인가』, 서울미디어, 2011.
- 석선혜, 『茶 文化 古典』 상, 도서출판 전통문화, 1999.
- 尹庚嬾 역저, 『茶 文化 古典』, 弘益齋, 1999.

- 역주, 『增補 茶文化古典』, 弘益齋, 2004.
- 편저, 『茶文化年譜』, 弘益齋, 2005.
- 譯著, 『杏園茶文化古典』, 弘益齋, 2006.
- 丁海廉 역주, 『아언각비 · 이담속찬』, 現代實學社, 2005.
- 清華禪師, 『傳統禪의 香薰』, 大韓佛教金輪會 編, 乙支出版公社, 1989.
- 退翁 性澈,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장경각, 1993.

2. 單行本

- 고세연, 『차의 미학』, 도서출판 초의, 1993.
- 고 현, 『무소유를 추억하다』, 도서출판, 수미등, 2015.
- 구영본,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 형설출판사, 2003.
- 김명배, 『茶道學』, 學文社, 1984.
- 『다도학 논고』, 大光出版社, 1996.
- 『다도학 논고 II』, 大光出版社, 2001.
- 『韓國의 茶書』, 탐구, 1983당.
- 『韓國의 茶詩鑑賞』, 태광출판사, 1988.
- 김봉건 옮김, 치우치평, 『다경도설』,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5.
- 김상현 외 1, 『다도와 한국의 전통 차문화』, 아우라, 2013.
- 김세중, 『무소유 잠엄집』, 휘닉스 드림, 2011
- 김진숙, 『다경』, 국학자료원, 2014.
- 김자야, 『내 사랑백석』, (주)문학 동네, 2014.
- 김태영, 『선도체험기-104』, 글앤북, 2013.
- 덕현스님, 『진리의 화원』, 도서출판 법화, 2013.
- 류건집, 『韓國 茶 文化史 上, 下』,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9.
- 박성직, 『마음 하는 아우야』, 녹야원, 2011.
- 법정·최인호,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주)여백미디어, 2015.

- 백금남, 『맑고 향기로운 사람 법정』, 은행나무, 2010
- 변택주, 『숨결』, 도서출판 큰나무, 2012.
- 『가슴이 부르는 만남』, 불광 출판사,
- 『법정 나를 물들이다』, 불광 출판사, 2013
- 신수길, 『차도구』, 도서출판 솔과학, 2005.
- 이상현, 『원감국사 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이시현, 『법정기행』, 마더북스, 2011.
- 이진수, 『정석 차의 이해』, 코레알리즘, 2005.
- 『근 현대차인물연구 1, 2』, (사)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2012.
- 『조선왕실의 차 문화』,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15..
- 이진수, 노근숙 역해, 『티 스토리텔링』,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2.
-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8.
- 장혜민,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코리아북스, 2010
- 정 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김영사, 2011.
- 정영선, 『다도철학』, 도서출판 너럭바위, 1996.
- 『한국차문화』, 도서출판 너럭바위, 2007.
- 정찬주,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1.
- 『소설 무소유』, 도서출판 열림원, 2013.
- 조 현, 『은둔』, 한겨레출판(주), 2013.
- 최규용, 『금당다화』, 금당다우, 1979.
- 『중국차 기행』, 배달, 1993.
- 최석환, 『정중무상평전』, 월간 <차의 세계>, 2010.
- 『新世界의 茶人』, 월간 <차의 세계>, 2011.
- 『禪과 茶』, 월간 <차의 세계>, 2011.
- 최운식외 3, 『한국,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 도서출판 보고사, 2009.
- 피천득·김재순·법정·최인호, 『대화』, (주)샘터 사, 2013.
- 한국어읽기연구회, 『법정』, 학이시습, 2013.
- 짱유화 신역, 육우, 『茶經』, 남탐산방, 2000.

3. 論文

- 姜吉主(2009), “臨濟 義玄의 生涯와 禪思想 研究”, 東國大學校 佛教文化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강범선(2009), “禪語錄에 나타난 茶話頭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구영본(2008), “한국 茶儀禮에 대한 史的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 金修忍(2008), “宋代 禪苑茶禮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 金貞畢(2010), “韓國 茶文化 발전에 있어서 佛教의 役割에 관한 연구”, 圓光大學校 東洋學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 김진숙(2001), “茶經』을 통해본 當대의 음차문화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喜子(2007), “五洲李主景의 茶文化觀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권혁란(2011), “茶와 禪修行에 관한 연구-고려시대의 불교茶文化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시화(1998), 「법정스님의 無所有- 安貧의 풍요 조출한 삶에 깃들인 높고 너넉한 영혼과의 만남」, 『한국도전사협회』, 導船 제 25호.
- 문경순(2011), “九山 秀蓮의 禪 思想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 朴東春(2010), “草衣禪師의 茶文化觀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朴文基(1993), “臨濟 義玄의 禪 思想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정환(1999), “知訥과 九山の 禪 思想 比較 研究”, 서강대학교대학원, 碩士學位論文.
- 方南秀(2014), “靑潭 淳浩 禪師의 ‘마음’ 사상연구”, 동방대학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신향선(1996), 「법정의 버리고 떠나기와 하이데거의 放念」, 『신홍전문대학논문집』, 제 19호,
- 徐在永(2004), “禪의 생태철학 연구”, 東國大學校 大學院 禪學과, 博士學位論文.
- 석경동(2009), “템플스테이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釋澤道(2012), 「다선일미(茶禪一味)는 어떤 맛」 제7회 禪茶文化交流大會 論文集.

신미경(2008), “茶事典籍을 통해 본 宋과 高麗의 茶 文化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신지원(2009), “차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향옥(2008), “草衣禪師의 茶禪修行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東洋學大學院, 석사 학위논문.

이명숙(2009), “法頂(법정)의 수필연구-무소유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민(2011), “이규보 다시에 나타난 풍류다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은영(2011), “茶禪一如의 시대적 고찰 -다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泳錫(2014), “『입보리행론』의 보리심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일희(2004), “生態的 觀點에서 본 茶 文化空間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숙(2009), “韓國 綠茶 採葉 時期別 主要 成分 分析 및 抗菌 特性”,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진수(2012), 「원불교 일원상과 선차연구」, 제 7회 禪茶文化交流 大會 論文集.

임인향(2011), “趙州禪師의 禪茶一味思想”,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장은화(2013), “미국의 禪 수행, 그 전개와 변용의 연구”,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俞大元(2003), “禪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 高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정 희(2008), “法頂의 무소유 연구”, 순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鄭鎮洪(2005), “趙州 從諗의 禪 思想 研究”, 東國 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丁海星(2010), “현대한국 불교문화의 대중화 연구”, 中央僧家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蔡汗叔(2012), “元曉의 和諍思想에 依據한 無忌禪의 現代的 再現 研究”, 嶺南大學 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최석환(2012), 「韓國禪茶文化의 歷史와 未來」, 제7회 禪茶文化交流大會 論文集.

최진영(2013), “東茶意識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研究-『茶賦』 『記茶』 『茶神傳』 『東茶頌』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崔惠慶(2013), “六老山居詠을 통해 본 조선후기 禪茶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한기정(2013), “18·19世紀 朝鮮 知識人의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韓昇希(2015), “韓國傳統禪茶에 대한 考察”, 國大學校 佛教文化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홍금이(2009), “茶食 發達 過程 研究 -文獻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탁광일(1999), 「법정스님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숲과 문화, 제 8권, 2호.

4. 事典

불교성전편찬회, 『불교용어사전』, 문예마당, 2009.

慧源 編著, 『禪語事典』, 운주사, 2011.

『東亞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97.

김승동 편저, 『불교사전』, 민족사, 2015.

NAVER 두산백과, 문화원형백과, 원불교 대사전

DAUM 어학사전

5. 신문/ 방송대담/ 잡지/ 소식지

- 동아일보, 1993. 05. 24 (임연철 인터뷰 「수행 법정스님」).
- , 94. 05. 18 (———— 「착한본성 연꽃처럼 피어나길」).
- 불교방송, 1996. 1.26(이은자, 맑고 향기롭게 운동 대담 -법정스님과 이계진-).
- 법보신문 1105호, 2011 (장영우, 「무소유 정신의 본질과 실천」).
- 불교신문, 1994. 01.24 (한용우, 「맑고 향기롭게 운동 전개-법정스님」).
- 불교평론 26호, 2006. 03.10 (박동춘, 「차와 선의 융합 -다선일미 정신-」).
- 세계일보, 2012. 10.23 (박정진 「세계선차문화 중심국으로」).
- 송광사 소식지 『松廣寺』, 통권 166호, 2015, 1. (인경스님, 「명상의 의미」).
- 『차와 문화』, 통권 21호, 2010. 11/12.
- , — 22호, 2011. 1/2.
- , — 24호, 2011. 5/6.
- , — 25호, 2011. 7/8.
- , — 27호, 2011. 11/12.
- , — 28호, 2012. 1/2.
- 茶의 세계, 2007. 10월호 (최석환, 「동방문화로 만나는 정토선차(淨土禪茶)」).
-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맑고 향기롭게』, 2013. 2.

6. 인터넷 홈페이지

<http://muju5.blog.me/2009.05.21>,

<http://cafe.sayclub.com/cb>

<http://cafe.daum.net.dktea/ntcv>

구조론연구소 <http://gujoron.com/xe>

<http://care.daum.net/hekong/9QHx>

<http://blog.cafe.net/socheon-cha/>
<http://blog.daum.net/samhang61/>
[http://cafe.daum.net/rmadhckdls.](http://cafe.daum.net/rmadhckdls)
쌍계사 <http://www.ssanggyesa.net>
미주현대불교 [http://cafe,daum.net/mobuddhism](http://cafe.daum.net/mobuddhism)
송광사 <http://www.songgwangsa.org/>
보조사상연구원 <http://www.bojosasng.net>
[http://cafe.daum.net/kimjijang.](http://cafe.daum.net/kimjijang)
길상사 <http://www.kilsangsa.or.kr/>
법흥사 [http://www.bubheungsa.](http://www.bubheungsa)
<http://biog.naver.com/pian2002/>
<http://blog.naver.com/kimiusa>
<http://blog.com./blumt69/>
<http://blog.daum.net/jjj5353/>
<http://cafe.daum.net/mokryun3025>

ABSTRACT

A Study on the Seon—Tea Culture of BeopJeong Seon Master

Kim, ok-su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 s University

This study is review of contemporary lived a life of seon, seon—tea culture and tee culture of Beopjeong seon master performing trail.

Beopjeong seon master clean and upright ascetic monk to seek the true value of this era and spirit of life into life philosophy of 'non-owned spirit' showed himself of realized the truth of the seon is a seon seung and dain of daseonilmi.

He was the most respected person received spiritual mentor in the days To immediately stand the ethos and the spread cornerstones of th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of tea spread to emphasize that the "moderns to be spread our drinking tea movement" just a national culture standing claim that the instruments. There seon—Tea spirit that flows to the foundation of the spiritual world of the Beopjeong can be purified through the mind performs one person spreading to the purification of society, 'clear flavors' care of themselves and the world and nature through the 'clear flavors' citizen movement stood was

the lead member of opened a meditation retreat tea and chadam program. Also, a Beopjeong is a reality to practice love for neighbor opened Gilsangsa of meditation retreats and dado program as one of the meeting clear, fragrant living through Gilsangsa one built in the second half of his life and led to think wisely minds of people is clear, He could see his contributions had on modern society through participation. In addition, seon—tea concept of culture and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Korean evolution of seon—tea culture, to come to the modern seon—Tea was culture have seen it examines the background being popularized limelight largely to a new culture forward in Korea meditation about the way tea culture go to evaluate identifi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llowing including through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other datums ,deung.

First, the seon—tea concept and established the concept of tea culture has ggikdagapung and daseonilmi of seonjong lies in its center. there are deep related inflows and seonjong in the evolution of our country culture seon—tea Samkooksidae, TongilSilla, Koryeo, Joseonsidae, the muscles present·modern culture there was a transition of seon-tea culture.

seon Buddhist vein and the lineage of Korean seon—tea to spread and starting the one people of moosang sean master of China Great 4 people seon master in Sillapeople has led to earnest eyes seon—tea culture from consideration in the koryeo medium term TaegoBow recognized tradition to the Chinese cheonggong seokok It may have. seon-tea culture background that is being popularized limelight largely to the new culture center in the well-bing culture is seen in that resulting from the desire to moderns material away from the pollution of the universal machine civilization, we can see due to the desire to recover from the emotional happiness of evereday life. the first was started in China in seventh place in Seoul, Korea.

Second, by looking at the life of Beopjeong evaluate whether his seon-tea ideas were formed and how developed. jaeka gudogi sijeol and enter the

buddhist know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eopjeong. life after renunciation of the Beopjeong we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Bongeunsa daraehun old days was living in the hermitage there was a real participation through meetings with Ham teacher and go to this democratization personnel who together and after in 2010 a Beopjeong nirvana and honor from his book, picture publications, videosthat showed his academic achievements the buddhismcollection, prosecollection, jameonjip, travellerbook, translated, edited, edited for children, Beopjeong's publications, audio books, the English Beopjeong's in Chinese, Japanese, deung,this book was published.

Third, based on the life of the Beopjeong for the seon—tea culture with tea life for the seon culture of the seon performing in the first of beopjeong referred saying that the spirit of seon fully live the present with the spirit awake. and Beopjeong's spirit of seon was through a Imje seon master, seongchul seon master. Beopjeong seon thought there divided into core and essence of seon thought is characterized by wisdom and compassion. Features of the seon spirit poverty thought of non owned, buddhism and other religions and idea of unity there is such a natural and ecological ideas 'clean favors' ideas such as there was ever a spirit of renunciation and renunciation can see the performer in the spirit of enter the buddhist of Beopjeong

The Beopjeong's of tea and tea culture with clear ideas of daseoilmi and tranquility light one and thrift, we can be called to keep the hokooksasang.

Tea life when the Beopjeong learned for the first time tea, drank tea properly time, drank wish I drank the tea, depending on the tea kind of season, there were friends gifts tea, a Beopjeong is reported to go to the restored in 120 years Iigiam It was found hidden virtues with a cup of tea and felt that it was looking at the scenery and enjoy the tea picking another anbok.

Looked at in separate distinguish dasa Beopjeong was offering tea to the Buddhist scriptures were directly making tea and tea picking, had a mind of when you drink and chat with tea dividing drinking and how tea drinking tea, using tea when you boil water and previously used dagu, dasil, love to read a dasi, enjoy and Beopjeong saw when dahwa and photo works of seon·dasi and

seon·dahwa picture could be seen

Fourth, and seon-tea world of Beopjeong's were also put forward as society 'clear flavors' that matters is the attention spread social movement connected to the public who live and go movement does not end in one's heart to performs. muddy place despite the clear fragrant lotus seemed to bloom, harsh saying my mind first for the neighborhood live in difficult and hard reality says my heart for the world transmit the first fragrance created for the world in the spirit of this meeting. And clear through the Gilsangsa one built in the second half of his life fragrant opened, such as living Gilsangsa As part of the meeting, retreat and dado programs, people are becoming clearer thinking wisely and it can be seen that social contributions, such as practicing love for neighbor.

Fifth, the final conclusion it can be given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start of full-scale study to gauge the status summary of the study but the findings in each chapter was a limitation of the study do not have Beopjeong's seon—tea culture.

Future work we developed into a living culture that appropriate and applicable to the saw sought to distinguish the direction to move the in korea of seon—tea culture based on the seon—tea culture of the Beopjeong in the popular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our traditional culture and life style of morden man in harmony it is left to to the big challenges of homework.

Seon—tea culture studies of Beopjeong can be said that the value of the research aspect of the seon—tea culture in Korea. This research will continue to study for Korean seon—tea culture and serve as an aid.

〈부록〉 法頂禪師 연보

| 년 도 | 내 용 |
|-------------|---|
| 1932 - 1953 | <p>속명 박 재철(朴在喆)</p> <p>1932년 10월 8일.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출생함. 우수영 초등학교, 목포상업학교졸업, 전남대 상과대학 3학년 1학기를 수료하다.</p> |
| 1954 | <p>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효 봉대선사를 은사로 출가, 이후 통영 미래사에서 행자생활을 하다.</p> |
| 1956 | <p>7월 15일 송광사에서 당대의 큰 스승인 효봉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수지하다.</p> |
| 1959 | <p>3월15일 자운율사를 계사로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하다. 4월 15일 명봉화상을 강주로 해인사전문 강원에서 대교과 졸업하다.</p> |
| 1960 - 1961 | <p>운허스님의 부름으로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하다. 이 일을 계기로 타고난 문재(文才)를 발휘해 글을 쓰기 시작하다.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를 하다</p> |
| 1967 | <p>동국역경 원 개설에 참여하고 역경위원으로 활동하다 봉은사 다래헌에서 우리말 『불교성전』 제작하다.</p> |
| 1972 | <p>첫 저서 『영혼의 모음』 발간하다.</p> |
| 1973 | <p>대한불교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사논설위원, 주필 역임하다.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다. 유신철폐개헌 서명운동 참여하다.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다.</p> |

| | |
|-----------|---|
| 1975 | <p>인혁당 사건이 발생, 8명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의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다.</p> <p>반체제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10월 송광사로 가 뒷산 중턱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수행하기 시작하다.</p> |
| 1976 | <p>대표적인 저서 『무소유』 발간하다.</p> |
| 1984-1987 | <p>송광사 수련원장 역임하다.</p> <p>1971년 송광사방장 구산선사 때에 시작한 4박 5일 선 수련회는 법정이 수련원장을 맡으면서 한해 500여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 불교계로 확산되다. 현재 전국 사찰에서 하고 있는 선 수련회와 템플스테이의 기초가 되다</p> |
| 1987 | <p>미국 LA에서 김 영환보살이 자신의 소유인 대원각의 대지 7천여 평과 건물 40여동 일체를 불교의 수행도량으로 사용하게 기증할 뜻을 밝히자 법정은 완곡하게 사양하다.</p> |
| 1987-1990 | <p>보조사상 연구원 원장 역임하다</p> |
| 1992 | <p>불일암으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자 강원도 산골인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화전민이 버리고 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수행정진하다.</p> |
| 1993 | <p>7월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을 발표해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지적하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기념관, 경복궁, 창덕궁 연못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 연꽃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을 발표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파악한 후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하겠다고 뜻을 전하다. 이 글을 대중에게 발표하는 계기로 생활 속에서 한사람의 마음수행을 통한 정화가 사회의 정화로 혁신될수 있다는 뜻으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시민운동을 주창하다. 이에 대중들의 시주 덕분에 살아왔으니 그 빛을 갚겠다는 뜻으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이끈다.</p> |

| | |
|------|--|
| | <p>8월 순수 시민운동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하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발기인 모임 참석자는 현호스님, 청학스님, 윤청광, 박수관, 김형균, 이계진, 강정옥, 정채봉, 김유후, 이성용 등 이다. 이 모임의 상징은 연꽃으로 하였고 그 도안은 조선대교수인 고현교수가 하다.</p> <p>10월 10일 프랑스 최초의 한국사찰 길상사(송광사 파리분원)개원하다. 유럽여행 도중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불자교포들과 유학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재불(在佛)화가들과 함께 뜻을 모아 법당을 마련하는데 나서다. 이때 도움을 받은 화주불자들을 위해 ‘길상회’를 결성하다. 서울 법련사 옆 출판회관에서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선가귀감> 등을 공부했으며 이 모임은 길상사개원 때까지 이어지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창립에도 도움이 되었다. 당시 실무는 청학스님이 맡았다.</p> |
| 1994 | <p>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창립법회를 하다.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창립기념 대중법문을 하다.</p> <p>4월 4일 부산에서 대중법문을 하여 일반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키다. 법문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순수 시민단체를 지향하다. 회원 각자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후원을 하는데 물이 흐르는 만큼 물길이 열리듯 회원들의 성의와 뜻을 모아 우선은 내마음을 향기롭게 하여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을 실천하며 소중하고 감사한 자연을 보전해가는 일에 힘쓰라 법문하다. 이러한 스님의 뜻에 따라 전국 1만여 회원이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모임에서 각각 활동하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마련하여 중고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비를 지급하다.</p> |
| 1995 | <p>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조용히 정착하면서부터 김영한보살이 거둬 대원각을 스님에게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다. 네 차례나 사양하던 스님은 주변 사부대중의 간청을 수락해 김영한보살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다. 다만 스님 개인이 아닌 조계종단의 이름으로 수락하다. 자신은 상징적인 관리자(주지가 아닌 회주(會主)의 입장에서 대원각을 기증받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다</p> |

| | |
|------|---|
| | <p>6월 13일 대원각 터와 건물일체를 길상사(吉祥寺)로 창건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분원으로 등록하다.</p> |
| 1996 | <p>5월 20일 대원각 부동산 일체를 증여받다.</p> |
| | <p>6월 7일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친 법적인 절차를 마치다.</p> |
| | <p>8월 청도운문사에서 제 1회 맑고 향기롭게 회원수련회를 실시하다. 임원 및 전국회원 80명 참석하다. 차담(茶談)프로그램도 실시하다.</p> |
| | <p>9월 26일 김영한보살의 대원각 기증과 길상사 창건 소식이 <동아일보>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당시 민심이 흥흥던 터에 이 따듯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길상사는 창건법회 이후까지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다.</p> |
| 1996 | <p>12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에 취임하다. 회원이 생기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모임의 공신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다. 이때 스님은 부득이 ‘이사장’이란 세속 직위를 받았으나 그것은 서류상의 직책일 뿐이라며 이사장 대신 ‘회주(會主)’라는 호칭을 사용하다.</p> |
| 1997 | <p>8월 김천직지사에서 2회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를 실시하다. 전국에서 120명 회원이 참석하였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스님이 직접수련회에 참석하여 지도하다.</p> |
| | <p>9-12월 길상사 초대(初代)주지인 청학스님의 주도로 불철주야 창건 보수공사를 실시하다. 수십 년 동안 요정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일소하고 주요 건물을 극락전, 설법전, 요사채, 후원, 시민 선방 등으로 개조하다. 당시 스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생활하면서 길상사 창건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부대중을 여러 차례 격려하다.</p> |
| | <p>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법회를 하다. 4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내 극락전에서 이계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창건법회가 진행되다. 각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p> |

| | |
|------|--|
| | <p>서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창건 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여 다시금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이날 스님은 “길상사가 가난하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길 바란다”면서 “선택된 맑은 가난, 즉 청빈은 삶의 미덕이며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는 내용의 법문을 하다.</p> <p>김중서, 윤용숙, 김유후, 공종원 님등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다.</p> <p>한편 길상화(吉祥華)라는 범명을 받은 김영한 보살은 개원법회에 참석해 “없는 것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있는 것을 내놓았을 뿐이니 의미가 없다”고 말해 모든 이들의 가슴에 환희심을 일으키다.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길상화 보살의 뜻을 살려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으로 바꾸고 이후 매년 전국의 중고교생 3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다.</p> |
| 1998 | <p>2월 24일 명동성당 축성 100돌 기념 초청 강연하다. 김수환 추기경의 길상사 창건 법회 축사에 답례성격도 있다. 글 쓰는 일 외에는 좀처럼 하지 않으셨던 대중 법문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창건에 대한 책임과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격월로 대중법문을 하다.</p> |
| 1998 | <p>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예퇴직자들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개설하다. IMF로 갑작스레 직장에서 내몰리게 된 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고, 내일을 다시 준비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수행과 휴식의 공간으로 운영하다.</p> |
| 2000 | <p>결식이웃 밀반찬 지원 사업을 시작하다. 노숙자, 결식이동, 무의탁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식이웃 밀반찬 지원 사업을 100가구에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330여 가구를 지원하다.</p> <p>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 및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해 인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찰생태문화 기행을 시작하다.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p> |

| | |
|-----------|---|
| 2003 | 12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회주에서 스스로 물러나다. 당시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임원들의 거듭된 만류로 사임의 뜻을 철회하다. |
| 2004 | 그간 격월로 해오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의 대중법문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두 번 하다. |
| 2005-2007 | ‘맑고 향기로운 책’을 월 1권 선정하여 3년 간 총 36권을 회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읽기를 권유하다. 독서문화 확대운동을 펼치다. |
| 2007 | 10월 폐암 진단을 받다. 병고도 당신을 찾아온 진지 중 하나라며 어르고 달래며 지내겠다는 것을 친지 및 상좌들이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권유해 치료를 위해 도미하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사들조차 성공률 4퍼센트라며 치료를 주저하였으나 “이 분은 수행자로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친지들의 강력한 주장에 치료를 시작하다.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하다며 담당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하다. |
| 2008 | 2월 미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국하다. 이후 다시 길상사에서 의 정기 대중법문도 하고 글도 다시 쓸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다 |
| 2009 | 4월 병고가 재발하여 치료와 요양을 하다. |
| 2010 | 3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길상사의 어른스님으로 주석하다가 11일 길상사 행지실(行持실)에서 세수 79세, 법랍 55세를 일기로 입적하다. 13일 송광사에서 다비식 거행하다. |

www.Kilsangsa.or.kr/

박성직, 『마음하는아우야』, pp.242-247, 정찬주, 『무소유』, pp.317-323,

僧寶宗刹 曹溪叢林 松廣寺, 「봉행 법정 대중사 49재」(法頂 대중사 연보).